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6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6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4.

- ◎ 수탁기관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 공동연구원
전무경 (한울사회복지연구소)
- 연구보조원
배상익 (Old Park Special School, U.K)
이소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최다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주진완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약

1. 연구 서론

1) 연구 수행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시작한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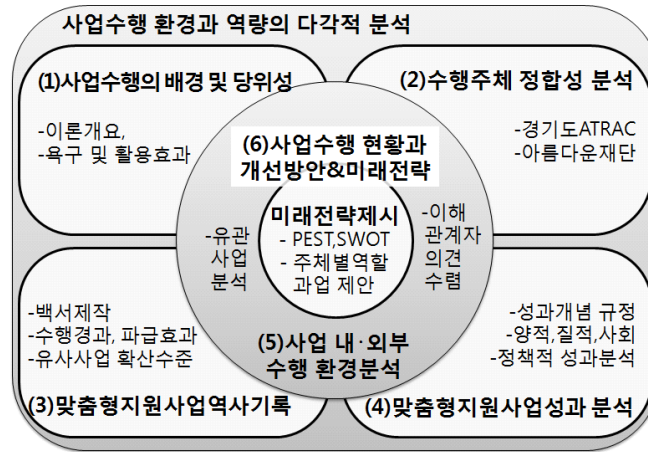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함께 실시해 온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혜자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후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기존의 획일적 제품 모델을 벗어나도록 선행 모델을 제시했고, 보급 품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국가차원의 공적 보조기구 지원 제도의 품목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업 수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실시된 사업의 성과와 의미, 수행과정과 사업 역사를 정리하여 재조망하고 이를 공유하여 유관 사업의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표와 수행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주요 성과 목표는 ‘맞춤형지원사업의 수행 배경과 당위성, 경과 등 사료적 자료(백서)의 정리 및 출간’, ‘성과 논리체계를 통한 사업 성과 정의 및 실증적 성과 측정’, ‘국내외 유관 사업 사례 분석과 대비’,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및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의 수립과 제안’으로 한다. 성과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과 논리체계에 입각한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의 분석’, ‘국내외 민간분야의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현황 및 특성 비교 고찰’,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와 유관사업 대비, 대내외 환경 분석’, ‘미래 전략의 제안’이라는 4단계를 하위 과정 목표로 수립하였다. 주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사업 수행의 배경 및 당위성, 수행주체의 적합성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 역사 기록,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 분석, 사업 내·외부 수행 환경 분석, 사업 수행 현황과 개선방안·미래 전략의 제시’라는 6가지 영역의 주제로 구

성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2.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요와 수행당위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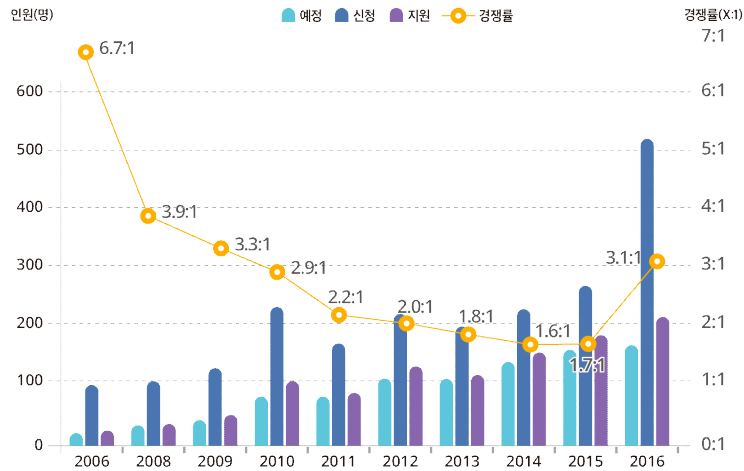
1)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요

연구의 분석대상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수행해 오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억3,8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총1,087명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1,460개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신체기능 증진을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업 수행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부적합한 보조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기존의 획일적 품목 지원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욕구와 신체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능력 향상, 학습기회 부여,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 유도 목적이다.

사업 수행 과정은 초기에 만들어진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1차심사), 현장평가(2차심사), 최종지원대상자선정(3차심사) 및 발표, 지원기구선정, 시험적용 및 평가(최종 지원기구 선정), 공개입찰 및 납품업체 선정, 기기납품 및 설치(사용자 훈련), 사후관리’의 절차를 유지하면서 지역 기관의 참여에 따른 ‘업무 협약 및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지역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등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수행 절차는 ‘기획, 실행, 평가, 환류 및 수정보완’ 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과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 초기부터 2009년까지 3회차 동안은 품목의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5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지원하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반면 이러한 사업 방식은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기구 활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초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상자에게 자원이 집중되면서 신청 인원에 대비한 탈락률 증대의 문제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과중은 사업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는 소비자의 욕구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품목을 집중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대상인원을 확대하도록 사업전략을 수정했다. 특히 중증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성이 높은 착석 및 자세유지보조기구와 보행행훈련보조기구 등이 주된 지원 품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2004년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정보통신보조기구 보급사업이나 2005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보장구 급여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컴퓨터(학습)접근 보조기구와 이동보조기구(전동휠체어)관련 수요가 감소된데 따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착석 및 자세유지보조기구의 영역에서도 기립보조기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세유지의자(리클라이닝/틸팅이너자세유지의자)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지원이 실시된 이후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 또한 2013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지원 품목에 자세유지보조용구(앉기자세유지 보조기구)가 포함되면서 관련 수요의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사업이 수행된 10년 동안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총 2,185명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총 1,087명이 지원을 받았다. 당초 사업 공고를 통해 계획되었던 지원 대상 인원이 93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감 예산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계획 대비 116.9%의 초과 지원을 한 것이지만, 지원 신청 인원에 대비하면 49.8% 수준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사업기간 동안 신청인원 대비 지원 선정 인원 기준의 10년 간 평균 경쟁률은 약 2.3 :1 수준으로, 최고 6.7 :1(2006년)에서 최저 1.61 :1(2014년)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편차가 큰 편이었다. 품목의 다양성이 감소되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지원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던 수행 초기와 품목이 9가지로 확대된 2016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다.



<신청 및 지원 인원 연간 추이>

총 1,087명 중 남자가 636명으로 58.5%였고, 여자가 451명으로 41.5%에 해당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로 등록(뇌성마비장애 포함)한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3/4에 달하는 817명으로 75.2%에 달했다. 뒤를 이어 지체장애(근육장애포함)로 등록한 장애아동·청소년(133명, 12.2%)과 중복장애(131명, 12.1%)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기타 유형의 장애로 등록된 지원자는 6명(0.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선정한 지원 대상 제품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뇌병변, 중복장애 인들에게 유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의 당위성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당위성은 선행 연구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품목의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1) 대상자 욕구 반영의 적절성

정부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에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약 1,63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었지만 사업의 포괄 범위나 내용이 충분치 못한 상태여서 ‘맞춤형 지원사업’과 같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정체성인 ‘장애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보조기구’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학생들의 보조기구 활용이 학습능력을 극대화하여 교수·학습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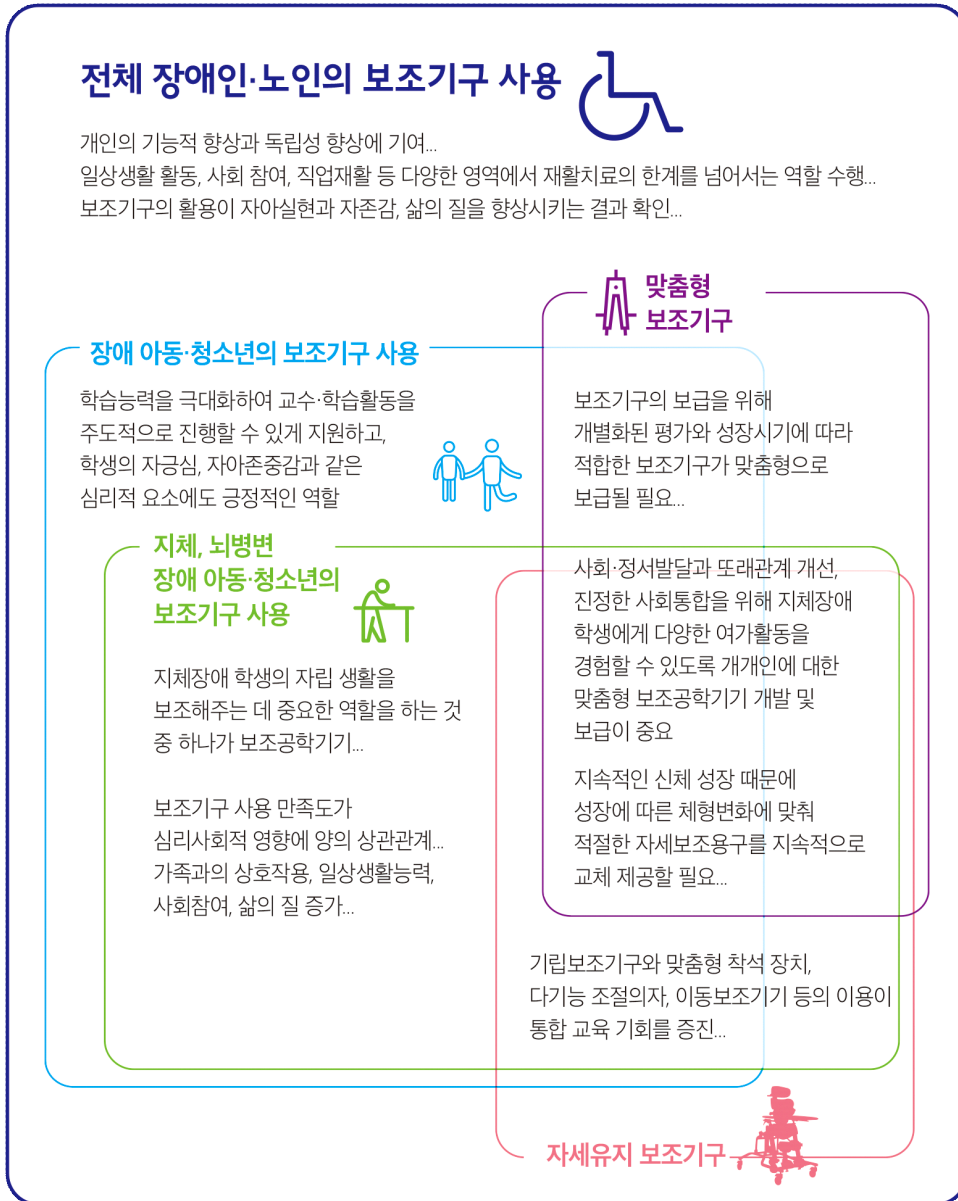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학생의 자긍심,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와 보조기구를 사용한 학생들이 더 풍부한 학교생활 참여와 통합 경험을 누리고,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공학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확인되었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87.4%를 차지한 장애 유형이었던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도 별도로 검증되었다.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9.0%가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속적인 신체 성장 때문에 성장에 따른 체형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자세보조용구를 지속적으로 교체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다. 지체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정서발달과 또래관계 개선,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지체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고 주장도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아동과 청소년, 그 중에서도 뇌병변 및 지체장애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세보조기구 등의 주요 보급품목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 계층인 ‘지체 및 뇌병변장애 등 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자세유지기구 등 지원 품목의 선정’, ‘맞춤형의 지원 방식’ 채택은 모두 매우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보조기구 활용의 효과성 검증

보조기구 활용 효과를 통한 사업 수행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 정책성을 규정하는 ‘맞춤형 지원’과 주요 품목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의 활용 효과성을 보고한 선행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보조기구 사용이 학습방법과 전략 향상, 장애학생의 장애 극복에 대한 자신감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과 뇌병변 및 지체 장애아동의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가 심리사회적 영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만족도 높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품목인 자세유지기구 등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자세 조절과 장시간 앉기로 인한 욕창위험의 우려에 대비하고,

착석압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건강유지 효과와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뇌병변 장애인의 제한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당위성 키워드 분석>

3. 사업 수행 주체의 역할 정합성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의 여부와 역할 배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치사슬(value chain)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 사업수행 주체에 해당하는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협력 수행

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10년 간 사업수행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름다운재단은 지원 예산의 모금과 배분을 담당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 ‘경기도센터’)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보조기기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수행기관, 협력기관, 인큐베이팅기관 등의 명칭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고 있다.

1) 아름다운재단의 역할 정합성

가장 먼저 ‘맞춤형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06년부터 수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모금 및 배분)와 사업 기획, 운영 관리 및 수행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가치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재단 정관 등의 가치체계 분석 결과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체계 중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주요 키워드들로, 조직 목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존의 자선적 시혜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나눔 가치의 확산’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 단체에 대한 지원’,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추구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역할 정합성

사업을 총괄하며 대상자 선발과 기기확보, 기기의 보급 및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지역파트너에 대한 중앙기구 기능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도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 운영 법인의 정관 등에서 확인되는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적인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과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재활공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조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사업으로의 확대 과정에서 지역센터 등에 대한 교육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노력은 ‘보조공학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3) 지역협력기관의 역할 정합성

마지막으로 지역에서의 대상자 선정(접수 및 심사)과 제품 확보(보조기구 입찰 및 구입), 제품 지원(보조기구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 지역협력 기관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가치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조기기와 관련된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와 사후관리 등의 사례관리 사업,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부(보급)에 대한 협조’ 등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주요 수행 주체들의 조직 가치를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핵심 키워드들로 정리한 결과 각 사업주체는 사업 수행의 정당성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이번에는 10년 간 수행되어온 ‘맞춤형 지원사업’이 그 동안 어떤 성과와 의의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의 분석과 성과관리 체계의 논리적용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를 산출지표에 입각한 ‘사업수행의 양적 성과’와 질적수준과 성과지표에 입각한 ‘이용자 만족 수준 성과’, 그리고 환경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보는 ‘사회적 성과’의 3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1) 사업 수행의 양적 성과



총 25억3,846만원을 투입해서



총 1,087명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총 1,460개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10년간 수행된 사업의 총량을 기술하면 지원 인원 1,087명에게 총 1,460개의 보조기구를 전달하였다. 여기에 투입된 결산액은 총 25억3,845만6천원 수준으로 평균적

으로 1인당 약 215만원 수준의 보조기구가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집행된 25억3,845만6천원은 당초 계획 예산 25억7,076만원의 약98.7% 규모이다.

집행된 결산액 중 보조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총 23억3,609만4천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92%가 기구 지원에 사용되고, 8%가 행정·관리 비용으로 집행되었다.

연간 지원예산 수준은 초기에 비하여 약 4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규모가 정채되었던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수준의 증가 추이를 보여 왔고, 지원 인원도 정채와 소폭 감소가 있었던 2010년부터 201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초기에 비해 10.7배 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자 만족 수준 분석

질적 지표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의 만족 수준과 보조기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매 사업 년도가 종결되는 시점마다 발행했는데, 사업 수행 기간 중 만족도 조사 방식은 크게 4차례 변화가 있었다.

문항	09년 (점)	문항	10년 (점)	영역	문항	11년 (점)	12년 (점)	13년 (점)	14년 (점)	15년 (점)	문항
기구 및 수행업체 만족	3.8	규격	4.05	보조 기구 및 사용 효과성	기능	4.1	4.4	4.4	4.4	4.5	규격
		무게	3.94		작동방법	4.2	4.5	4.3	4.3		
		설치고정용이성	4.28		재질	4.0	4.5	4.3	4.4	4.5	설치고정용이성
기능향상	4.2	안전성	4.51		디자인	3.9	4.4	4.0	4.3		
		내구성	4.59		사용 용이성	3.9	4.7			4.5	내구성
		사용용이성	4.25		안전성	3.8	4.4	4.2	4.4		
일상생활 변화	4.4	안락	4.48		심리변화	4.1	4.0			4.5	안락
		효과성	4.26		신체기능변화	4.0	4.0	4.0	4.1		
		전달	3.99		사회상호작용	3.7	3.9	3.8	3.8	4.4	전달
		유지관리서비스	4.22		감각지각능력			3.8	3.7		
전문가 서비스	4.63	욕구충족			4.1	4.0	4.6	전문가 서비스			
사후 서비스	4.12	인지 및 학습			3.7	3.6			4.7	사후 서비스	
사업 만족도	4.6	사후 서비스	4.12	관절운동범위			4.1	4.1			4.5
		공급업체				4.3	4.3	4.6	공급업체		
		보호자 노동감소	4.1	4.1	4.2	4.4	4.8			보호자 노동감소	
		서비스 만족 등							4.7		서비스 만족 등

<사업 만족도 수준의 연차별 비교>

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의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의미하는 4.0

에 가까운 높은 만족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항목 간의 만족도 값은 사업이 지속되면서 향상되고 있다. 사업만족도의 경우 2009년도에 4.6점에서 2010년에는 4.63점(전문가서비스), 2015년에는 4.8점까지 증가하였고, 기구 사용에 따른 효과성도 2009년도 4.2점(기능향상)에서 2010년에는 4.26점(효과성), 2015년에는 4.6점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지표로 비교된 2011년에서 2014년까지도 신체기능변화나 심리변화, 욕구충족의 수준이 4.0점에서 4.1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지원된 보조기구의 활용효과를 토대로 분석된 사업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사회적 성과와 의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프레임의 세 번째 영역인 정책 및 환경 개선 부분은 당초 사업 목적에 대입하여 ‘한국사회에 모델을 제시한 측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성과 키워드를 시기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회차가 수행된 2008년까지는 ‘최초의 맞춤형, 전문기관을 활용한 최초의 민간지원, 학령기 대상자 특성화’와 같은 ‘새로운 영역 발굴과 개척’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업의 체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연구 실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선택과 집중, 타지역 확산 가능성 시험’ 등의 ‘사업 모델화 추진 시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사업 정례화와 안정화’의 키워드와 함께 ‘자세유지 기구의 공적급여(건강보험 보장구급여 등) 제품 포함을 통한 제도·정책적 성과 달성’, ‘전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 인프라의 발굴’노력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역의 서비스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개발된 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시도되었다.

종합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에 학령기 장애아동의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 모델을 개척하고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수요가 집중되는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의 주요 품목을 발굴하여 활용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국가제도에 관련 품목의 보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보조기기 서비스 기관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기술 전수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면접조사 결과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보다 심도 깊은 성과측정을 위해 양적성과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FGI를 통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3개 상위 범주에 12개 중위 범주, 21개 하위 범주의 응답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상위 범주에서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선발과 지원절차의 신뢰성’, ‘대상기준 완화’라는 중위범주이자 하위범주의 응답들이 수집되었는데, ‘장애양상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심사공정성 확보와 맞춤 지원의 신뢰성’, ‘기존의 저소득 계층 일변도 지원을 벗어나 소득기준 완화로 보편성 확대’에 대한 높은 만족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의 상위 범주 속에는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제조업체의 서비스 진화 및 동반 성장,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같은 5개 중위범주 겸 하위범주의 진술들이 확인되어 ‘맞춤형 지원사업’이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문 보조공학 서비스 모델 수립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되었다.

세 번째 상위 범주인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는 ‘지원사업’, ‘보조기구’, ‘환경개선’, ‘성과의 공유’라는 4가지 중위 범주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지원사업’의 중위 범주 안에서는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대상 확대의 가능성,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입,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에 대한 6가지 하위 범주의 개선 제안이 수렴되었다. ‘보조기구’의 중위범주에서는 ‘보조기구의 내구성과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사용자와 보호자 의견의 적극적 반영, A/S 품질 개선’의 3가지 하위범주 요구사항이 수렴되었다. ‘환경개선’의 중위범주 안에서는 ‘보조기구 보급과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기반 조성의 필요성,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라는 2가지 하위 범주의 개선 요구사항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공

유' 중위 범주에서는 '성과의 도출과 성과의 홍보'라는 2가지 하위범주에서 사업이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면접조사 결과를 이해 관계자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참여주체	하위범주	중위범주	상위범주
사용자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선발과 지원절차의 신뢰성	
	-	대상기준 완화	
	-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확대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지원사업 한계와 발전 위한 제언
수행기관	-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대상 확대의 가능성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입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지원사업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성과의 도출	성과의 공유		
성과의 홍보			
지원기관	-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대상 확대의 가능성		
	적극적인 사업 홍보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성과의 홍보	성과의 공유		
보조기구 공급업체	-	제조업체의 서비스 진화 및 동반 성장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보조기구의 내구성 및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	보조기구	
	새 제품 개발시 사용자와 보호자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애프터 서비스 개선		
	보조기구 보급과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기반 조성	환경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참여주체별로 구분한 인터뷰 결과 범주 재분류>

5)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업 의의와 과제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현안의 해결, 사회변화 유도, 그리고 차별 및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 우리사회는 성인장애인에 비해 보조기구의 확보와 활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아동과 청소년, 특히 보조기구의 활용 필요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현안의 해소 효과를 매우 높게 거두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현안 욕구의 해결이 선도적인 민간재단의 역할과 기부자들의 모금, 국내 최초의 전문 보조기구서비스 기관의 주도과 협업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되었던 10년 전 2006년 기준 5개도 안되었던 민간 영역의 보조기구 보급사업이 2016년 기준 약 73개 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다수의 지원사업이 ‘맞춤형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아동·청소년’, ‘맞춤형’의 사업 특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을 선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보조기구 제조·공급자에게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체계적인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선도적 모델을 선보여 제도화를 견인한 민간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보조기구 인프라의 확장, 보조기구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 전달 모델의 개발, 그리고 제도화까지 민간 영역의 지원사업에 획득할 수 있는 정서적, 인식적, 산업적, 제도적 성과를 모두 가진 보기 드문 지원사업으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한 사업이다.

이와 같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는 향후 재단의 지원, 사업수행 파트너기관들의 인력,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와 법률의 개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노력 등 각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을 둘러싼 외부 환경 분석

1) 국내 유관 사업 현황 분석 결과와 시사점

연구 수행 시점인 2016년도에 국내에서 수행되는 약 40개 내외의 민간 주도 보조기구 지원 사업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생 포함)’ 또는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의 특성을 지닌 17개 사업에 대해 온라인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시되는 유관사업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는 점을 각자의 특화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사성과 사업 수행 방식이나 홍보 전략 등에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관사업들의 현황과 특성의 유사성은 일면 ‘맞춤형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은 후발 사업들로 추정할 수 있어 그 만큼 ‘맞춤형 지원사업’이 우리사회의 보조기구 보급사업 확대를 견인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유사성은 자칫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간 유사성 증가로 중복 성격의 사업으로 퇴색될 가능성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체계 분석에서 표방되었던 ‘새로운 나눔문화’, ‘시민의식의 선도’ 등의 내용에 부합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유관사업의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시사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성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고, 산출실적 관점의 양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른 보급 사업들이 양적인 산출실적 이외에 만족도, 평가척도를 활용한 활용효과의 검증(활동량 증가, 신체 변화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들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도적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미래 전략 중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사례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 시켜서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사후관리 활동 강화’와 같은 의견이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개인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이나, 향후 증가하는 개별화 욕구 지원 추세를 고려하여 현재 수행 중인 보급 선정품목 중심의 지원 방식을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별 맞춤형 제품 보급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타 사업의 미래전략에서 참고할 시사

점으로 확인되었다.

2) 국내 관련 제도 및 법률환경, 보조기구 전달체계 분석

2015년 12월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국내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은 대체적으로 12개의 주요법률과 5개의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목적과 지원대상에 따라 4부 1처에 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별로 교부품목과 급여한도가 상이하며, 외현 상으로는 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각 사업의 포괄범위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 또한 초보적인 형태로 최소한의 공적급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엄격한 급여기준, 협소한 지원 품목, 정보 부족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이 제약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공공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규모와 대상 범위의 한계 외에도 각 사업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최근 제정된 보조기기법의 시행에 따라 향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와 같은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해외 유관 환경 검토 및 시사점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을 위한 프레임과 가이드라인을 얻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보조공학의 지원과 재원마련의 근거가 되는 보조공학법이 존재하고 다양한 관련법에서 보조공학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경로가 존재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조기구 제조·판매자와 보조공학 센터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조공학의 이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획된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과 그 결과보고를 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므로 대상 연령의 특성상 주로 학교의 특수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근거하여 보조기구를 지원 받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고려사항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체계를 살펴 보았다.

보조기구와 서비스 지원의 국외사례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그 구조에 대한 단초를 구해볼 수 있다.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SETT에서와 같이 이용자, 환경, 과제, 보조기구로 영역을 구분하되,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assessment (Desideri 외, 201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조적 환경과 전달과정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여 코네티컷과 조지아 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과 방법에 대한 지표,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구상할 수 있다.

□ 보조기구 지원

○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선택에 이용자의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 이용자는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사용에 만족하였는가?

○ 환경적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선택에 환경적 조건이 고려되었는가?
- 물리적 혹은 심리사회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가?

○ 과제의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 보조기구의 측면

- 보조기구는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가?
- 보조기구는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 보조기구는 적절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서비스 전달체계

- 지원절차는 신속, 공정,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산의 사용은 적정하였는가?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면적 평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적응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 지원이 종료된 후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는가?
- 이용자는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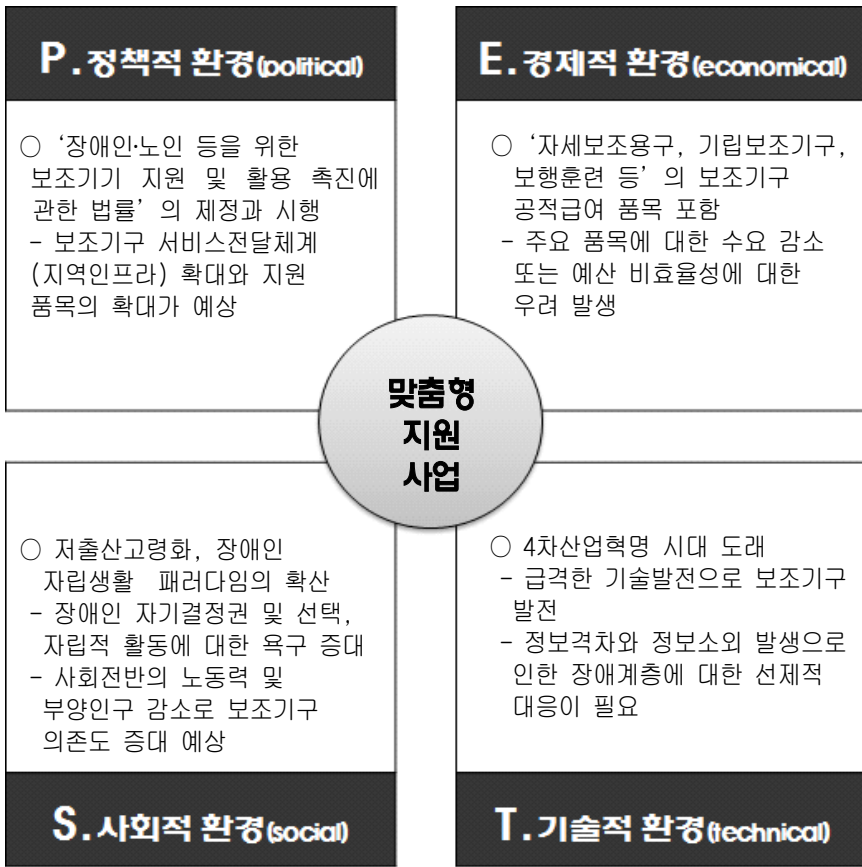
- 비용효율적인 보조기구의 제작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지원사업의 확산이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지원사업의 확산이나 제도화가 이루어졌는가?

이와 같이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평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지원사업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원사업의 기획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는 아름다운재단과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원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 전략의 제시

사업의 특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P.E.S.T. 기법과 S.W.O.T 분석, TOWS매트릭스, 가치사슬 기반의 행위주체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될 미래 전략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1) P.E.S.T.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 외부 환경의 PEST분석>

P.E.S.T. 분석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전달체계 및 지원 품목 확대(P.정책환경), 공적급여 품목 포함에 따른 수요 감소 등(E.경제환경), 저출산고령화와 자립생활패러다임확산으로 보조기구 활용욕구 증대(S.사회환경), 4차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T.기술환경)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2) S.W.O.T. 분석과 TOWS 매트릭스

<p style="text-align: center;">Internal (내적 요소)</p> <p style="text-align: center;">External (외적 요소)</p>	<p>Strengths (강점)</p>	<p>Weaknesses(약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국내최초 시도 및 10년 간 수행 경험, 선도적·시범적 사업 아이템 채택의 유연성 2.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서비스 역량의 보유 3.아름다운재단-경기도센터-지역서비스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확보 4.높은 사업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의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경기도센터와 지역협력자일 간의 역량차이 발생 2.시대변화에 따른 사업형태 변경 시 의사결정 구조의 다층화로 인한 제약
<p>Opportunities (기회)</p>	<p>O-S (강점-기회)전략</p>	<p>O-W (약점-기회)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보조기기관법률의 제정과 자립생활 패러다임확산으로 보조기구 활용 욕구 및 사회적 인식 증진과 지역협력 자원 추가발굴 가능성 증대 2.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구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선도적 아이템 및 모델의 개발보급이라는 사업 정체성을 반영하여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신사업추진 2.지역파트너의 지속적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 범위 확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법률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서비스센터의 적극적 활용 2.시대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단 및 협력 파트너들과 공유
<p>Threats (위협)</p>	<p>T-S (강점-위협)전략</p>	<p>T-W (약점-위협)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보조기구 보급 품목에 대한 국가 공적급여 확대에 따른 수요의 감소 및 예산비효율성 우려 발생 2.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조기구 사용 패턴 변화로 인한 혼란 발생 3.유관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 분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의사결정 유연성과 선도적 모델개발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과 대상 발굴 추진 2.서비스 전문 모델에 대한 연구와 자료화를 통한 비교우위 강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미래전략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증적 변화 추진 2.협력파트너에 대한 교육 및 자료공유 활동 강화 3.민간-정부의 거버넌스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개념을 사업에 반영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TOWS 매트릭스>

S.W.O.T.분석과 TOWS 매트릭스 전략수립 결과, OS전략으로는 ‘4차산업 혁명 기술과 품목의 보다 적극적 활용’과 ‘지역보조기기센터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 수행 범위 전국 확대’, TS전략으로 ‘품목과 사업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검토’와 ‘축적된 맞춤형, 전문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을 강화’, OW전략으로 ‘지역 서비스센터 적극 활용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와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적 대응 필요성 정보의 충분한 공유’, 마지막 TW전략으로 ‘미래전략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점증적인 변화 도모’와 ‘지역센터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 공유로 전국적 보조기구 서비스 품질 향상 견인’, ‘민간과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개념의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이 제안되었다.

3) 소결: 미래 지향적 사업 발전 전략 제안

(1)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의 주요 과제>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 수립방향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OS(강점-기회)전략과 OW(약점-기회)전략에서 부각되는 지역서비스 네트워크 대한 활용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치할 지역보조기기 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사업 적용 대상 지역을 점차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TS(강점-위협)전략과 TW(약점-위협)전략에서 공유되는 선도적 사업 수행 경험과 실천 기술에 대한 연구 실시와 자료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협력파트너들에 대한 교육과 자료 공유를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OS(강점-기회)전략과 TS(강점-위협)전략에서 도출되는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과 품목의 발굴을 확대해야 한다.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3가지 전략 방향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기존 방식의 사업 비중을 점증적으로 축소하면서 신규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제안되는 주제는 TW(약점-위협)전략에서 부각되는 민간-정부의 거버넌스

적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개념의 사업 반영 필요성이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중앙보조기기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정책 주체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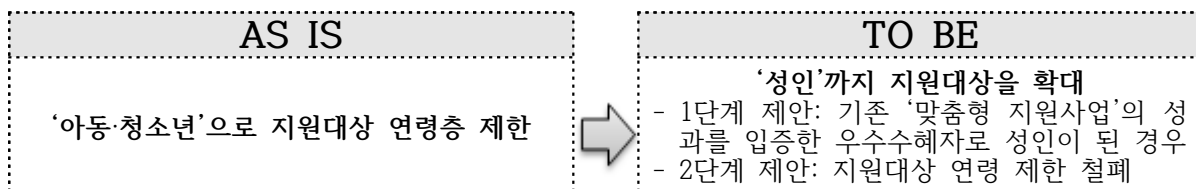
다섯째로는 OW(약점-기회)전략과 TW(약점-위협)전략에서 도출되는 발전방향인 재단·협력파트너·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강화이다. 재단과 협력 파트너, 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장애인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당위성과 성공 사례,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된 인식개선과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OS(강점-기회)전략과 OW(약점-기회), TS(강점-위협)전략, TW(약점-위협)전략의 4가지 매트릭스 모두에서 확인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신규 사업 테마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과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나 고가 보조기기 확보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micro credit)방식 도입과 같은 새로운 테마의 사업 영역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성과가 검증된바 있고,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나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계층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은 품목과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향후 5내지 10년에 걸쳐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고, 기존 사업의 절감분을 신규사업으로 전환·확대하여 사업 형태의 전환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점증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안된 기존 사업의 유지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 도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원 대상의 확대 -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② 지원 대상의 확대 - 지원 대상 지역의 확대

AS IS	TO BE
<p>‘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경남’으로 대상 지역 제한 (2016년 기준)</p>	<p>‘전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 1단계 제안: ‘전북’, ‘제주’ 등 보조기기 지원센터 기 설치 지역 확대 - 2단계 제안: ‘울산, 강원, 전남, 경북’ 지역 센터 설치에 따라 추가 확대</p>

③ 지역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운용 강화

AS IS	TO BE
<p>-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수행 역할 : 협력기관 교육 - 지역서비스기관과 공동 수행 역할 : 공모, 서류심사, 방문(현장)심사, 배분위원심사, 선정발표, 보조기구지원 및 사후관리, 수행평가, 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2016년 기준)</p>	<p>-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수행 역할 : 협력기관 교육, 지역서비스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능 추가</p>

④ 추가 지원 품목의 발굴과 적용

AS IS	TO BE
<p>- 치료훈련영역(기립보조전방형, 기립보조수직형, 기립보조후방형), 이동보조영역(고정형 유모차형, 조절형 유모차형), 일상생활영역(좌식목욕, 입식 목욕, 목욕보조휠체어형), 착석보조기구기성품 (2016년 기준)</p>	<p>- 기존 품목의 단계적 축소, 신규 지원 품목의 발굴 및 적용 추진 - 확대 제안 품목의 예시 : 차량용 보조기구, 고기능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여가·체육·문화 관련 보조기구 등</p>

⑤ 신규사업의 점증적 전환 도입

AS IS	TO BE
<p>- 치료훈련영역, 이동보조영역, 일상생활영역, 착석보조기구 등 기성품 보조기구에 대한 개인별 제품 지급 방식</p>	<p>-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품목(기성품 보조기구의 개조와 적용을 위한 액세서리 등)의 지원 사업 도입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개선 지원 사업 도입 - 공유경제, 무담보 소액대출 등 사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를 응용한 사업 방식의 변화 추진</p>

⑥ 보조기구 활용 토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

AS IS	TO BE
<p>- 치료훈련영역, 이동보조영역, 일상생활영역, 착석보조기구 등 기성품 보조기구에 대한 개인별 제품 지급 방식</p>	<p>- 사고·재해·재난 시 안전 관련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개발지원 - 보조기구 활용 및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장애인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 ‘맞춤형 지원사업’ 전문서비스 기법 및 성과 관련 연구와 자료 제작·공유</p>

(2) 미래전략 수립에 따른 수행주체의 R&R(역할·책임) 제안

① 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아름다운재단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검토 - 기부자 및 자원배분 동의절차 - 정책주체 MOU 체결	*** ***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신규 사업 도입 방향 검토 - 신규 사업 지원 계획 확정	**	** ***		
경기도센터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사업 대상 및 확대 품목 제안 - 세부 사업 수행 계획 마련 - 정책주체 MOU 체결 - 지역 협력 자원 추가 확보 - 활용 성과 피드백 수렴 강화 - 사업기법 성과 자료 제작공유 - 점진 축소 계획 수립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신규 사업 도입 방향 협의 - 신규 사업 지원 계획 작성 - 신규 사업 수행 개시(점진확대)	*** ***	***	** **	* * * * *

② 이용자(장애인)-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이용자(장애인)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활용 성과 피드백 강화 - 지원 확대 대상 품목 제안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참여 및 사용자경험(UX)공유		*****	*****	*****

③ 정책주체(정부)-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정책주체(정부)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수행주체(재단,센터)MOU 체결 -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확대 - 지원 대상 품목 수렴 및 반영	* **	* ** ** **	** ** ** *	*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인식개선 및 정보격차해소활동		** **	** ** **	*****

④ 일반국민-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일반사회(국민,언론)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및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인식개선 및 기부참여 활동	**	** ** **	** ** **	*****

7. 연구 제언

‘맞춤형 지원사업’이 수행된 이후 지원 대상과 품목, 수행방식을 따르는 다양한 민간의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주력 보급 품목이 국가에 의한 공적급여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업의 독자성과 지속 당위성을 저하시키는 외부 환경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구 지원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던데서 우수 사례자에 대해서는 성장 이후 성인기에 대한 추적 지원을 가능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나아가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제품까지 신규 아이টে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사업이 가진 고유 속성에 기반하는 동시에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가시화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제안이다.

아울러 외부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기존 사업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공유, 재사용, 무담보 소액대출,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시대적 수요가 반영된 사업으로 확장과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수행되던 사업을 급격하게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5년 내외의 전환 기간을 두어 점증적으로 신사업과 구사업의 비중을 교차시켜 전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구범위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후속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들은 국내 최초로 민간재단과 민간 서비스기관, 민간 수행주체와 정부, 민간수행기관과 산업계가 아름다운 협력의 모델을 선보인 ‘아름다운 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목 차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요 약 문	i
제1장 서론	1
제1절. 들어가며	3
제2절. 연구 개요	6
1. 연구의 필요성	6
2. 연구 목적·목표와 기대효과	4
3.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9
제2장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5
제1절.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개요	17
1. 사업의 이해	17
2. 사업 수행 현황	24
제2절.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한 사업 수행 당위성 분석	35
1. 이용 대상 계층의 욕구 검증	35
2. 보조기구 활용 효과성 검증	40
3. 사업 주체의 적정성 검토와 역할 배분	43
제3장 지원사업 수행을 둘러싼 외부 환경 분석	53
제1절. 국내 유관 사업 현황 분석	55
1. 국내 유관사업 현황 조사 개요	58
2. 국내 주요 유관사업 수행 현황 분석	60
3. 국내 유관사업 현황 분석의 시사점	75
제2절. 국내 관련 제도 및 법률 환경 분석	77
1. 국내 관련 제도 및 법률 현황	77
2.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	79
3. 보조기구 전달체계 현황	80

제3절. 해외 유관 환경 검토	83
1. 보조기구 관련법과 법적 정의	83
2. 보조기구 지원 제도	85
3. 보조기구와 서비스 지원의 고려사항	89
4. 사회 문제의 해결과 제도화 견인을 위한 민간 재단의 역할	98
제4절. 외부 환경 분석의 시사점	101
제4장 지원사업 성과 분석	105
제1절. 성과 분석의 프레임 설정	109
제2절. 지원 사업의 성과	113
1. 사업 수행의 양적 성과	113
2. 이용자 만족 수준 분석	115
3. 사회적 성과와 의의	125
4. 면접 조사 분석	130
제3절. 소결 : 사업의 의의와 과제	152
제5장 미래 전략의 개발	157
제1절. 사업 현황과 성과의 전략적 분석	159
1. P.E.S.T. 분석	159
2. S.W.O.T. 분석과 매트릭스	162
3.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 행위주체 액터(actor) 분석	164
제2절. 소결 : 미래 지향적 사업 발전 전략 제안	168
1.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	168
2. 미래전략 수립에 따른 수행주체의 R&R(역할·책임) 제안	182
제3절. 연구 제언	185
참고 문헌	187
부록 - 국내 유관사업 조사지	192

표 목 차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표 1> 초창기 사업 수행 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문	17
<표 2> 사업초기와 최근의 사업 개요 비교	18
<표 3>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취지 소개	19
<표 4> 2015년도 사업 수행 절차 및 주요 내용	21
<표 5> 연차별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범위의 변천 과정	24
<표 6> 지원제품(품목)별 총 지원 수량	27
<표 7> 10년 간 지원 대상 및 지원 결과	29
<표 8> 최종 지원자 특성별 인원	32
<표 9> 연도별 사업 수행 주체	43
<표 10> 수행주체별 역할과 기능	45
<표 11> 2015년~2016년 국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현황	55
<표 12> '맞춤형 지원사업' 유관 키워드 수행 사업	57
<표 13> 최근 3년간 수행된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목록	58
<표 14> 국내 주요 유관사업 현황	60
<표 15> 유관 사업의 세부 지원 품목 목록	63
<표 16> 유관사업의 성과 목표 개념과 측정 지표	64
<표 17> 유관사업의 홍보, 대상자 모집과 선정 방법	67
<표 18> 유관사업의 제품 보급과 사후관리 방식	68
<표 19> 유관사업의 사용자 피드백 수렴과 내용의 예시	70
<표 20> 유관사업의 장점 및 특화 차별성 응답내용	71
<표 21> 유관사업의 한계, 보완 사항과 미래전략 응답내용	73
<표 22> 국내 주요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78
<표 23> 소관부처별 주요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2015년 기준)	79
<표 24> 공공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규모(2014년 기준)	79
<표 25>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 규모 연도별 추이	80
<표 26> Overview of instruments and the concepts	92
<표 27> 보조기구 지원사업 평가틀(안)	104
<표 28> 맞춤형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수행 실적)	114
<표 29> 2009년도 사업 만족도 결과	116
<표 30> 2010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18

<표 31> 2011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19
<표 32> 2012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20
<표 33> 2013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21
<표 34> 2014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22
<표 35> 2015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123
<표 36> 사업 만족도 수준의 연차별 비교	124
<표 37> 맞춤형 지원사업 연차 결과보고의 사회적 성과 진술	125
<표 38> 인터뷰 참여자 현황	131
<표 39> 초점대상인터뷰(FGI)결과의 범주별 분류	131
<표 40> 참여주체별로 구분한 인터뷰 결과 범주 재분류	150

그림목차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그림 1> 연구의 주요 수행 목적과 목표	7
<그림 2> 주요 연구내용	9
<그림 3> 단계별 연구 수행 방법	12
<그림 4> 사업초기와 현재의 수행 절차 비교	23
<그림 5> 신청 및 지원 인원 연간 추이	31
<그림 6> 최종 지원자 특성별 분포	33
<그림 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당위성 키워드 분석	42
<그림 8> 사업수행 주체에 따른 시기별 수행 역할	44
<그림 9> 주요 수행주체의 조직가치와 맞춤형 지원사업의 정합성	51
<그림 10> 국내 주요 보조기구 전달체계	81
<그림 11>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assessment	96
<그림 12> 성과지표 체계의 기본 개념	107
<그림 13> 성과관리 체계의 구성요소	108
<그림 14>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개념	109
<그림 15> 연차별 예산 및 지원규모 변동 추이	114
<그림 16>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시기별 주요 사회적 성과	129
<그림 17> '맞춤형 지원사업' 외부 환경의 PEST분석	160
<그림 18>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TOWS 매트릭스	162
<그림 19> 행위주체 'actor'의 규정	164
<그림 20>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의 주요 과제	169
<그림 21>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하위 지표의 제안	175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들어가며

2015년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구¹⁾의 보급을 확대하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6년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의 기본 이념에서 보조기기의 편리하고 자유로운 활용보장이 장애인 등의 자아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장애를 가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부조화와 개인의 기능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보조기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선언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제연합 UN은 2006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을 제정한바 있는데,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가입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4조 일반 의무

- (g) 적절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 (h)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1) 2016년 12월 30일부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라는 용어가 ‘보조기기’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수행된 2016년까지 연구 대상 사업의 명칭과 통상적인 용어가 ‘보조기구’로 표기된 점을 감안하여 ‘보조기구’라는 표현을 유지한다. 다만 현행법에 의한 용어표기를 설명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CRPD는 위에 명시한 일반의무 이 외에도 접근성(제9조), 개인의 이동(제20조),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제21조), 훈련과 재활(제26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제29조) 등 다양한 조항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제를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임상적 경험과 연구들을 통해 보조기구의 활용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보조공학이 장애인 개인의 기능과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 활동이나 직업, 사회참여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나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paradigm) 패러다임 측면에서 환경의 개선과 장애인 권리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Mann, Ottenbache, Fraas, Tomita, & Granger, 1999; 변경희, 2001; 권혁철, 2006; 정민예, 김정란, 민경철, 구인순, 2006; 최원석, 2008).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필요한 보조기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통계인 2014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조기구가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않은 장애인의 약 90%는 경제적인 이유와 불충분한 서비스(정보)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김성희 외, 2014).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이 지원하는 주요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약 1,887억원 수준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예산의 규모나 지원 품목의 종류, 지원 대상의 범위가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연간 변화와 발전의 수준도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보조기구 관련 분야에서는 필요에 비해 충분치 못한 보조기구 관련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앞장서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민간의 주도로 재활보조기구전시회인 SIREX를 개최하기도 했고, 200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 제공 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이 먼저 실시한 전동휠체어보급사업이 200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에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포함시키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가 설치된 2004년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에는 보조기구 지원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도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시작한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민간의 선도적 노력으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제품과 단순 서류평가를 통한 기계적 대상자 선정 일변도였던 보조기구 지원 방식을 전문가와 대상자가 직접 대면하여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선택권을 높임으로 지급받은 보조기구의 활용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으로 민간 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시행 10주년을 맞이했다. 이 연구를 통해 10주년을 맞이한 동 지원사업의 역사와 성과, 의미와 한계,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도입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시행 10년을 맞은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하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표기)’을 되돌아보며 사업 수행의 당위성과 적정성, 의미나 성과, 한계와 개선 사항 등을 탐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민간부문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사업이 수행된 10년 동안 수행기관에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와 연차 사업 보고 등의 자체적인 평가와 개선 전략 수립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조사의 범위가 당해 연도 사업에 국한되고, 수행기관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기기를 지원받은 이용자에게 기기를 제공한 센터가 중심이 되어 만족도를 묻는 조사방식의 특성 상 긍정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decade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10년이라는 기간은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나누어 구분하는 단위로 종종 활용된다. 국제적으로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던 1981년에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을 재활 10년(Rehabilitation Decade)로 규정하고 UN 회원국들간의 장애인 정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한 바 있다. 이후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도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태장애인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으로 결의하고, 그 이후 매 10년마다 기존 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과 새로운 10년의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현재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를 기간으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으니, 10년이라는 역사성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그 간의 사업 수행 내용을 되돌아보며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 지속의 당위성이나 개선·발전 방향을 검토할 시점으로 적합한 단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지원사업’도 지금까지의 10년을 토대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 혹은 더 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의 수행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속가능성의 검토, 미래전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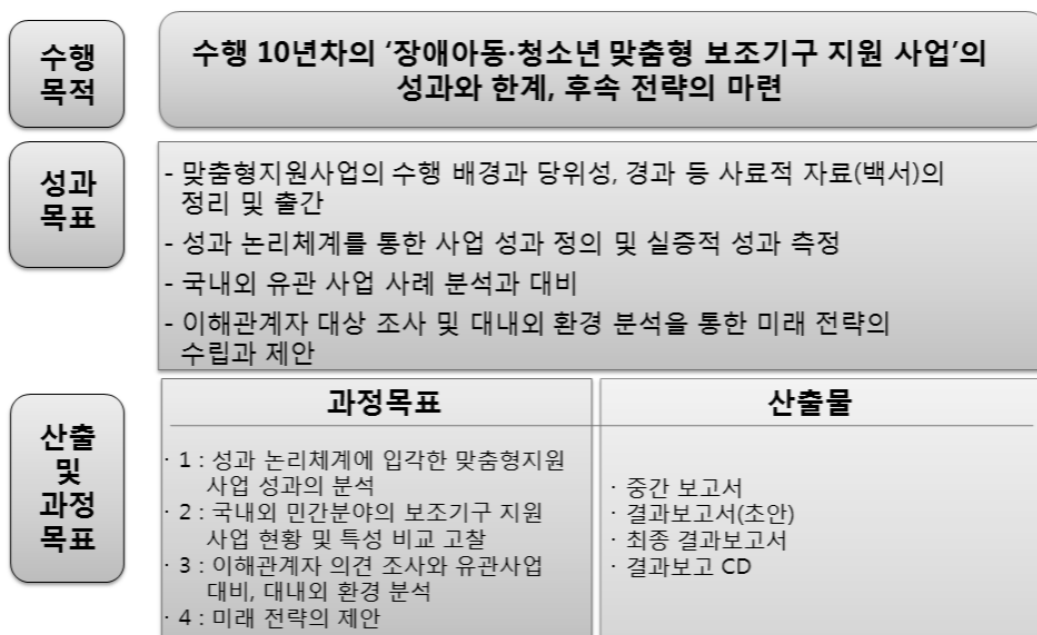
수립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목표와 기대효과

이 연구는 지금까지 10년간 수행된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과정과 내용을 합목적성, 책무성, 수요자 중심의 원칙 준수, 선도와 미래지향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되돌아봄으로, 그 성과와 한계, 후속 전략을 마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함께 실시해온 ‘맞춤형 지원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혜자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후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기존의 획일적 제품 모델을 벗어나도록 선행 모델을 제시했고, 보급 품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국가차원의 공적 보조기구 지원 제도의 품목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업 수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실시된 사업의 성과와 의미, 수행과정과 사업 역사를 정리하여 재조망하고 이를 공유하여 유관 사업의 발전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주요 수행 목적과 목표

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 외에 민간부문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현황과 성격, 수행방법, 각 특성과 장·단점 등을 ‘맞춤형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주요 성과 목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배경과 당위성, 경과 등 사료적 자료(백서)의 정리 및 출간’, ‘성과 논리체계를 통한 사업 성과 정의 및 실증적 성과 측정’, ‘국내외 유관 사업 사례 분석과 대비’,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및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의 수립과 제안’으로 설정하였다.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의 수행 과정을 ‘성과 논리체계에 입각한 맞춤형 지원사업 성과의 분석’, ‘국내외 민간분야의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현황 및 특성 비교 고찰’,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와 유관사업 대비, 대내외 환경 분석’, ‘미래 전략의 제안’의 4단계로 하위 과정 목표로 수립하였다.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은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과 공유, 사업 10년의 역사 기록과 보존, 후속 사업 수행 방향과 미래 전략의 3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사업의 실증적 성과를 검증하고 사회 전반에 공유하는 작업은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 사회참여를 위한 선도적 모델 역할을 수행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당위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동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년 간 수행된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수행과정과 성과 등의 역사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후속 사업의 경로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사업의 의미, 제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 수행의 당위성을 판단하고, 지속성과 발전성에 중점을 둔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후속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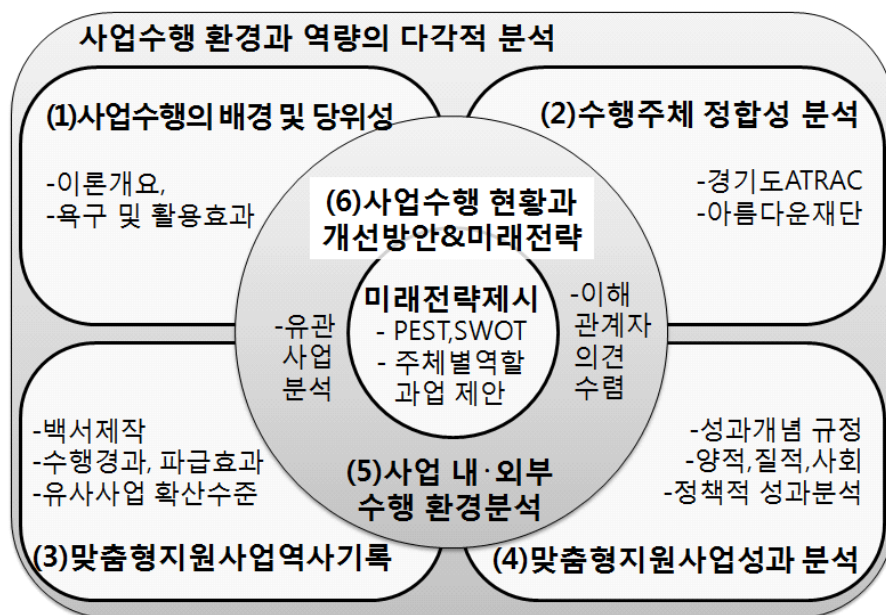
최종적으로는 연구의 결과가 아름다운재단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재단 및 센터와 정부)의 협력 방안의 모델과 각 이해관계자 별 수행 요구 역할,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여 보다 많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필요한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

된다.

3.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맞춤형지원사업의 수행 배경과 당위성, 경과 등 사료적 자료(백서)의 정리 및 출간’, ‘성과 논리체계를 통한 사업 성과 정의 및 실증적 성과 측정’, ‘국내외 유관 사업 사례 분석과 대비’,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 및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의 수립과 제안’의 4가지 주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영역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주요 연구내용

(1) 사업수행의 배경 및 당위성

‘맞춤형 지원사업’이 수행의 당위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업이 그 욕구를 해결

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기구와 서비스 관련 이론의 개요를 소개하여 보조기구와 보조기구 서비스(맞춤형 지원)의 개념, 필요성, 효과 등 사업 수행 기반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성인기와 차별화되는 아동, 청소년기의 보조기구 활용 특성 및 효과성, 적용 전략 등에 대한 선행 논문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보조기구 활용 욕구와 효과성의 실재를 확인하였다.

(2) 사업 수행 주체의 정합성 분석

‘사업수행의 배경 및 당위성’이 확인된 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합목적성’의 영역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적합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욕구와 주변 환경의 분석 결과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 해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조직은 아닌지 혹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조직의 가치가 잘 부합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의 설립목적과 같은 조직 가치체계와 역량 등이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재단과 센터 양 기관의 협력 사업 수행 방식과 역할배분이 적절한지도 함께 살펴본다.

(3)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역사 기록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경과, 연차별 수행 실적 및 만족도, 결과보고 내용, 주요 사례 및 홍보, 언론 보도 내역 등을 역사 기록으로 정리하여 사업 백서 형태의 별책으로 제작한다.

(4)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성과의 분석은 책무성(accountability)의 영역으로 설명된다. 사업이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의 요소와 투입된 자원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여받은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업의 수행이 사용자 중심, 고객중심의 접근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사업 성과의 개념을 명확히 정

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조기구 지원,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의 개념을 토대로 특화된 성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적성과(사업 수혜 인원 및 지원 건수, 지원 규모), 질적 성과(이용자 만족도, 기능 향상도, 인터뷰 등), 사회환경 및 정책 개선(홍보와 인식개선, 사회적 공감대 및 유사 사업 확산 수준)의 다각적 방향에서 성과를 분석한다.

(5) 사업 수행 환경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사업이 수행되는 내·외부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 사업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틀 (framework)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업의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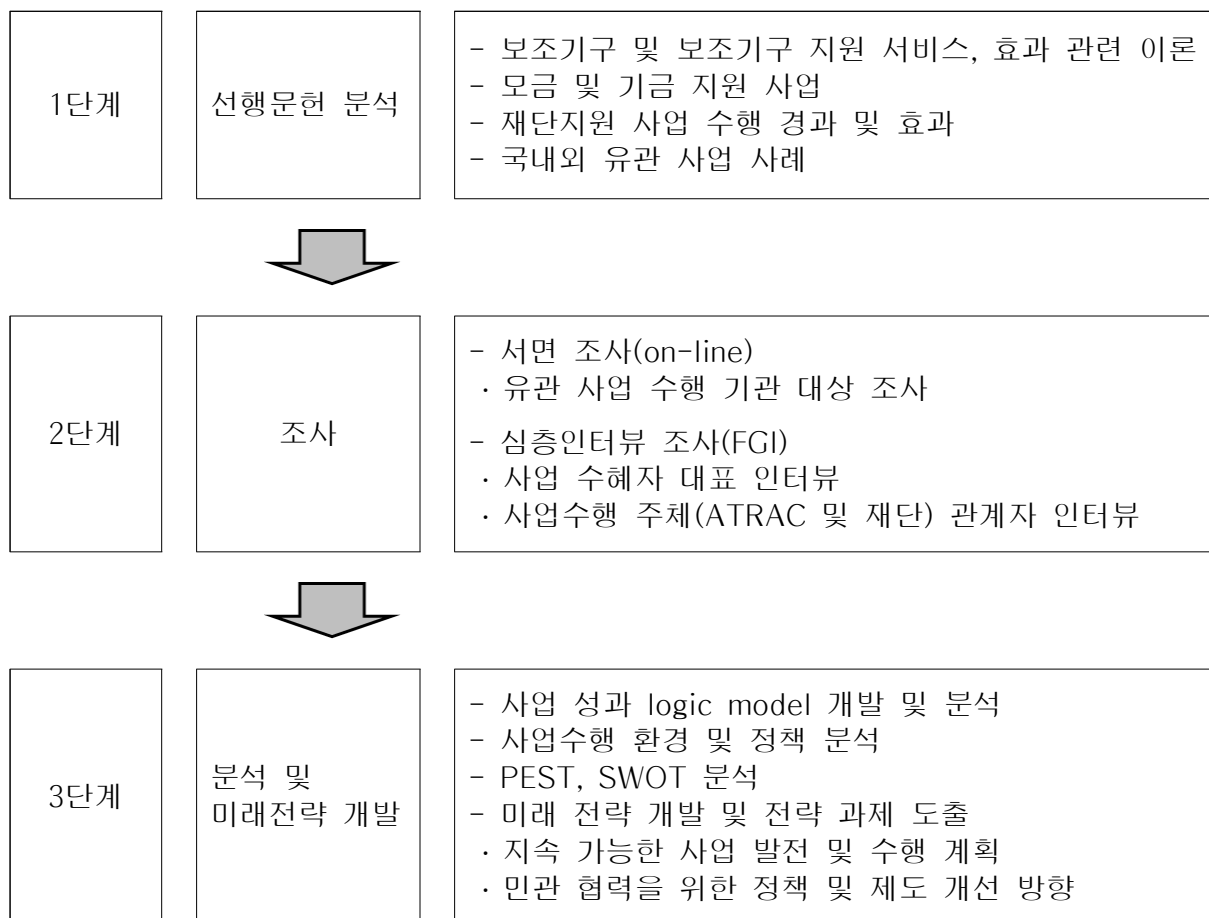
아울러 사업수행 주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센터)와 사업 수혜자, 참여 기업 등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FGI 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지는 의미, 한계점과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한다.

(6) 사업 수행 미래 전략 제안

최종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속 당위성과 개선방향, 미래 전략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행 중인 민간 보조기구 지원사업과의 대비 분석을 통해 재단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PEST 및 SWOT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미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래 전략에는 사업 수행 환경의 변화와 수행 주체의 역량, 잠재력을 고려한 후속 사업의 추진 방향, 성과목표의 제시 등과 향후 전략 과제와 수행 과업, 사업 수행별 역할 실천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사업’이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연구 수행 방법

연구가 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보조기구(지원품목) 지원 효과와 필요성, 서비스 중재, 모금 및 지원 사업, 맞춤형지원 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국내외 유사 사업에 대한 대비 분석을 위한 문헌 조사를 실시한다. 문헌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유사사업의 수행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framework)을 개발하고, 해당 분석틀을 중심으로 국내 유관 사업 수행 기관 대상의 온라인 서면 조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재단지원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재단임직원, 수행기관 관계자, 사업수혜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의의와 효과, 만족도, 개선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한다.



<그림 3> 단계별 연구 수행 방법

선행문헌 분석 결과와 연구 조사의 결과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 정책을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당위성 검증과 미래전략의 개발, 전략과제의 도출을 시도한다.

연구의 수행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로부터 과제를 수탁 받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였다.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제 2 장 이룸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제2장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제1절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개요

1. 사업의 이해

1) 사업 개요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수행해 오고 있다.

사업 초창기인 2006년과 2007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 취지와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구분	내 용
사업 수행 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의 사용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교육·직업의 기회 확충 등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본 사업은 기존의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품목만을 지원했던 배분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사용자의 욕구와 신체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학령기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신체능력 향상은 물론 학습기회 부여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위함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 장애유형에 맞는 개별적인 지원 시스템 개발 및 한국적 지원모델 제시 ○ 향후,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확대 기반 마련

<표 1> 초창기 사업 수행 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문

첫째는 부적합한 보조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획일적 품목 지원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욕구와 신체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부여,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개별적인 지원 시스템 개발과 한국적 지원 모델 제시, 향후 정부 보조기구 지원사업 확대 기반 마련’의 3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사업 2년차 수행시기인 2006년, 2007년과 현재 수행 중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사업 개요를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구분	2015년~2016년	2006년~2007년
사업명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지원내용	-맞춤형 착석, 기립, 이동, 일상생활 보조기구 중 최대 200만원 이내 2품목 지원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1인당 최대 550만원 이내)
지원대상	-지원지역:경기도, 경상남도,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원연령:6~24세(1993~2011년 출생자) -장애유형:지체 및 뇌병변 또는 이를 동반한 중복 장애 -기타사항:장애 등급 무관하나, 단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은 신청 불가, 시설 거주자 신청 불가	-서울 경기 지역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육장애인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
예산규모	-2016년: 395,990,000원 -2015년: 388,540,000원	-2006년: 82,500,000원 -2007년: 145,960,268원
지원규모	-2016년: 총 214명(당초 170명 계획에서 추가지원 44명 포함) -2015년: 총186명(당초 160명 계획에서 추가 지원대상자 26명 포함)	-2006년: 총20명(당초 15명 계획에서 추가지원 5명) -2007년: 총30명(당초 27명 계획에서 추가지원 3명)
수행(실행) 기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외 부산광역시보조기구센터·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인천광역시보조기구센터·광주광역시보조기구센터·대전광역시보조기구센터·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경상남도보조기구센터가 협력수행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단독 수행

<표 2> 사업초기와 최근의 사업 개요 비교

지원개요의 비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의 명칭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1인 당 지원 수준은 초기 550만원 상한에서 200만원 상한으로, 지원 품목의 종류도 무제한에서 1인당 2품목 이내로 다소 축소되었다. 반면, 전체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4.8배, 지원대상 인원은 10.7배 이상의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현재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기금은 ‘행복한동행기금, 송진우기금, 엔씨소프트희망네트워크기금, 세피양행복나눔기금, 3M기금, 마지막강의기금, 풀뿌리의힘기금, 어머니의손길기금, 신용순이기숙추모기금’ 등 아름다운재단의 9개 기금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은 홈페이지의 사업 소개에서 사업의 취지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동·문화 향유의 권리’를 지켜주고, 학령기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 유형, 신체적·기능적 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신체 사용능력 향상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 자립생활의 가능성 확대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돕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아이들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

좋은 사회, 살기 좋은 공동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맑은 감수성으로 건강하게 자라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모든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물질적 지원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의 부족함이 미래의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켜주고자 합니다.

이동할 권리와 문화를 누릴 권리를 찾아주고

휠체어 장애인은 혼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보급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홀로 길을 나섰고, 그로 인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서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라 만들어지는 보조기구의 종류만 2만 5천 가지, 한국에 수입되는 품목만도 50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기구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게 작은 배려를 내어주는 마음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동할 권리와 문화를 누릴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중증장애 아이들에게 전동휠체어는 그림의 떡

많은 장애인에게 제공된 전동휠체어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 아동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지탱해줄 수 있는 지지대가 보완되고 손가락으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보완된다면 장애인 홀로 어디든 다닐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박사도 다양한 보조기구가 있기에 손가락 하나만으로 물리학연구와 전 세계 교류활동을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낯선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는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게 활동의 가능성을 넓히고 그로 인한 독립적 생활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장애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아름다운재단은 학령기 장애 아동, 청소년의 장애 유형, 신체적 · 기능적 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보조기구를 통해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신체 사용능력을 높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 자립생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새 의자에 앉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장미에게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어렵게 마련했던 10년 된 의자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동안 장미는 성장했지만 의자는 잦은 고장으로 지금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착석 자세유지 의자를 가지고 장미네 집을 찾아간 낯은 아이가 학교 졸업사진을 찍던 날.

교체가 필요해도 비용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장미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때 찾아와준 의자가 너무 반갑고 감사한 선물이라 하십니다.

혼자서는 앉아 있을수 없는 장미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의자.

계단이 있는 집이라 밖을 나설때 마다 아이를 안고, 또 의자를 안고 움직여왔는데 이 별하려니 서운하지만 새 의자를 보니 설렙니다.

장미가 새롭게 걸어갈 세상에 새친구 틸팅의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바랍니다.

<표 3>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취지 소개(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소개 자료
(<http://www.beautifulfund.org/?m=fund&mod=bizi&cat=15&p=2&sort=name&orderby=asc&recnum=8&uid=4>)에서 발췌)

2) 사업 수행 방법

사업의 수행 과정은 수행 초창기에 만들어진 ‘광고 및 신청접수, 서류심사(1차심사), 현장평가(2차심사), 최종지원대상자선정(3차심사) 및 발표, 지원기구선정, 시험적용 및 평가(최종 지원기구 선정), 공개입찰 및 납품업체 선정, 기기납품 및 설치(사용자 훈련), 사후관리’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기관의 참여에 따른 ‘업무 협약 및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등이 보강되었고, 2015년 부터는 지역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도 추진되었다.

가장 최근 수행된 2016년도 기준의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①오리엔테이션, ②사업협약식, ③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④서류심사, ⑤현장평가, ⑥최종심사(최종지원대상자 선정), ⑦보조기구 구입, ⑧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⑨보조기구 지원 및 교육, ⑩만족도 조사, ⑪사용수기접수, ⑫사업관리, ⑬기관워크숍’으로 총 13단계로 진행되었다.

단계	절차	추진기간 및 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3/15(화), ATRAC 회의실 -협력기관, 수행기관 참석 -사업 추진 과정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진행과정 및 일정공유 -사업 양식, 홍보포스터 확정 -사업예산 운용범위 안내
2	사업협약식	-3/8(화) -재단 및 사업 소개, 현판 전달 등	
3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3/10(목)~30(수) -재단, 협력기관, 수행기관 등 동시 홍보 진행	-포스터 발송, 배너 업로드, 센터 이용자 문자 발송 등
4	서류심사 (현장평가대상자 선정)	4/4(월)~4/15(금) -사업 기관별 자체 수행 → ATRAC 취합 -현장평가 대상자 발표 : 4/17(금), 17:00 동시 발표	-심사기준 마련, 현장평가 방법 및 주의사항 논의 -심사결과 및 현장평가 대상자 선정 동의서 작성
5	현장평가	4/18(월)~5/13(금) -수행기관에 대한 PILOT 현장평가 실시 (4/25~29) -협력기관, 수행기관 공통 ‘현장평가 기록지’적용	-가정 및 교육기관 등 사용 환경 방문 평가 실시 -운동기능, 보조기구 사용 환경 등 평가 및 평가 기록지 작성(PILOT기관 참관)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6	최종심사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회의 : 5/16(월)~6/10(금) -사업 기관별 자체 수행 → ATRAC 취합 -재단 승인 : 6/3(수)~6/12(금) -지원 대상자 발표 : 6/12(금), 17:00 동시 발표	-현장평가 대상자 사례공유 -심사 배점표 외 기준 마련 -최종지원자 및 후순위대상자 선정
7	보조기구 구입	6/13(월)~6/15(수), -지원대상자별 지원품목 확정 (지원대상자와 최종 협의 및 통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적용	-지원대상자별품목확정 170명 -후순위지원대상자품목확정 44명
8	입찰 및 납품업체 선정	6/16(목)~7/22(금), -사무국(ATRAC), 입찰수행기관(광주 및 부산센터)개별입찰 및 계약 추진 - 입찰 공고, 입찰 심사 및 계약	-재단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 후 지역 별 개별 추진하여 낙찰업체 선정
9	보조기구 지원 및 교육	7/25(월)~9/30(금) -보조기구 사용 환경으로 방문 및 보조기구 세팅 -보조기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주의사항, A/S 신청 방법 등 안내 -보조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 확인서 작성(사진 촬영 포함) -신규지역 PILOT 교육 실시	-보조기구지원 및 사용자 훈련 실시:총214명, 248품목 -PILOT교육: 경남
10	만족도 조사	11/14(월)~11/30(수) -보호자 대면 원칙 -QUEST2.0 기반 기구및서비스만족도	-보조기구 사용실태 조사 및 기구 점검 : 213명
11	활용 수기 접수	11/14(월)~11/30(수) -보조기구 활용 수기 수령 : 보조기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삶의 변화	-기관별 2사례씩 수령 : 16건
12	사업관리	상시 -재단&협력기관(사무국:ATRAC) 업무 협약, 협력기관&수행기관(7개 광역센터) 업무 협약 -사업 제반 양식 개발 및 수행기관 공유: 신청서, 현장평가기록지, 지원 및 사용자 훈련 확인서, 만족도 조사지, 사용실태 조사지 등 -수행기관 상시 및 집중 교육 실시 : 현장평가, 보조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 등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추진	-수행기관 업무협약 : 7건 -사업오리엔테이션:1회 -사업평가회:1회

13	기관워크숍	6/16(목)~6/30(목) -수행기관 실무자 및 재단 관계자 등 참석 -사업 공동 수행기관 견학(인천시보조기구 센터) -사업 관련 간담회 추진:상반기 추진 결과, 하반기 계획, 발전방안 등	-워크숍추진:1회 -참석인원:10명
----	-------	---	------------------------

<표 4> 2015년도 사업 수행 절차 및 주요 내용

2016년도의 사업수행 절차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 4>와 2006년도 초기 사업 절차를 대비해 놓은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획, 실행, 평가, 환류 및 수정보완’ 등의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과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다.



<그림 4> 사업초기와 현재의 수행 절차 비교

사업 초기와 현재의 사업 수행 절차를 대비해보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 센터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을 하던 시기에 비해 전국사업 확산에 따른 협력기관 연계체계 구축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찰절차 강화, 활용수기 접수를 통한 사용자 피드백과 홍보 확산 등이 세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업 수행 현황

200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6년까지 총 1,087명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1,460개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왔다.

10년 동안 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품목, 지원 방식 등에서 일부 변화가 생기기도 했지만, 누적된 예산과 지원 인원, 지원 제품은 우리사회의 보조기구 지원 제도변화와 사회적 여건 개선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여해왔다.

1) 10년 간 지원품목 및 예산·사업 규모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은 시행 초기에 품목의 제한을 두지 않던 방식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품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속적 변화를 시도했다.

연도	지원 계획(공고 내용)	지원 결과(최종 지원 품목)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제한 없음 - 중증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신청품목 자율신청,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가능,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을 위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사업예산: 90,000천원 	총 82개(20명) 지원 -이동기기12, 컴퓨터보조기구5, 일상생활34, 착석 및 자세유지22, 치료 및 재활운동5, 의사소통기기1, 학습보조3
2007~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제한 없음 - 중증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신청품목 자율신청,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을 위하여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사업예산: 145,960천원 	총 130개(30명) 지원 -기립보조13, 놀이 및 재활운동15, 보조기구5, 의사소통2, 이동보조24, 일상생활36, 착석보조27, 치료보조4, 컴퓨터보조4

제2장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p>2009</p>	<p>○품목제한 없음 - 중증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내,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활용을 위해 금액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보조기구 지원가능, 신체 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및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기구 중심으로 지원 고려, 지원된 맞춤형 보조기구에 대한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199,500천원</p>	<p>총 222개(45명) 지원 - 기립보조15, 착석및자세유지70, 이동보조49, 컴퓨터보조7, 일상생활45, 보조기2, 치료 및 운동보조21, 학습보조1, 편의시설11, 기타1</p>
<p>2010</p>	<p>○맞춤형보조기구(착석 및 기립 자세유지보조기구) 1인 1품목 지원(현물지원), 보조기구 지원관련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앉기자세유지기구(C-1①등받이각도 조절(리클라이닝)자세유지의자, C-2 ②좌석각도조절(틸팅)자세유지의자), - 기립자세유지기구(S-1③전방지지기립형, S-2④후방지지기립형) ○사업예산: 192,000천원</p>	<p>총 105개(105명), - 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20,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 의자49, 전방지지 기립보조24, 후방지지 기립보조12</p>
<p>2011</p>	<p>○맞춤형 착석 및 기립 자세유지보조기구(4품목), 이동보조기구(1품목) 총 3개영역 5품목 중 1인 1품목 지원, 보조기구 지원관련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앉기자세유지기구(C-1①등받이각도 조절(리클라이닝)자세유지 의자, C-2 ②좌석각도조절(틸팅)자세유지의자), - 기립자세유지기구(S-1③전방지지기립형, S-2④후방지지기립형) - 이동형기립보조기구(W-1⑤전동기립수동휠체어) ○사업예산: 200,000천원</p>	<p>총 86개(86명) -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12,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 의자34, 전방지지 기립보조8, 후방지지 기립보조12, 이동형기립보조20</p>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p>2012</p>	<p>○맞춤형 착석 및 기립 자세유지보조기구(4품목), 이동보조기구(1품목) 총 3개영역 5품목 중 1인 1품목 지원, 보조기구 지원관련 코디네이션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p> <p>- 앉기자세유지기구(C-1①등받이각도 조절(리클라이닝)자세유지 의자, C-2②좌석각도조절(틸팅)자세유지의자),</p> <p>- 기립자세유지기구(S-1③전방지지기립형, S-2④후방지지기립형)</p> <p>- 이동형기립보조기구(W-1⑤전동기립수동휠체어)</p> <p>○사업예산: 267,900천원</p>	<p>총 131개(131명)</p> <p>-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17,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의자58, 전방지지 기립보조28, 후방지지 기립보조12, 이동형기립보조16</p>
<p>2013</p>	<p>- 기립보조기구(S-1①전방지지형기립자세유지보조기구, S-2②후방지지형기립자세유지보조기구)</p> <p>- 이동기립 보조기구(W-1③전동기립수동휠체어)</p> <p>- 보행훈련 보조기구(T-1④보행훈련보조기구)</p> <p>* 자세유지의자 제외</p> <p>○사업예산: 313,360천원</p>	<p>총 116개(116명)</p> <p>-전방지지 기립보조46, 후방지지 기립보조27, 이동형기립보조28, 보행훈련15) *자세유지의자 제외</p>
<p>2014</p>	<p>- 기립영역(①수직형기립보조기구②전방형기립보조기구,③후방형기립보조기구)</p> <p>- 이동기립영역(④전동기립수동휠체어)</p> <p>- 보행훈련영역(⑤점진적보행훈련보조기구)</p> <p>○사업예산: 377,010천원</p>	<p>총 154개(154명)</p> <p>-전방지지 기립보조38, 후방지지 기립보조40, 수직형 기립보조24, 이동형기립보조33, 보행훈련19)</p>
<p>2015</p>	<p>- 기립영역(①수직형기립보조기구②전방형기립보조기구,③후방형기립보조기구)</p> <p>- 이동기립영역(④전동기립수동휠체어)</p> <p>*보행훈련보조기구 제외</p> <p>○사업예산: 388,540천원</p>	<p>총 186개(186명)</p> <p>-전방지지 기립보조64, 후방지지 기립보조62, 수직형 기립보조21, 이동형기립보조39 *보행훈련보조기구 제외</p>
<p>2016</p>	<p>○지정보조기구 9품목 중 1인당 최대 2품목(200만원 이내)</p> <p>-치료훈련영역(기립보조전방형, 기립보조수직형, 기립보조후방형), 이동보조영역(고정형 유모차형, 조절형 유모차형), 일상생활영역(좌식목욕, 입식 목욕, 목욕보조휠체어형), 착석보조기구 기성품</p> <p>*이동형기립보조기구 제외</p> <p>○사업예산: 395,990천원</p>	<p>총 248개(214명)</p> <p>-치료훈련(전방지지 기립보조16, 후방지지 기립보조33, 수직형 기립보조7), 일상생활(좌식목욕41, 입식 목욕31, 목욕보조휠체어형7), 이동보조(고정형 유모차형23, 조절형 유모차형51), 기성형 착석보조39 *이동형기립보조기구 제외</p>

<표 5> 연차별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범위의 변천 과정 (당해년도 변동품목 밑줄표시)

<표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09년도까지 초창기 3차례 사업기간 동안은 지원 품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신청된 품목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1인당 개수 제한 없이 50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필요한 보조기구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단위: 개)

제품 구분		연도										소계		총계			
		'06	'07~'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간 지원 제품수		82	130	222	105	86	131	116	154	186	248	1,460		1460			
착석 및 자세유지	전방형기립보조	22	13	15	24	8	28	46	38	64	16	22	28	224	986		
	후방형기립보조				12	12	12	27	40	62	33			198			
	수직형기립보조								24	21	7			80			
	이동형기립보조						20	16	28	33	39					108	
	리클라이닝, 이너자세의자					20	12	17									49
	틸팅, 이너자세의자			27	70	49	34	58								97	141
	기성형착석보조													39			39
일상생활	좌식목욕보조	34	36	45								115		41	194		
	입식목욕보조										31						
	겸용목욕보조										7						
	일상생활보조																
이동보조	유모차형(고정)	12	24	49								85		23	159		
	유모차형(조절)										51						
	이동보조기구																
놀이,치료,재활운동		5	19	21										45	45		
보행훈련보조								15	19					34	34		
컴퓨터보조기구		5	4	7										16	16		
편의시설				11										11	11		
기타(보조기 등)			5	3										8	8		
학습, 의사소통		4	2	1										7	7		

<표 6> 지원제품(품목)별 총 지원 수량

그 결과 <표6>과 같이 초창기 2009년도까지의 사업에서는 착석 및 자세유지, 일상생활, 이동보조, 놀이·치료·재활보조, 컴퓨터·학습·의사소통보조, 편의시설, 보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조기구들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조기구 활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에 적절한 초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대상자에게 자원이 집중되면서 신청 인원에 대비한 탈락률 증대의 문제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과중은 사업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3회차 수행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원품목을 집중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도록 사업전략을 수정했다.

2010년 이후에는 지원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했는데, 중증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성이 높은 착석 및 자세유지보조기구와 보행행훈련보조기구 등이 주된 지원 품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부터 정부가 시행했던 정보통신보조기구 보급사업이나 2005년도부터 지원이 시작된 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보장구 급여 지원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컴퓨터(학습)접근 보조기구와 이동보조기구(전동휠체어)관련 수요가 감소된데 따른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보행보조기구는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만 지원품목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는 보행 훈련이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제품에 대한 활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위해 넓고 평평한 장소가 필요한 특성이 국내 수요자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판단 또한 제품에 대한 보급과 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활용수준과 성과를 반영한 품목 조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착석 및 자세유지보조기구의 영역에서도 기립보조기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자세유지의자(리클라이닝/틸팅이너자세유지의자)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지원이 실시된 이후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 또한 2013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지원 품목에 자세유지보조용구(앉기자세유지 보조기구)가 포함되면서 관련 수요의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2) 10년간 지원대상 현황

사업이 수행된 10년 동안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총 2,185명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지원을 신청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총 1,087명이 지원을 받았다. 당초 사업 공고를 통해 계획되었던 지원 대상 인원이 93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감 예산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계획 대비 116.9%의 초과 지원을 한 것이지만, 지원 신청 인원 대비하면 49.8% 수준의 보급률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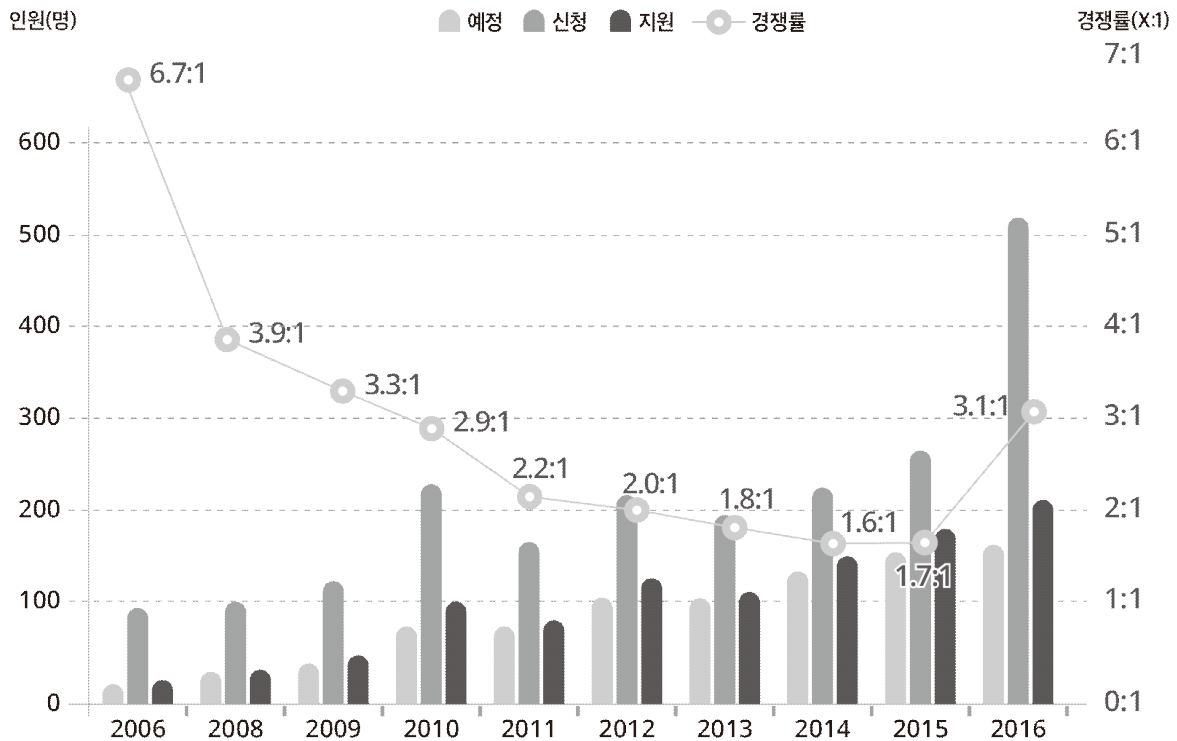
연도	지원품목공고 : 지원제품	지원 예정 (명)	신청 접수 (명)	경 쟁 률	지원결과(지원대상)
2006	품목제한 없음 : 총 82개 지원 (이동기기12, 컴퓨터보조기구5, 일상생활34, 착석 및 자세유지 22, 치료 및 재활운동5, 의사소통기기1, 학습보조3)	15	100	6.7:1	서울·경기지역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20명(근육장애 4명, 지체장애 2명, 뇌성마비 14명)지원
2007 ~ 2008	품목제한 없음 : 총 130개 지원 (기립보조13, 놀이 및 재활운동 15, 보조기5, 의사소통2, 이동보조24, 일상생활36, 착석보조27, 치료보조4, 컴퓨터보조4)	27	104	3.9:1	서울·경기· <u>인천</u> 지역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30명(근육장애 4명, 지체장애 6명, 뇌병변장애 17명, 중복장애 3명)지원
2009	품목제한 없음 : 총 222개 지원 (기립보조15, 착석및자세유지70, 이동보조49, 컴퓨터보조7, 일상생활45, 보조기2, 치료 및 운동보조21, 학습보조1, 편의시설11, 기타1)	38	127	3.3:1	서울·경기·인천(수도권)지역 <u>지체·뇌병변·중복장애인으로</u>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45명(지체장애 7명, 뇌병변장애 34명, 중복장애 4명)지원
2010	<u>개인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1인 1품목)</u> : 총 105개(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20,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의자 49, 전방지지 기립보조24, 후방지지 기립보조12)	80	233	2.9:1	서울·경기·인천(수도권)지역 <u>맞춤형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u> 지체·뇌병변·중복장애인으로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105명(지체장애 6명, 뇌병변장애 88명, 중복장애 7명, 지적·자폐성 4명)지원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2011	개인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 (1인 1품목) : 총 86개(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12,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의자 34, 전방지지 기립보조8, 후방지지 기립보조12, <u>이동형기립보조 20</u>)	80	172	2.2 :1	서울·경기·인천(수도권)지역 맞춤형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중복장애인으로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86명(지체장애 16명, 뇌병변장애 68명, 중복장애 2명)지원
2012	<u>자세유지 보조기구 5품목</u> : 총 131개(이너삽입 자세유지 리클라이닝 의자17, 이너삽입 틸팅기능 자세유지의자58, 전방지지 기립보조28, 후방지지 기립보조12, 이동형기립보조16)	110	223	2.0 :1	수도권 및 충청도·대구·울산지역 맞춤형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131명(지체장애 16명, 뇌병변장애 68명, 중복장애 2명)지원
2013	<u>자세유지 보조기구 4품목</u> : 총 116개(전방지지 기립보조46, 후방지지 기립보조27, 이동형기립보조28, <u>보행훈련15</u>) * <u>자세유지의자 제외</u>	110	200	1.8 :1	수도권 및 타지역(충청도·대구·부산) 맞춤형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한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116명(지체장애 11명, 뇌병변장애 97명, 중복장애 6명, 기타2명)지원
2014	<u>자세유지 보조기구 5품목</u> : 총 154개(전방지지 기립보조38, 후방지지 기립보조40, <u>수직형 기립보조24</u> , 이동형기립보조33, 보행훈련19)	140	230	1.6 :1	서울, 경기, 인천, 충청, <u>강원, 광주</u> , 부산 지역,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 총 154명(지체장애 9명, 뇌병변장애 108명, 중복장애 35명, 지적2명)지원
2015	<u>기립보조기구 4품목</u> : 총 186개(전방지지 기립보조64, 후방지지 기립보조62, 수직형 기립보조21, 이동형기립보조39) * <u>보행훈련보조기구 제외</u>	160	270	1.7 :1	서울, 경기, 인천, <u>대구, 대전</u> , 충청, 광주, 부산 지역,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총 186명(지체장애 34명, 뇌병변장애 143명, 중복장애 9명)지원
2016	<u>지정보조기구 9품목 중 1인당 최대 2품목(200만원 이내)</u> : 총 248개, 치료훈련(전방지지 기립보조16, 후방지지 기립보조33, 수직형 기립보조7), <u>일상생활(좌식목욕41, 입식 목욕31, 겸용 목욕보조7)</u> , <u>이동보조(고정형 유모차형23, 조절형 유모차형51)</u> , <u>기성형 착석보조39</u> * <u>이동형기립보조기구 제외</u>	170	526	3.1 :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u>세종</u> , 경기, 충남, 충북, <u>경남</u> 지역,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총 214명(지체장애 27명, 뇌병변장애 142명, 중복장애 45명)지원

<표 7> 10년 간 지원 대상 및 지원 결과

사업기간 동안 신청인원 대비 지원 선정 인원 기준의 10년 간 평균 경쟁률은 약 2.3 :1 수준이었는데, 최고 6.7 :1(2006년)에서 최저 1.61 :1(2014년)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한 편차가 큰 편이었다.



<그림 5> 신청 및 지원 인원 연간 추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공고되었던 지원 예정 품목과 경쟁률의 관계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품목의 다양성이 감소되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지원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던 수행 초기와 품목이 9가지로 확대된 2016년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다.

예산확보에 따른 최종 지원인원과 연동되는 경쟁률과는 별개로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의 숫자는 최초사업 시점이었던 2006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지원품목이 자세유지보조기구로 제한된 다음해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신청 인원이 소폭의 감소와 상승을 반복하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사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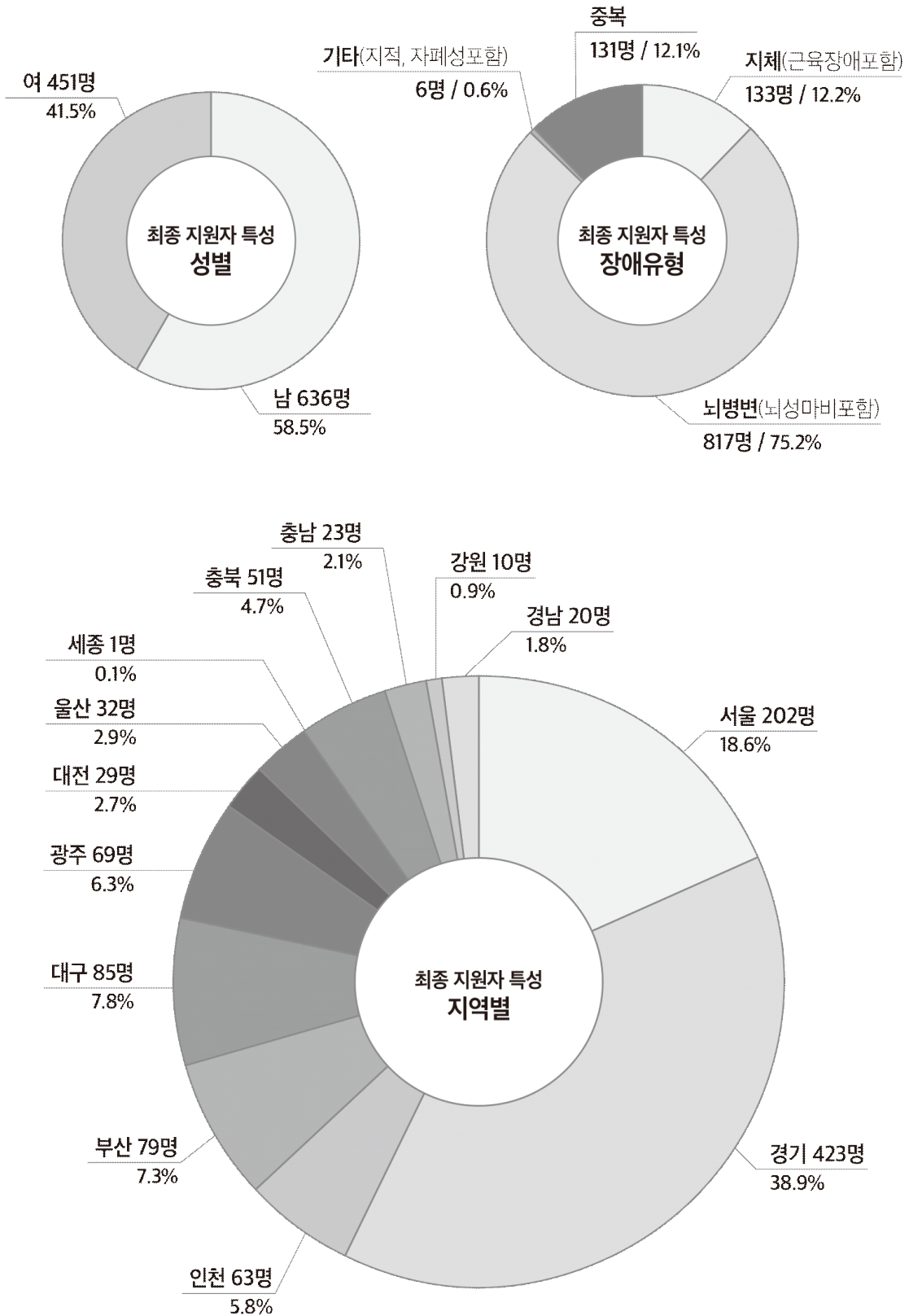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소계
성별	남	14	20	25	61	47	80	68	82	103	136	636
	여	6	10	20	44	39	51	48	72	83	78	451
장애 유형	지체(근육장애포함)	6	10	7	6	16	7	11	9	34	27	133
	뇌병변(뇌성마비포함)	14	17	34	88	68	106	97	108	143	142	817
	기타(지적,자폐성포함)				2			2	2			6
	중복		3	4	9	2	18	6	35	9	45	131
지 역	서울	7	18	15	43	15	24	19	17	26	18	202
	경기	11	12	29	59	54	36	62	65	48	47	423
	인천	2		1	3	1	5	5	9	17	20	63
	부산							15	20	21	23	79
	대구						34	15		16	20	85
	광주								20	23	26	69
	대전									15	14	29
	울산						32					32
	세종										1	1
	충북					5			7	20	19	51
	충남					11			6		6	23
	강원								10			10
	경남										20	20
(연간)지원인원계		20	30	45	105	86	131	116	154	186	214	1,087

<표 8> 최종 지원자 특성별 인원

최종 선정된 지원자들을 성별, 장애유형, 지역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총 1,087명 중 남자가 636명으로 58.5%였고, 여자가 451명으로 41.5%에 해당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로 등록(뇌성마비장애 포함)한 아동·청소년이 전체의 3/4에 달하는 817명으로 75.2%에 달했다. 뒤를 이어 지체장애(근육장애포함)로 등록한 장애아동·청소년(133명, 12.2%)과 중복장애(131명, 12.1%)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기타 유형의 장애로 등록한 지원자는 6명(0.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선정한 지원 대상 제품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뇌병변, 중복장애인들에게 유용

성이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최종 지원자 특성별 분포

최종 지원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423명(38.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서울(202명, 18.6%), 대구(85명, 7.8%), 부산(79명, 7.3%), 광주(69명, 6.3%), 인천(63명, 5.8%) 등의 순으로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았다. 10년 동안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였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2012과 2013년 이후 부산과 대구보조기기센터 등이 협력수행기관으로 꾸준히 참여한 결과가 많은 인원이 지원을 받았다. 충북과 광주, 인천지역이 보조기기센터도 지속적으로 협력 수행기관 등으로 참여(인천의 경우 초기사업 수행 기간 동안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장애 인구 규모가 적은 특성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2절 | 선행문헌 고찰을 통한 사업 수행 당위성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와 10년 간의 수행 현황에 대해 살펴본데 이어 이번 절에서는 수행의 당위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수행 당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게 된다. 첫 째는 선행 연구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된 필요성이 증명된 사업인지의 여부와, 품목의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의 사업 수행 정당성을 각 조직 가치 체계와 역할 배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1. 이용 대상 계층의 욕구 검증

‘맞춤형 지원사업’의 이용 대상 계층이 실증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장애인,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보았다.

1) 보조기구의 개념과 장애인 활용 욕구 확인

보조기구의 개념은 현행 법률의 정의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조에서 보조기기를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제 65조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라는 용어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했던 것에 일부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향상과 보완,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는 용도’는 기존의 정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명시를 ‘의지·보조기, 보장구와 생활

용품’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던 것을 ‘기계, 기구, 장비’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명시하여 보조기구의 범위를 더욱 넓은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적용 대상을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 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장애인보조기구’에 비해 포괄적 의미를 가지도록 변화되었다. 보조기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이 인용되는 미국의 보조공학법(ATA, Assistive Technology Act)에서도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부딪치는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기기, 서비스, 전략, 실행을 모두 포괄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Cook, A.M., Hussey, S.M., 2002). 종합적으로 보조기구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이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제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나 전략 등으로 볼 수 있다(남세현 외, 2015).

보조기구는 정의에 포함된 활용 목적처럼 장애인과 노인 등의 활동과 생활, 삶의 전반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Mann, Ottenbache과 Fraas, Tomita, Granger(1999)는 보조공학이 개인의 기능적 향상과 독립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재활치료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이 보조공학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고, 일상생활 활동이나 사회 참여, 직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활치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권혁철, 2006; 정민예 외, 2006; 사공봉, 2016). 특히 Prodinge 등(2010)은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로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환경 제약을 제거하고 극복하는데 집중하게 되면서 보조공학의 이해와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기구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활용 수준과 지원 환경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라는 점도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정민예 등(2009)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장애성인들이 보조기구나 관련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창희(2011)의 연구에서도 장애 당사자의 보조공학 서비스 인식 수준을 50% 정도로 조사한 바 있어 보조기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수준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안나연과 공진용(2011)의 연구에서는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를 보조기구센터에서

지원 받지 못해 50%이상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자부담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보조공학 센터에 필요한 보조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50% 이상(안나연, 공진용, 2011)이었다. 이창희(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당사자도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인식수준이 약 50%정도로 매우 미흡하며, 보조기구 구입과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최근까지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세현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보조기구와 관련된 국내 지원사업들이 5개 정부부처에서 9개 사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약 1,63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다양해 보이는 사업의 외형과 달리 사업의 포괄 범위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 보조기구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맞춤형 지원사업’과 같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에 대한 욕구 확인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진 주요 정체성은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한다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업 소개자료와 연차별 사업계획서의 사업 수행 목적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장애인 전반에 적용되는 보조기구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한데 이어 ‘맞춤형 지원사업’의 고유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을 분석하여 지원 대상 계층의 욕구를 검증하고자 한다.

Walker와 Williamson(1995)에 따르면 보조기구의 활용은 장애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하여 교수·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학생의 자긍심,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은량, 한경임, 2015에서 재인용).

박현옥과 김정현(2007)의 연구에서도 보조기구를 사용한 학생들이 더 풍부한 학

교생활 참여와 통합 경험을 누리고, 취업과 진학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공학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장경례(2016)의 논문에서도 보조공학기기 사용이 장애아동들에게 편리성과 효과성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독립적 활동과 사회참여, 주변 환경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중 87.4%를 차지한 장애 유형이었던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을 별도로 검증한 연구들도 있었다. 김은량과 한경임(2015)의 연구에서는 지체장애 학생들이 지체 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그대로 두면 장차 자활이 곤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립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체장애 학생의 자립 생활을 보조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보조공학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s)라고 밝히고 있다. 최유임 외(2011)의 연구는 뇌병변장애인, 특히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뇌병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89.0%가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속적인 신체 성장 때문에 성장에 따른 체형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자세보조용구를 지속적으로 교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들이 보유하기 원하는 자세보조용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특수 의자가 가장 많았고, 특수휠체어, 전자세보조기구, 차량용자세보조기구, 목욕자세유지기구 역시 높은 빈도로 필요성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유임 외 연구자들은 향후 자세보조용구 보급을 계획할 때 획일화된 보급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세보조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과 방식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수행된 김은량과 한경임(2015)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계층과 품목에 대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보조기구 사용 실태를 확인한 동 연구에서는 현재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동 보조기구, 그다음 착석 및 자세 보조기구, 학습 보조도구,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의 순으로 보조공학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김경돈(2011)의 연구에서 이동 보조기구, 착석 및 자세 보조도구, 보장구, 일상생활 보조도구 순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특수학급

교사들도 교수·학습영역보다 일상생활 영역 보조공학기기 제공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연구결과들(김영걸, 2009; 우정한, 장순례, 2012), 지적장애학교 학생과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도 이동 보조기기, 휠체어, 맞춤 의자, 기립장치, 맞춤 책상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용욱, 이영희, 2010; 육주혜 등, 2008; 정동훈, 김형일, 2013)와도 유사하다고 분석하였다(김은량·한경임, 2015).

일부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보조기구가 기존의 획일적 지원방식을 벗어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의 지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염희영 외(2012)는 장애근로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조공학기구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합한 기기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지원 방식의 당위성은 최유임 외(2011)의 연구와 김은량과 한경임(2015)의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은량과 한경임(2015)은 지체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정서발달과 또래관계 개선,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지체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실시되었던 최유임 외(2011)의 연구에서도 자세보조용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작아져서(44.7%)’로 조사하며, 장애아동의 성장에 맞춘 자세보조용구가 적절한 시기에 보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17%가 응답한 ‘안 맞아서’라는 응답 이유도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평가에 의해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여 보조기구의 보급을 위해 개별화된 평가와 성장시기에 따라 적합한 보조기구가 맞춤형으로 보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아동과 청소년, 그 중에서도 뇌병변 및 지체장애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세보조기구 등의 주요 보급 품목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 계층인 ‘지체 및 뇌병변장애 등 장애아동 및 청소년’과 ‘자세유지기구 등 지원 품목의 선정’, ‘맞춤형의 지원 방식’ 채택은 모두 매우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보조기구 활용 효과성 검증

지금까지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시하고 있는 보조기구 지원이 장애인, 특히 주요 지원 대상이 되었던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욕구인지를 선행문헌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확인 결과 장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보조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었고, 특히 장애아동과 청소년, 아울러 지원사업의 주 대상이었던 뇌병변 및 지체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세유지 보조기구 등의 활용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사업의 수요가 높게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에 대한 수요 존재를 통해 수행 필요성을 검증한데 이어, 이번에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채택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수요 대상계층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인지를 보조기구 효과성에 대해 연구한 문헌들에 기반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조기구 활용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지원사업의 주요 정체성을 규정하는 ‘맞춤형 지원’과 주요 품목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의 활용 효과성을 보고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보조기구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보조기구의 활용이 자아실현과 자존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조기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이근민, 1999; 정민예 외, 2009; 박미경 외, 2011).

이러한 효과는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효과와 장애 학생들의 학습효과 향상으로 입증되기도 한다.

Schneider(1999)는 작업 현장에서 보조공학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고용의 기회가 증진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체계적인 보조공학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들의 취업 후 직업 진입과 직무유지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직무 독립성 증진, 작업수행능력 향상과 생산성 증가, 직업유지 기간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변경희, 2001; 정민예 외 2008; 정민예 외, 2009).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염희영(2007)의 연구에서도 고급보조공학을 적용했을 때에도 수행도와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보조기구 사용이 장애인 작업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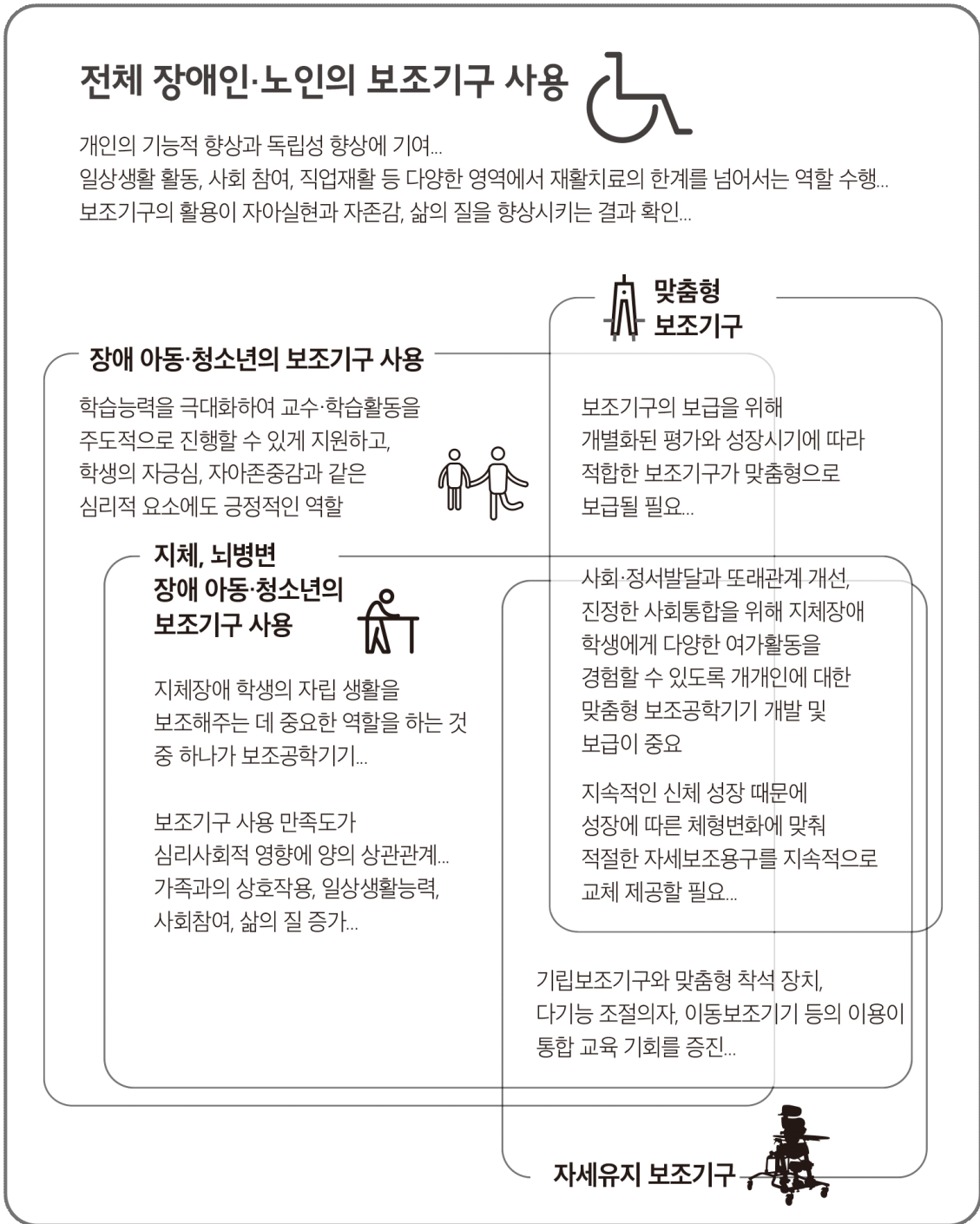
장애 학생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영걸 외(2003)의 연구

에서 보조기구 사용이 학습방법과 전략 향상, 장애학생의 장애 극복에 대한 자신감 향상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세부적으로 뇌병변 및 지체 장애아동의 보조기구 사용 만족도가 심리사회적 영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만족도 높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최복천·김유리, 2016).

뇌병변장애 아동은 가족과의 상호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Ryan & Compbell, 2009). Sadao와 Robinson(2010)의 연구에서는 경사판에 책을 올려놓는 간단한 기초공학(low-tech)적인 변화만으로도 장애학생의 읽기 경험을 높여줄 수 있으며, 책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애니메이션화 하거나 재미있는 캐릭터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장애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을 높여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 바 있다.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보조기구 사용이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교외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학업 성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데, 특히 기립 보조기구와 맞춤형 착석 장치, 다기능 조절 의자, 이동보조기기 등의 이용이 통합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전현숙, 2008).

그 외에도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 품목인 자세유지기구 등에 대한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들도 있다. 자세유지기구의 주된 효과는 적절한 자세 조절과 장시간 앉기로 인한 욕창위험의 우려에 대비할 수 있고, 뇌성마비인의 경우 착석압력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건강유지를 돕는다(Shapcott & Levy, 1999; Stinson et al.). 아울러 외부적으로 적절한 자세를 유지시켜 줌으로써 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해줌으로써 뇌병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제한된 활동의 참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Cook & Hussey, 2002).

분석한 바와 같이 선행 문헌들을 통해 맞춤형 보조기구의 지원, 특히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의 지원이 뇌성마비 및 지체 장애학생과 아동들에게 삶의 영역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지원사업’이 진행한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개인별 맞춤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와 당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도출된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키워드들을 영역별로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 <그림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당위성 키워드 분석

3. 사업 주체의 적정성 검토와 역할 배분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당위성 검증의 마지막 단계는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사업 수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과관리체계 관점을 적용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해야 할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 사업수행 주체에 해당하는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협력 수행기관들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 당위성을 확인해 보았다.

1) 사업 수행 주체와 수행 역할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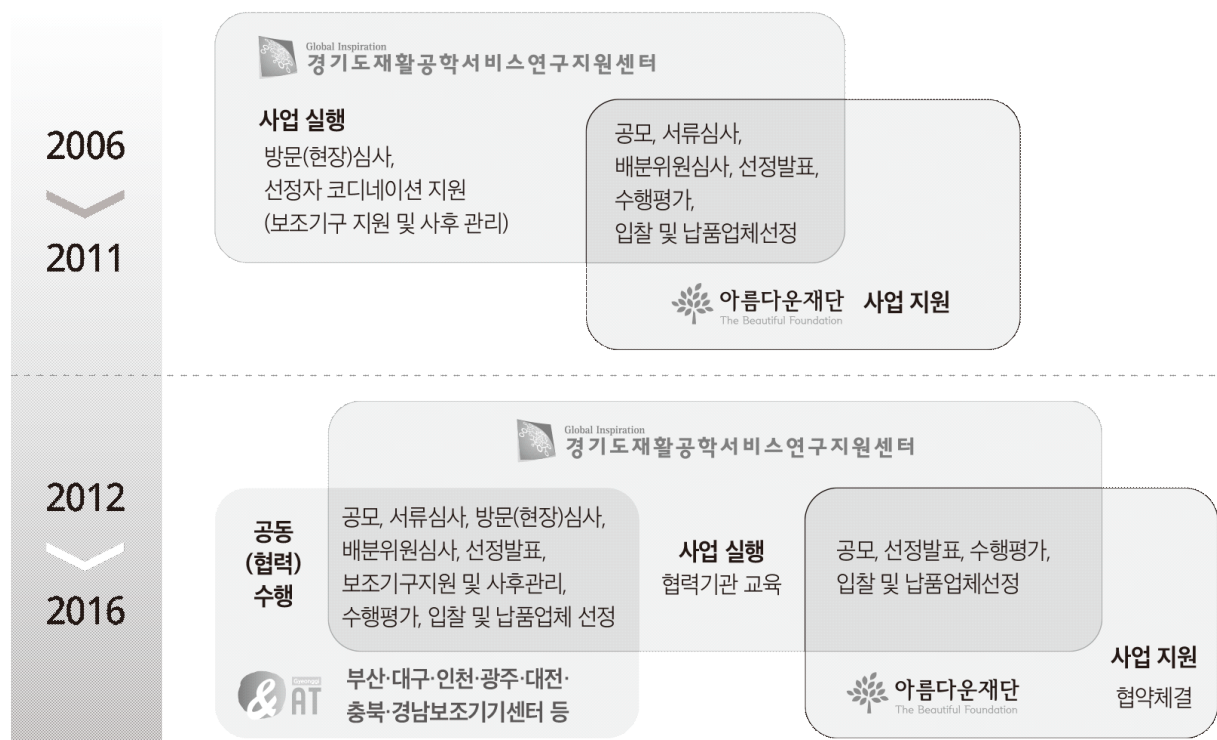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은 아름다운재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사업 실행을 주관하고 지역보조기구센터가 공동 수행 또는 협력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 사업 실행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단독

연도	수행 주체	
	사업 지원	사업 실행
2006 ~ 2011	- 아름다운재단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2		- 총괄 및 관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수행기관 :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보조기구센터
2013		- 총괄 및 관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수행기관 : 부산시보조기구센터, 대구시보조기구센터
2014		- 총괄 및 관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협력기관 : 부산시보조기구센터, 광주시보조기구센터 - 인큐베이팅기관 : 인천시보조기구센터, 충북보조기구센터, 연세대학교작업치료학과
2015		- 총괄 및 관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협력기관 : 부산시보조기구센터, 광주시보조기구센터 - 수행기관 : 대구시보조기구센터, 대전시보조기구센터, 인천시보조기구센터, 충북보조기구센터
2016		- 총괄 및 관리: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협력기관 : 부산보조기구센터, 대구보조기구센터, 인천보조기구센터, 광주보조기구센터, 대전보조기구센터, 충북보조기구센터, 경남보조기구센터

<표 9> 연도별 사업 수행 주체

으로 진행하다가 지원 대상 지역이 수도권을 넘어서면서 지역 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10년 간 사업수행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름다운재단은 지원 예산의 모금과 배분을 담당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하 ‘경기도센터’)는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림 8> 사업수행 주체에 따른 시기별 수행 역할

서울, 경기(인천) 등의 수도권에 국한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은 사업수행 중 대상자 선정과 기기 보급을 위한 실무까지 경기도센터가 단독으로 총괄하였으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2007년 이후에는 수행기관, 협력기관, 인큐베이팅기관 등의 명칭으로 지역의 보조기구센터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사업의 기획과 홍보, 심사기준 및 수행 절차의 마련과 관리, 결과 취합 등의 총괄 기능은 경기도센터가 변함없이 수행해 왔다.

연도	아름다운재단 수행역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수행역할	협력(수행)기관 등의 수행역할
2006~2011	공모, 서류심사, 배분위원심사, 선정발표, 수행평가, 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공모, 서류심사, 방문(현장)심사, 배분위원심사, 선정발표, 선정자 코디네이션 지원(보조기구지원 및 사후관리), 수행평가, 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해당 없음
2012~2016	협약체결, 공모, 선정발표, 수행평가, 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협력기관 교육, 공모, 서류심사, 방문(현장)심사, 배분위원심사, 선정발표, 보조기구지원 및 사후관리, 수행평가, 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공모, 지역서류심사, 지역방문(현장)심사, 지역배분위원심사, 선정발표, 지역보조기구지원 및 사후관리, 지역수행평가, 지역입찰 및 납품업체선정

<표 10> 수행주체별 역할과 기능

2) 사업 수행 주체 별 정합성 분석

(1)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수행 정합성

아름다운재단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2006년부터 수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모금 및 배분)와 사업 기획, 운영 관리 및 수행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공모와 발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 및 입찰 등 일부 절차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수행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수행 중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재단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단이 해야만 하는 일인지, 혹은 재단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일인지’를 다각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해야 할 역할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의 가치체계에서 천명하는 조직의 사명과 사업이 부합하는 성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직의 가치체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또는 조직의 미션과 비

전 등에서 선언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정관을 분석하여 재단이 수행 중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조직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인지를 확인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정관

전문

1. (생략)

2.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반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공익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하는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만들고, 이를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나눔문화로서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이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사회를 이끄는 주요한 가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단체들의 성실한 파트너가 되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하 생략)

제 3 조 (목적)

① 본 재단은 우리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본 재단은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 생략)

제 4 조 (사업)

① 본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전개
7.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2. 도서 출판사업
3.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 5 조 (수혜자)

- ①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재단 정관의 전문에서는 재단이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공익단체의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 3조의 목적에서도 ‘시민의식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조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재단 정관 전문이 선언한 내용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사업 수혜자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동정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시키던 기존 방식의 기부·배분 사업이 가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인식을 창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단이 수행하는 고유사업을 규정한 제 4조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체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과 제4호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재단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들을 돕는 파트너로서의 재단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체계 중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주요 키워드들로, 조직 목적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존의 자선적 시혜 관점을 벗어난 새로운 나눔 가치의 확산’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 단체에 대한 지원’,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추구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정합성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06년부터 ‘맞춤형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현재까지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센터는 사업을 총괄하며

재단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 외에 대상자 선발과 기기확보, 기기의 보급 및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사업 대상 범위를 타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공동(협력)수행 기관인 지역 보조기기 센터 등의 지역 파트너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실무 코디네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이 ‘경기도센터’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역시 경기도센터의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 운영 법인의 정관 등에서 확인되는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목적

운영목적

장애인들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휘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게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재활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
- 지역사회 구성원 및 한국 사회 전반에 재활공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대 유도
- 재활공학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복지 트렌드에 대한 저변확대 도모
- 장애인 스스로 자기결정의 능력을 배양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사업수행(이하 생략)

기능과 역할

- 보조기기 서비스(상담·평가, 기기적용, 사용자 훈련, 사례관리, 개조·제작 등)개발 및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교부사업
- 보조기기 정보 수집 . 안내,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보조기기 전시장 운영
- 보조공학 분야 연구·개발
- 보조공학 관련 종사자 및 전공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보조기기 관리(수리) 실시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법인 (사)행복한 동행 정관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향유하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재활공학 및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활 관련 서비스(재활공학 및 직업재활 등)
2. 전문재활시설운영(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등)
3. 교육 및 연구개발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경기도센터의 사업계획에 명시된 설립 및 운영목적도 아름다운재단과 유사하게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이 나눔문화 확산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채택한 것과 달리 경기도센터는 ‘전문 보조기구 서비스를 통한 보조기구 활용 지원’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을 지역사회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이해 도모로 확산하는 것까지를 조직의 사명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센터 또한 ‘전문적인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과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재활공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키려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조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사업으로의 확대 과정에서 지역센터 등에 대한 교육과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노력은 ‘보조공학 분야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조직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협력)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정합성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2년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충북·경남지역의 보조기기센터와 울산자립생활센터, 연세대학교작업치료학과 등을 공동(협력)수행기관, 또는 인큐베이팅기관 등의 역할로 사업에 참여시켰다. 기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1년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 4년까지 지속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공동수행기관은 지역에서의 대상자 선정(접수

및 심사)과 제품 확보(보조기구 입찰 및 구입), 제품 지원(보조기구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공동수행기관으로 참여한 기관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개별 기관들의 가치체계를 분석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공통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가치체계를 분석하였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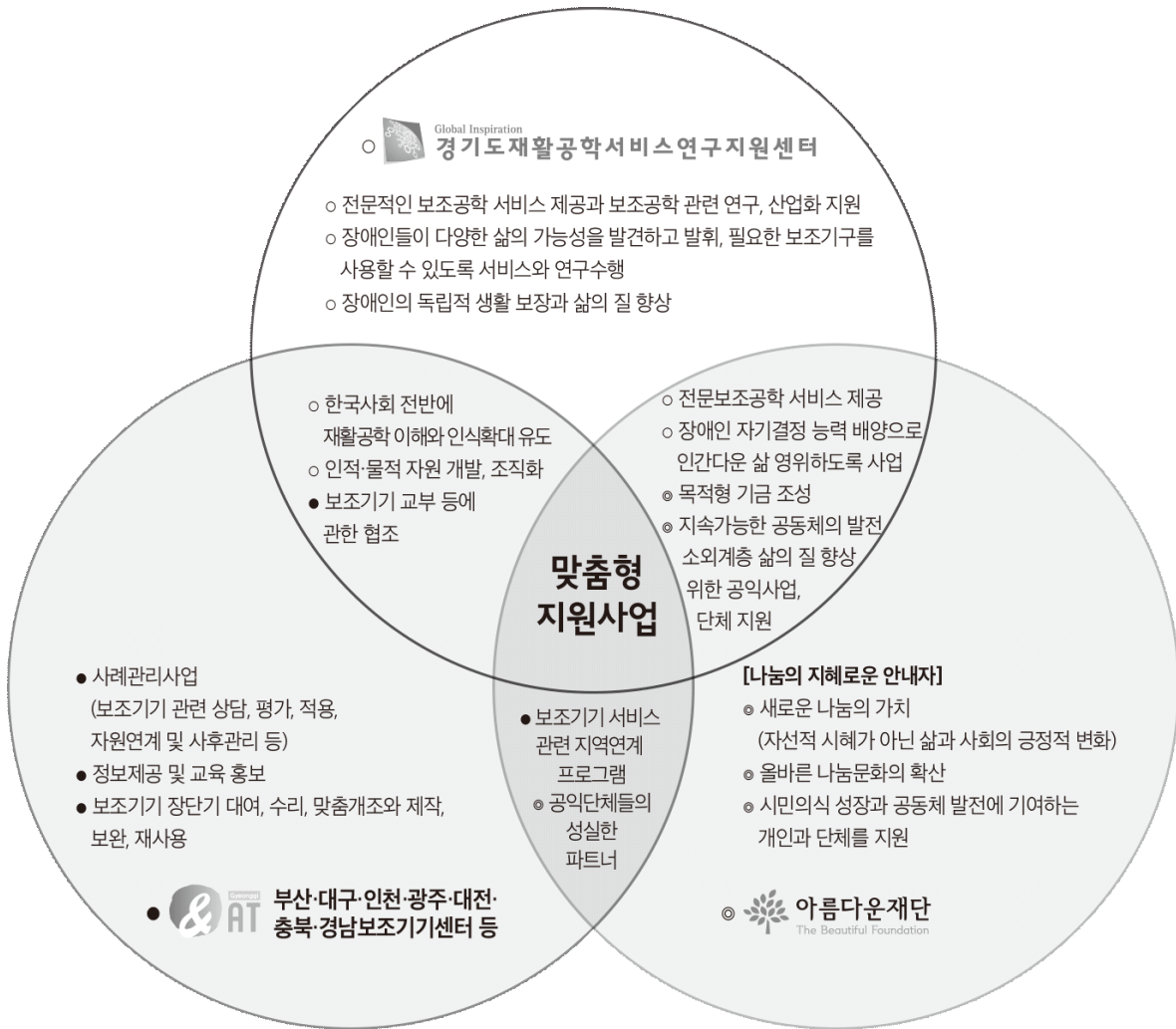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하 생략)

공동(협력)수행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는 2017년도부터 법 시행과 함께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살펴보면 ‘보조기기와 관련된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와 사후관리 등의 사례관리 사업,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부(보급)에 대한 협조’ 등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주요 수행 주체들의 조직 가치를 ‘맞춤형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핵심 키워드들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 <그림 9>와 같이 사업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주요 수행주체의 조직가치와 맞춤형 지원사업의 정합성

특히 3개 주요 수행 주체들의 개별 가치 외에 공통 접점을 가지는 가치들로 볼 수 있는 ‘전문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자기결정 능력 배양으로 인간다운 삶 영위하도록 사업’, ‘목적형 기금 조성,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한 공익사업과 단체 지원’,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연계 프로그램, 공익 단체들의 성실한 파트너’, ‘한국사회 전반에 재활공학 이해와 인식확대 유도, 인적·물적 자원 개발과 조직화,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등의 가치들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핵심적 특징에 부합하여 정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제 3 장 지원사업 수행을 둘러싼 외부 환경 분석

제3장 지원사업 수행을 둘러싼 외부 환경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요와 수행 당위성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에는 미래 전략의 수립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외부 환경의 분석은 먼저 국내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유관 사업들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해외의 유관 사업 사례들을 분석한 후 ‘맞춤형 지원사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 국내 유관 사업 현황 분석

연구 수행 시점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국내에는 약 40개 내외의 민간 주도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1년의 동일기간을 비교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유관 사업을 검색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연번	사업명	자료등록일
1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 보급사업(~8.31)	2015-08-07
2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지원 사업(~8.31)	2015-08-07
3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사업(~8.31)	2015-08-07
4	서울, 복지기관 이용 아동 대상 안경 나눔 사업안내(1차~9.24, 2차~11.25)	2015-09-14
5	장애아동 프로젝트 지원사업(~10.14)	2015-10-08
6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11.6)	2015-10-14
7	장애아동 이동편의 목욕의자 지원사업(~10.21)	2015-10-14
8	장애인 의료비 및 맞춤형 보장구 제작기 지원사업(매월15일)	2015-10-30
9	청각장애 북한이탈주민 보청기 지원사업(~11.9)	2015-10-30
10	서울 노원, 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2015-11-09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11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아 치료 및 재활치료비 보장구 등 지원(~12.15)	2015-11-25
12	희귀난치성질환아동 의료·생활비 나눔(~12.6)	2015-11-25
13	광주,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전용 스마트폰 충전기 지원(~12.31)	2015-12-22
14	장애어린이·청소년재활치료비지원사업(~3.11)	2016-02-11
15	장애어린이·청소년보조기구지원사업(~3.4)	2016-02-11
16	서울,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및 주거편의지원사업 (~2.29)	2016-02-11
17	충남 천안아산, 희망의 집고치기 지원사업(~3.31)	2016-03-07
18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3.30)	2016-03-10
19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4.1)	2016-03-10
20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3.23)	2016-03-10
21	컴퓨터 접근성 향상 IT보조기구 무료지원(~4.15)	2016-03-23
22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5.6)	2016-04-06
23	전국 청각/최중증장애인 홈IoT 기기 및 서비스 평생무상지원(~5.20)	2016-04-19
24	시각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7.1)	2016-06-13
25	장애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11.30)	2016-06-14
26	2016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6.30)	2016-06-16
27	장애인 보조기구(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 접수(~7.13)	2016-06-21
28	아동 시력측정 및 안경지원사업(~7.15)	2016-06-27
29	서울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용 스마트 거치대 지원(~6.30)	2016-06-27
30	중증장애인 컴퓨터접근 IT보조기구 지원(~7.22)	2016-07-04
31	장애인 보조기구 및 의료지원 사업(~8.19)	2016-07-13
32	장애아동생활시설 이동편의 피더시트 지원(~7.29)	2016-07-13
33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12월)	2016-07-18
34	수·전동 휠체어 지원 프로그램(~7.24)	2016-07-18
35	서울 마포, 주거편의시설 설치지원대상자 모집(~8.19)	2016-07-21
36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7.31)	2016-07-21
37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8.26)	2016-07-29
3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9.8)	2016-07-29
39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8.26)	2016-07-29

<표 11> 2015년~2016년 국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현황

이 중 이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확인해보면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17건(약44%)에 달하고 있고, ‘맞

‘맞춤형 지원’ 성격의 사업(개별 사용 특성 평가 및 다품종 보조기구 선택 지원)도 10여 건(약25%) 내외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보조기구 지원사업 (총 17건, 약44%)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총 10건, 약25%)
장애아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장애아동 이동편의 목욕의자 지원사업, 서울 노원 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아 치료 및 재활치료비 보장구 등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아동 의료·생활비 나눔, 장애어린이·청소년재활치료비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보조기구지원사업,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시각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아동 시력측정 및 안경지원사업, 컴퓨터 접근성 향상 IT보조기구 무료 지원, 장애아동생활시설 이동편의 피더시트 지원,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서울 복지기관 이용 아동 대상 안경 나눔 사업 안내,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장애인의료비 및 맞춤형 보장구 제작비 지원사업, 서울 노원 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시각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컴퓨터 접근성 향상 IT보조기구 무료지원, 아동 시력측정 및 안경지원사업,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표 12> ‘맞춤형 지원사업’ 유관 키워드 수행 사업

유관사업의 분석은 국내 관련 사업의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여 사업 관련 수요와 공급의 적정 수준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타 사업과의 차별화 요소를 기획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아동 청소년’대상의 주요 ‘맞춤형 성격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수행 현황과 수행방법 등 사업의 특성과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했다.

1. 국내 유관사업 현황 조사 개요

앞서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2016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39건이었으나, 연구진은 유관사업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른 보조기기 관련 사이트 또는 장애계 언론 보도 자료를 검색하여 최근 3년간 민간에서 수행한 보조기구지원 사업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번	사 업 명
1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 보급사업
2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수신기 지원 사업
3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4	서울, 복지기관 이용 아동 대상 안경 나눔 사업안내
5	장애아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6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7	장애아동 이동편의 목욕의자 지원사업
8	장애인 의료비 및 맞춤형 보장구 제작비 지원사업
9	청각장애 북한이탈주민 보청기 지원사업
10	서울 노원, 장애인·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지원 서비스 신청안내
11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아 치료 및 재활치료비 보장구 등 지원
12	희귀난치성질환아동 의료·생활비 나눔
13	광주,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전용 스마트폰 충전기 지원
14	장애어린이·청소년재활치료비지원사업
15	장애어린이·청소년보조기구지원사업
16	서울,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및 주거편의지원사업
17	충남 천안아산, 희망의 집고치기 지원사업
18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9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20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사업
21	컴퓨터 접근성 향상 IT보조기구 무료지원
22	2016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23	전국 청각/최중증장애인 홈IoT 기기 및 서비스 평생무상지원
24	시각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25	장애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26	2016년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
27	장애인 보조기구(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 접수
28	아동 시력측정 및 안경지원사업

29	서울시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용 스마트 거치대 지원
74	뇌병변, 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지원사업
31	장애인 보조기구 및 의료지원 사업
32	장애아동생활시설 이동편의 피더시트 지원
33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
34	수·전동 휠체어 지원 프로그램
35	서울 마포, 주거편의시설 설치지원대상자 모집
36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37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3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39	장애어린이·청소년 의료비지원사업
40	장애아동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 지원사업
41	제주,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42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43	저소득 청소년 의족 지원사업
44	18세 미만 아동 보청기 지원사업
45	2015 장애 아동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 지원 사업
46	대구, 중증장애인 휠체어 전신 우비, 반신 우비 지원사업
47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 위한 유모차형 휠체어 지원
48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49	시각장애인 대상 9단 안테나형 흰지팡이 무상 보급
50	중증장애인 대상 안구마우스 지원사업
51	대구,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발열담요 지원
52	장애대학생 정보접근을 위한 IT 보조기구 지원사업
53	생애 첫 자전거 지원사업
55	피난·대피 및 조기경보 보조기구 지원사업
56	인천, 지역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튼형집게 지원
5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58	절단장애 청소년 의족지원사업
59	마우스스틱 지원사업
60	지역장애인을 위한 이동기립 수동휠체어 지원
61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지원사업
62	편의증진 보조기기 지원사업
63	함께 움직이는 세상, 여가/레저용 장애인 자전거 지원사업
64	장애인가정환경개조보조기구지원사업
65	장애인보조기구 나눔사업
66	휠체어 가방 지원
67	전국 저소득 장애인 삼성 스마트폰 보급사업
68	뇌성마비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자세유지의자 제작 지원 사업

69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학습용 보조기기 서비스 사업
70	보행보조기구지원사업「더+걸음」
71	성인용 수동휠체어 지원사업
72	한일 교류사업 <하늘을 나는 휠체어>리사이클 이동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73	저소득 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증진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표 13> 최근 3년간 수행된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목록

조사결과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약 73건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었는데, 이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학생 포함)’ 또는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진이 선정한 조사대상 사업은 총 23개 사업이었고, 이 중 사업 수행 주체가 설문조사 참여를 동의한 총 17개 사업에 대해 온라인 서베이 형태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조사문항은 ‘사업의 개요를 묻는 질문과 사업 규모, 성과의 개념과 성과 달성 수준, 수행 방법, 대상자 피드백 관련 요소, 사업의 장점과 한계점, 보완방법 및 미래전략’에 대한 총 2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설문 예시 참조)

2. 국내 주요 유관사업 수행 현황 분석

사업수행 주체가 조사에 참여한 사업은 총 17건이었다. 대부분 2016년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명 : 사업수행주체	사업 시작 시점	사업개요	사업 목적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국민은행	2009년 8월	2016년 3월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교에 입학한 등록 장애대학생에게 IT관련 보조기구 지원	대학에 입학하는 새내기 장애대학생에게 학습보조기구 지원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지원 사업 : S-oil,사회복지공동	2016년 5월	학습용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착석 및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학습용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모금회,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자세유지 보조기구	써 능동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학습적 욕구 충족
장애인 첨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 : 한미글로벌, 따뜻한 동행,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2년 11월	20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직업, 학업 수행 시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직업, 학업 수행 시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장애대학생 정보접근을 위한 IT 보조기구 지원 사업 : 삼성SDS,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0년 3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 IT보조기구 지원	장애 대학생에게 신체기능과 욕구 등을 반영한 맞춤형 IT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전공 분야에 대한 학습과 자기개발, 취업 준비 등을 지원
장애아동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 지원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그룹,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1년 6월	13세 미만 이하 장애아동 및 3~13세의 기관 이용자에게 유모차형 이동 보조기구 지원과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기관에 피난대피용 보조기구 지원	피난대피 및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를 지원하여 화재시 긴급한 대피와 장애 아동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
생애 첫 자전거 지원사업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미래에셋생명,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2015년 3월	경기거주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맞춤형자전거를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자전거를 지원하여 훈련 및 여가생활 지원
편의증진 보조기기 지원 사업 : 경남에너지(주),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상남도보조기구센터	2016년 6월	목적에 부합 하는 자격요건이 우선순위이며,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도 보조기기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휠체어 보조기구 제공	
절단장애 청소년 의족지원 사업 : 에이블복지재단,SK이노베이션,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 1월 ~ 2016년 3월	저소득 하지절단장애 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의 자녀에게 다리 의지보조기구 제공	
뇌병변, 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지원사업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금호건설	2015년 6월	보행이 어려운 서울시 거주 만 2~18세 뇌병변, 지체 등록 장애인 25명에게 보행차 제공	보행보조기구 무료 보급
장애어린이·청소년보조기구 지원사업 : 푸르메재단,	2010년	만 18세 미만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1998년 1월 1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주고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SPC		일 이후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지원	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지원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자세 보조용구 지원사업 : 제주 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주)위드알앤에이	2016년 9월	만3세부터 만13세까지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자세보조기구 지원	학령기아동의 신체변형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 유지
장애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사업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LG U+	2016년 5월	장애로 인해 긴급히 보조기가 필요한 8세 ~ 29세 장애 청소년·국가기초생활수급 가정 혹은 소득수준 차상위 150% 이내의 가정 청소년에게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지원	장애 청소년과 가정의 삶의 질 개선
2016년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 푸르메재단, SPC, 워킹온더클라우드	2011년	만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교정용 신발 제공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
뇌성마비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자세유지의자 제작 지원 사업 : 뇌성마비복지관, 삼성물산건설부문(11년도), 롯데복지재단(12-13년도)	2011년 4월 ~ 2013년 12월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 청소년(1993년생~2010년생)에게 맞춤형 자세유지의자 제공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아 치료 및 재활치료비 보장구 등 지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013년	만 24세 미만 소아암 및 희귀 혈액질환 진단받은 자에게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귀 지원
2016 코스콤 후원 IT 보조기구 지원사업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코스콤	2010년 5월	만 5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IT보조기구 제공	장애인 it보조기기 지원

<표 14> 국내 주요 유관사업 현황

조사에 응답한 17개 사업 중 장애아동, 청소년, 또는 학생을 주대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경우는 13건이었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은 1건에 불과했다. ‘맞춤형’ 성격으로 개인특성을 평가하고 고려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도 13건으로 전체 사업 4건 중 3건은 맞춤형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1) 유관 사업의 주요 지원 품목

조사에 참여한 17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부적인 품목들은 크게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3건, ‘보행 및 이동보조기구·자전거 지원’ 6건, ‘자세유지보조기구 지원’ 5건, ‘학습 또는 정보통신(IT)보조기구 중심 지원’이 4건, ‘의수족 및 교정신발’ 3건 등으로 나타났다(주요 지원 품목이 다영역인 경우 중복 계상).

세부 지원 품목		
-06 24	다리 의지(하지보조기)	
-06 33	교정용 신발류 (정형신발, 인솔)	
-09 33 03	목욕의자(목욕 의자)	
-12 06 06	보행차 (님보후방지지원커)	
-12 12 18	휠체어 차량 이동용 보조기구(조립식 경사로)	
-12 18	자전거(파이어 플라이)	
-12 18 09	손 추진 삼륜자전거 (핸드바이크형 특수 자전거)	
-12 18 21	자전거개조용품 (세바퀴형 특수자전거, 네바퀴형 특수 자전거)	
-12 22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	
-12 23	전동휠체어(전동 휠체어) -28 03 03	작업 책상 (전동 높낮이 테이블)
-12 24 24	휠체어용 배터리 및 충전기(파워어시스트)	
-12 27 07	유모차 및 성인용 운반차 (휴대용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 틸팅형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구)	
-18 09 39	조립식 앉기 자세유지 장치(전동 모듈)	
-18 09 21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가구 (물딩형 자세보조용구)	
-18 09 21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가구 (맞춤형 자세유지의자, 목재의자)	
-18 10 03	등 지지대(특수 작업 의자)	
-18 12 10	전동 침대(착탈식 침대, 매트리스, 고정판 포함)(전동침대)	
-18 30 08	이동형 리프팅 플랫폼(계단 이동용 리프트)	
-22 06 12	귓속형 보청기(청각장애인 보조기구) -화면확대보조기구, 페이지터너, 스마트 펜 등	
-22 06 15	귀걸이형 보청기(보청기)	
-22 12 21	점자정보 단말기(한소네U2)	
-22 18 03	녹음 및 재생장치(책마루)	
-22 30 03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윈도우아이즈)	
-22 30 03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소리안썬더 어니스트비전)	
-22 33	컴퓨터 및 단말기 (노트북, 윈도우 기반 태블릿 PT, 모바일 기반 태블릿 PC)	
-22 36	컴퓨터 입력 장치	
-22 36 03	특수 키보드	
-22 36 12	대체 입력 장치	
-22 36 21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기구 (트랙볼마우스)	
-22 39 04	시각 화면 표시기 및 액세서리(줌텍스트 바투비전)	

-22 39 05 촉각 화면 표시기(센스리더)
-22 39 12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센스리더 넥스트)
-24 09 18 스위치
- 품목고시 미분류 : 피난대피용 보조기구, 보행차(보행지지워커)
- 지원품목에 제한 없음 : 3개 사업

<표 15> 유관 사업의 세부 지원 품목 목록

각 수행 주체가 공고한 지원 품목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품목고시)’의 분류체계와 코드 번호에 따라 연구진이 재정리한 결과는 앞의 <표15>와 같다.

2) 사업 성과의 개념과 달성 수준의 판단

사업의 추구하는 고유 목적에 따른 성과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해당 성과의 달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조사 참여 기관들에게 ‘사업이 달성하려고 생각한 성과는 무엇이고,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 사업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과 ‘본 사업은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셨습니다? 성과목표는 ()를 ()정도 달성하는 것이었고, 목표 대비 대략 (%) 달성’의 두 가지 문항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조사 참여 사업 수행기관이 응답한 결과는 아래 <표16>과 같다. 해당 문항에 2개 사업은 응답하지 않았다.

사업 성과 개념과 측정방법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장애대학생 대학 학업 효율성 향상, 창의적인 자기개발 향상과 활용성 평가, 사업 효과성 평가, 만족도조사	지원대상자 선발 80명 대비 84명 달성 (105%), 만족도 및 활용성 조사 1회 대비 1회 진행(100%), 학습보조기구 활용팁 제공 1회 대비 2회 제공(200%), 사업인지도조사 1회 대비 1회 진행(100%)
-학습용 보조 기기 지원(최종 지원 대상자 수) -효과적인 보조 기기 사용, 사후관리(통일된 조사지를 통한 평가점수)	성과목표는 학습용 보조기기를 32명에게 지원하는 것이었고, 목표대비 125%달성 (40명지원)
지원 대상자의 인원 수	지원인원 6명으로 총 9명 지원 달성 (150%)

<p>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 및 독립적인 일상 생활지원이 달성 목표였으며, 만족도조사를 통해 기기 사용 현황 및 만족도, 효과성 등을 파악함</p>	<p>30명의 장애대학생에게 보조기구를 지원 (100%)</p>
<p>미응답</p>	<p>90%</p>
<p>맞춤 자전거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전문가를 통한 신청서 및 평가 기록평가지 확인 맞춤 자전거의 효과적인 사용-기기 지원 및 사용자 훈련을 통한 안내 및 지원 확인서 맞춤 자전거 사용에 따른 효과성 파악-만족도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한 신체 정서 등의 향상도 조사(만족도조사지)</p>	<p>24명에 대한 지원을 달성하였으며, 효과적인 사용 및 효과성의 경우 목표대비 대략(70%)달성</p>
<p>OO보조기구센터가 OO 전체를 관할하고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장애인들을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각 지역의 복지관과 연계사업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정보 접근성이 낮아 보조 기기 지원 사업 및 보조 기기 관련 사업 전반의 정보가 없거나 느려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 기기를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장애인 발굴함. 각 지역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한 향후 보조 기기 관련 지원 사업 지원 요청 본 센터는 아직 보조 기기 지원 사업 및 보조 기기 관련 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 많아 장애인 관련단체들도보조기기관련사업의 관심은있으나관련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며 보조 기기 관련 사업 수행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가 없어 이번 사업 및 센터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 기기 관련 사업의 이해와 관련 사업 마련 등의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별 보조 기기 사용 격차율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실제로 기관에서 자체사업 마련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으나 전문적인 상담, 평가 등의 마련을 어려워하는 기관이 있었음)각 기관과의 유대 형성을 통한 OO센터의 모든 보조 기기 관련 사업을 홍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불편한 부분을 보조기구를 통해 해소하고 보조 기기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서 적합한 보조기구 지원이 되는 통로가 있음을 알려 보조 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홍보</p>	<p>성과목표를 수치화 하거나 구체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센터 홍보 및 각 지역과의 유대감 형성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차후 각 지역 복지관과의 업무 협약 등으로 목표 달성도를 나타낼 수 있음</p>
<p>-대상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신청서, 언론 보도물, 회의록 및 선정 결과 보고서 -대상자 별상 세 견적을 통한 업체 선정: 산출기초 조</p>	<p>성과목표는 지원대상자수를 3명 달성하는 것이었고, 4명 지원완료 하여 목표대비 133% 달성</p>

사서, 계약서 -선정된 청소년 대상 맞춤 의족지원: 의족 제작사진, 사업 결과 보고서	
보행연습 및 훈련 수행, 만족도조사	장애아동 25명에게 보행보조기구 지원하는 것이었고, 27명에게 지원하여 목표대비 108%달성
보조기구센터 홍보, 신체변형예방 및 올바른 착석자세 유지 달성여부 측정은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로 달성여부 확인	더 이상의 <u>신체변형이 생기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 일생생활</u> 을 하는 것이었고, <u>목표 대비 80% 달성</u>
8명 이상 지원이라는 산출목표만 있음	8명 이상 지원하는 것이었고, 10명 달성하여 목표대비 125% 달성
-성과목표: <u>앉기 자세 유지를 통한 생애 주기별 활동(놀이, 학습) 향상</u> -성과측정 방법: 설문조사 -성과 지표: 첫째, 자세 유지의자 <u>사용 전후 활동 여부 및 활동량 변화 측정</u> , 둘째, <u>중립적인 자세 유지시간 변화</u>	성과목표는 <u>앉기 자세를 통한 활동향상</u> 이었으며 <u>선정자 전원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고 약 80%가량 달성</u>
-성과: 건강회복과 일상복귀 및 사회 적응이 필요한 소아암 경험자의 필요(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 -측정방법: 계획 대비 지원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질적 평가(건강회복 정도, 일상복귀 정도, 사회적응 정도, 가족관계의 변화 정도 등)	연간 계획기준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 만족도조사 등	미응답

<표 16> 유관사업의 성과 목표 개념과 측정 지표

각 사업들은 지원 대상과 지원 품목, 사업의 고유 목적에 따라 사업 성과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성과관리 체계에 부합하는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절하게 측정하여 평가한 경우는 3개 사업에 불과(<표16> 중 진하게 밑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13개 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산출지표 개념의 양적 실적으로 판단하여 총 몇 명에게 보급 또는 총 몇 회(건) 실시 등의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성과관리 체계에 입각한 사업실적 관리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업 홍보 및 신청자 모집·대상자 선정 방법

사업의 홍보는 대부분의 기관이 유사하게 ‘언론홍보, 광고, 개인SNS 공고, 관련학교 협조 및 홍보요청, 복지관 및 관련복지기관 협조 및 홍보 요청, 부모회, 장애인단체

협조 및 홍보 요청,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 협력, 병원 사회 사업실을 통한 홍보,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협회 내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홍보 진행 방식	신청자 모집 및 대상자 선정 방식
언론홍보, 광고, 개인 SNS 공고, 관련학교 협조 및 홍보요청, 복지관 및 관련복지기관 협조 및 홍보 요청, 부모회, 장애인단체 협조 및 홍보 요청,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 협력, 병원 사회 사업실을 통한 홍보,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협회 내 소식지를 통한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관 또는 전문가의 추천 접수, 지원 기관 내부 이용자 선정 통해 각 기관 내부회의 및 심사를 거쳐 선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며 서류 심사로 합격자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외부 심사위원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회의 실시 - 개인이 직접 신청하며 서류심사 및 대면 현장 평가, 최종심사(외부전문가초빙)를 통해 선정 - 개인이 직접 신청, 이용기관 또는 전문가의 추천 접수, 지원 기관 내부 이용자 선정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이용기관 또는 전문가의 추천 접수, 지원 기관 내부 이용자 선정하여 각 지역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의 현장평가와 그 평가를 토대로 관내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하여 선정 회의를 통해 선정 - 의족 잔여 내구연한, 장애정도,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터 적용방식을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며 상담평가 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 - 이용기관 또는 전문가의 추천 접수를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통한 (팀)내부회의와 재활의학과(전)교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최종 내부 회의 진행

<표 17> 유관사업의 홍보, 대상자 모집과 선정 방법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12건으로 더 많았고, 5개 사업은 기관 또는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신청을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며, 10건의 사업은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평가 또는 상담평가면담 등의 실사 절차를 확보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사업의 특색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제품 보급과 사후지원 내용

6개 사업은 나라장터 등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제품조달 업체를 선정하고 있었고,

4개 사업은 제품의 특성 상 납품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수의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별 맞춤형 취지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제품과 업체를 선택하면 사업 수행 기관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2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제품 확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품의 보급은 2건의 사업만이 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기관이나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방문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품 확보 절차 및 보조기기 제공 방식	보조기기 지원 후, 훈련 및 사후관리
-나라장터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 및 물품 선정 -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활용매뉴얼, 소프트 웨어 등 제공
-미응답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보조기기 지원 시에 사용자 훈련을 동시 진행하였으며, 얼마간의 사용기간을 거친 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재방문 실시하여 기기사용실태 점검
-제품의 사양에 따라 나라장터 공개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진행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지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사용 환경(집, 학교, 직장 등)에 방문하여 실시
-조달청을 통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기기 지원과 동시에 사용자 훈련을 병행하며, 기기 사용 시 A/S 필요 사항이 있을 시 센터 및 납품업체를 통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 후 지원 기기수급이 원활한 기관 선정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만족도 조사 실시, 사례관리 실시
-특정모델의 경우 국내생산 업체를 통한 수의 계약 실시하였으며, 수입모델의 경우 비교견적을 통한 업체 선정, 실시함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	기기 지원 후 전화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및 사례관리 실시하였으며, 기기 이상 및 필요에 따라서는 재방문하여 사례관리 실시
-업체 입찰을 통해 제품 목록을 고지하고 그 제품 수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예정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물품 구입 업체 입찰 진행 중에 있음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까지 입찰 될 업체와 연계하여 A/S부분 등을 진행 할 예정이고 사용자 훈련 및 만족도 조사 등은 지역 복지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원, 조사할 예정이며 이 외의 사후관리는 필요 시 방문하여 진행 할 예정

<p>-의뢰 대상: 방문 제작 및 사후관리 서비스 조건 만족 대상 기업 3곳</p> <p>견적 방법: 법인에서 제공하는 견적 의뢰자 정부품사양서 상의 부품에 일치하는 제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 지원 대상자 개별 환부에 따른 개인별 상세 견적 요청</p> <p>최종선정: 부품 사양의 충분 정도와 최저가를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 선정</p> <p>공급계약 체결: 사후정산 방식의 공급계약 체결,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에 대한 계약 이행보험 증권 발행, 지원 완료 시점에 하자 이행보험 증권 가입</p> <p>-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p>	<p>공급업체의 하자 이행보험 증권 가입을 강제화하고, 훈련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가능한 점을 대상자에게 안내</p>
<p>-업체를 통해 구매</p> <p>-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p>	<p>지원시점에서 사용훈련, 유선 사후관리 진행</p>
<p>-납품업체 입찰 후 업체를 통하여</p> <p>-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p>	<p>개별 기관 담당자 및 납품업체 를 통한 모니터링</p>
<p>-업체의 사업제안</p> <p>-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전달식을 통한 보조기구 전달</p>	<p>현재 한번 진행, 지원 받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전화상으로 1차 사후관리 진행, 한 달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사후관리 진행 예정</p>
<p>-신청자 본인과 신청 기관에서 논의하여 필요한 제품을 선정하고 적합한 업체를 컨택하여 협회에 안내</p> <p>-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p>	<p>훈련일지를 받고 유선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 및 추천 기관의 협조 지원</p>
<p>-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p>	<p>업체를 통한 모니터링</p>
<p>-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및 자체 맞춤제작, 전문 가공업체를 통한 제작 등 혼합</p> <p>-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p>	<p>전화 상담을 통한 정기적 사후관리(6개월 1회)와 상시적인 지원 보조 기기 수정, 보완(방문 및 내방)</p>
<p>-선정자가 직접 필요한 보조기기를 알아봄</p> <p>-선정자가 필요한 보조기기를 직접 알아보고 주문/의뢰하면 협회가 업체로 직접 입금</p>	<p>연간 1~2회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p>
<p>-유통업체 문의</p> <p>-선정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기관 또는 업체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배송</p>	<p>담당자 방문하여 훈련, 사후관리</p>

<표 18> 유관사업의 제품 보급과 사후관리 방식

11건의 사업은 수행기관이나 납품업체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사용훈련과 후속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지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모든 사업이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후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참여자 피드백 수렴 방법

미응답 4건을 제외한 12건의 사업 모두 전화, 설문, 우편 등의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선정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의 수행은 1회로 그치지 않고, 2~3차례, 최대 5차례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수행과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피드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대부분 지원 품목이나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사업 수행 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건의들이 있었다. 일부사업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건의가 수렴되기도 하였다.

선정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경험과 사업에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체 84명 중 80%이상에게 피드백 전달 받음 -협력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총 3차례 피드백 전달받음 -사업 종료 후에는 유선으로 통해 사용 실태 확인하며, 기구에 문제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조치함. 2016년은 종결 후 3인의 피드백 받음 -만족도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1차례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후 개별적인 문의 및 사례관리를 통해 2-3차례 피드백을 받음 -만족도 조사를 통해 3건의 피드백 받음 -유선 및 방문을 통한 2~3차례 피드백 받음 -심사위원분들의 선정 회의 시, 선정 후 관련 피드백을 받음 -유선통화 5차례로 피드백 받음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서 / 1회 -사업종료 후 일괄설문조사 실시 1회 외 상시 전화상담 -유선, 편지 등 / 10회 내외 -전화 만족도 등 대상자 1명당 1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추천방식이 아닌 공모형식을 통해 대상자간의 경쟁도 필요함 -지원되는 기기종류가 보다 다양해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며, 기기를 지원받기 위한 소요기간이 짧았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됨 -지원기간 단축 -국내에 생산·유통되는 자전거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더욱 다양한 자전거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함. 일부 대상자의 경우 부피가 커서 보관 및 휴대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옴. 각 지역복지관과의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통해 복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더 많이 발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후관리 또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해 지역복지관에 보조 기기 관련 사업담당자를 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음. 또한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조금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였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음. 기관 경영진분들께 나서 사업 진행 중 내어주신 의견에 자체사업 마련시 전문적인 의견과 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신 기관도 있었음. 보조기계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과 욕구가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구에 대한 무료보급사업 필요
- 연속적인 지원 요청
- 사업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진행 기간의 단축이 필요함(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이 아닌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함.
-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아암의 특성상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지원에 대한 감사 표현 등

<표 19> 유관사업의 사용자 피드백 수렴과 내용의 예시

6) 사업의 장점과 특화성

사업의 장점과 특화성에 대해서는 17개 사업이 모두 개별 사업의 주요 특성에 대해 답변하였다. 10개 사업은 특화된 장점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원 품목이나 지원 대상에 대한 특성을 주요 장점으로 언급한 사업들도 6건 있었다.

해당 사업의 장점과 특화된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학업 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 가능, 보조기구 대여가 아닌 무상 지원 - 기존 학령기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지 않아 수혜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양질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함 - 특정 보조기구 영역이 아닌 직업, 학습에 필요한 기구에 대해 지원 금액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히 컴퓨터 및 태블릿PC 등 IT 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생활(이동, 강의실 환경 등) 전반에 있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줄 수 있는 보조 기기를 직접 지원하고, 1인 500만 원 이내에서 다양한 보조 기기를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타산업과는 차별성이 있음 - 국내 유일무이한 피난대피용 보조기구의 지원과 지원을 통한 인식개선 효과 - 기존의 다른 사업과 달리 훈련 및 여가생활을 위한 기기를 지원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 OO지역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소도시가 많아 전반적으로 아무 장애유형이 있어 장애수당만 받으면 된다, 라는 식의 생각들로 중복 장애가 있어도 비용 문제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장애유형, 등급이 정해져 있는 지원 사업에는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만 판정받은 장애유형과는 다른 장애에 대한 보조 기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공적급여, 민간 급여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지대의 분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없었다. 또한 전문가의 부재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하고 적합한 보조 기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거나 필요한 분들도 보급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여(각 읍면동의 주민센터 주무관들의 교육 미비, 잦은 주무관 교체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각 지역의 복지관에도 보조 기기 관련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임) 발굴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관련되어 보조 기기 지원 선정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조기구센터를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보조기구센터를 알림으로써 전문가부재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함
- 본 사업은 경제형편이 어렵고 의족교체주기가 잦은 저소득절단장애청소년에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됨. 특화된 차별성은 의족 제작을 위해 취형 및 가공까지 보통 2~3회의 의족 제작 업체를 방문해야 했던 그간의 제작 과정과는 달리 가정에서 직접 의족을 받아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효율증대(기간 단축)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높은 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 장애상태에 맞춘 보조기기 지원
-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 OO지역 내 욕구 조사 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신체변형예방 및 변형방지 올바른 착석 자세이며, 그걸 제일 커버해줄 수 있는 보조기구는 아무래도 자세보조용구임. 이 사업을 통해 OO 내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자세보조용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착석 자세를 유지에 힘을 쏟
- 신청자가 원하는 품목, 모델을 원하는 업체에서 구입 가능함
- 업체 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여 맞추는 보조기기
- 맞춤형 자세 유지의 자의 자체 제작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원자 수확 때 가능과 개개인 별 장애 및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제작을 통한 만족도 향상
- 소아암 치료에 국한하지 않고 후유증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재활, 보조기 지원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표 20> 유관사업의 장점 및 특화 차별성 응답내용

7) 사업의 한계와 미래 전략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2건의 사업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이 해당사업의 한계와 제약에 대해 기술하였다.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사업만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작성했다.

해당 사업의 한계점, 제약여건과 보완 방법 제시	사업의 미래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기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내 전체적인 학습 환경의 불리함 -제도적 보완을 통해 편의시설 개선 -각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에 일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관별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지원대상자 기관별 추천이 아닌 공모형식 진행 -저소득 중심의 대상자 선정 조건(모금회)으로 일부 대상자 제약 -기구의 활용성 및 필요성 중심의 대상자 선정 -IT나 특수 이동보조 기기 등 고가의 보조기기를 주로 지원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수가 적음 -기지지원비의 예산증액 또는1인당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상한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피난대피: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전국 500여 기관에 800대가 지원되어 있는 사향으로 담당자가 일일이 다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유모차: 성장과 기능 변화에 따라 기지원 받은 유모차를 바꿔줄 수 있어야 함 -피난대피: 활용 동영상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기기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기를 수월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예산 및 적합 기기의 종류가 제한적임 -자체적인자전거 개발 및 새로운 모델 발굴과 신체기능에 따른 부분별 부품지원을 통한 자전거 활용 방안 -적은예산과 각 지역복지관의 보조기기 관련 전문가 부재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통한 교육 및 유대감 형성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예산 또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더 많은 예산을 수급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함. 구체적인 보완방법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 추천 기관 담당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청소년기의 절단 장애청소년만으로 대상 연령을 제한하여 성장기 아동, 성인기의 대학생 등에는 지원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사업비의 한계로 성장 기절단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족을 신규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족 부품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의족의 경우, 대상자가 새로 제작된 의족에 맞추어 처음부터 재활훈련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데 약점 -사업 대상 연령을 아동청소년, 청년기까지 확대 지원해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한국보조공학협회를 협력기관으로써 협회에 가입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기관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중증의 장애인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맞춤 기구 제공 -보조 기기를 지원받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받은 대상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개선 및 효과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할 예정임 -현재 본 사업을 통해 완제품의 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에 따라 필요 기능이 다름. 이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자전거에 필요한 옵션을 장착해주는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도 함. 그럴 경우 더욱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맞춤형으로 사업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보조기구 지급 후 사후관리까지 마친 후에 사업의 한계점, 보완점 등을 확인하고 발전

<p>과 지속적인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나, 고가의 의족을 제작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화된 나눔에 대한 기업 사회 공헌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만족도 상승을 위한 기념 세리머니 등 추진. 단,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라나는 아이들인 만큼 외부에 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탁 금액 -후원금액의 증액 -일단 OO지역은 사업자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체를 지원 받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보조기기 전달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피팅을 하러 오기조차의 여건이 힘들었음. 몇 번의 통화 끝에 업체와의 미팅 날짜를 잡았음. 추후 사후관리 또한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임 -사후관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음. 사후관리가 되어야 기기를 오래도록 쓸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일부는 고치기 힘들어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만큼 사후관리가 힘든 것으로 보임. 업체의 꾸준한 A/S가 이루어져야하며 사업을 진행한 센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함 -저소득층 무료 교부 품목, 건강보험 적용 품목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고, 품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렇게 차이 나게 지원이 되어 평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저소득층 무료 교부 품목과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 대한 조사와 일부다 부담의 기준을 정하거나, 금액의 기준을 정해야 함 -업체 방문을 위한 선정자의 이동 -사업 진행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대기기간 증가와 사업담당자의 에너지 소비 과다 그리고, 제작완성도 저하로 생각됨 -위 제약은 제작지원사업의 한계라고 판단되며 지원기관과 보조기기생산업체의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아암의 경우 치료 과정에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됨. '생명 살리기'를 위한 긴급지원으로의 치료비 지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기구 지원까지 폭넓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소아암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고, 소아암 치료 이후 사회에 복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치료 과정, 치료 이후 과정에서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재활치료(보장구 포함)에 대한 꾸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안을 모색하는 평가회 등을 진행해야 함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다 특화된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올바른 자세유지의 필요성을 많이 제시할 것임. 아직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홍보에 일단 주력을 할 예정이며, 최대한의 AS 처리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자세보조용구를 통해 점차 나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지켜볼 예정 -저소득층 무료 교부 품목과 건강보험 적용 품목에 대한 조사와 일부 다 부담의 기준을 정하거나, 금액의 기준을 정해야 함 -해당 없음(동 보조기기를 공적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

<p>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 외부 지원 기관에 제안할 때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도 방법</p>	
--	--

<표 21> 유관사업의 한계, 보완 사항과 미래전략 응답내용

사업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고 그 외에, ‘외부환경 또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한 한계, 기관 추천선발로 인한 전문성 편차를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업수행 방식에 대한 개선의견’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사업의 미래 전략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홍보나 인식 개선을 강화하겠다’거나 ‘사용자를 조직화 시키는 것과 같은 사후관리 강화’, ‘맞춤형 지원 강화’와 같은 내용들이 기술되었다.

3. 국내 유관사업 현황 분석의 시사점

국내 유관 사업의 분석은 ‘맞춤형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과 해당 사업들의 특성으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과정이었다. 총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시되는 유관사업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는 점을 각자의 특화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의 수행 방식이나 홍보 전략 등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한 17개 사업이 모두 ‘맞춤형 지원사업’보다 3년 이상 늦게 시작된 사업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관사업들의 현황과 특성의 유사성은 일면 ‘맞춤형 지원사업’의 영향을 받은 후발 사업들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만큼 ‘맞춤형 지원사업’이 우리사회의 보조기구 보급사업 확대를 견인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들의 유사성

은 자칫 ‘맞춤형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간 유사성 증가로 중복 성격의 사업으로 퇴색될 가능성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체계 분석에서 표방되었던 ‘새로운 나눔문화’, ‘시민의식의 선도’ 등의 내용에 부합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유관사업의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시사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성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고, ‘몇 명에게 몇 회에 걸쳐 몇 건의 보조기구를 보급, 또는 몇 회의 행사를(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방식의 산출실적 관점의 양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사업을 수행하는 근본 취지의 달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결과의 질적 향상 정도에 대한 동기를 불러오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조사 결과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른 보급 사업들이 양적인 산출실적 이외에 만족도, 평가척도를 활용한 활용효과의 검증(활동량 증가, 신체 변화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사업들에 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보급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개념이 전반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 등의 선도적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사업의 미래 전략 중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사례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 시켜서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사후관리 활동 강화’와 같은 의견이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개인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들이 다른 의견에 비해 주목된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10년 간 1천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였는데, 중증장애인 위주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후속 모임 등을 조직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례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과 추가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보조기구 보급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증가하는 개별화 욕구 지원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수행 중인 보급 선정품목 중심의 지원 방식을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별 맞춤형 제품 보급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타 사업의 미래전략을 통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 국내 관련 제도 및 법률 환경 분석

이 절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보조기구 관련 법률, 지원 제도와 사업, 그리고 전달 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간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한다.

1. 국내 관련 제도 및 법률 현황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어 장애로 인한 활동의 제한을 보조하는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기구의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조기구의 관리와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15년 12월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고령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국내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은 대체적으로 12개의 주요법률과 5개의 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법률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2>와 같다.

보조기기법이 제정되기까지 공공영역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의 4부 1처에서 보조기구 관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왔다. 하지만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관련 전달체계가 충분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대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4부 1처에 분산되어 있는 보조기구 지원제도는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수립의 저해요소로 평가받고 있다(강정배 외, 2016).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구분	법률명	소관부처	대상	보조기구관련 내용	제정/(최근) 개정연도
주요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65세이상 노인,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	보조기기 지원, 보조기기센터 설치와 운영,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자격	2015.12 /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복지관련 보조기구 지원(총 20종)	1981. 6. / 2015. 9.
	국민건강보험법		등록 장애인	의지.보조기.일상생활보조기기지원(79종)	1999. 2. / 2014.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장애인	산재관련 의료용 보조기구 지원(총 98종)	1963. 11. / 201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민	장애인 교육 및 생활 등에 필요한 보조기구의 제공 지원	2007. 4. / 2015.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 (놀이, 치료 등)	2014. 5.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총 17종)	2007. 4. / 2009.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65세 이상 노인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 지원	2006. 12./ 2013.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등록 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1990. 1. / 2015.5.
	국가정보화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등록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009. 5. / 2013.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의지보조기 지원 (보철구 등)	1984. 8. / 2015.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교육적 욕구가 있는 등록 장애인	학습보조기기 지원	2007. 5. / 2013. 12.
관련 법률	관세법	기획재정부	보조기구를 판매·유통하는 업체	보조기기 관세 면제	1949. 11./ 2015. 1.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관리	1961. 9. / 2015. 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관리	2008. 2. / 2015. 6.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작, 판매 등	2003. 5. / 2015.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2008. 3. / 2015. 7.

<표 22> 국내 주요 보조기구 관련 법률 현황, 출처: 남세현 외(2015)에서 인용 보강함

2.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2)

공공영역에서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목적과 지원대상에 따라 4부 1처에 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별로 교부품목과 급여한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사업명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의료서비스	장애인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철구지급
수행기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보훈처 보훈병원
지급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보호 및 차상위층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산재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등록장애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장애인
교부품목	20종 약 79개 품목		약 20개 품목	17종 (구입 9종, 대여 8종)	약 98개 품목	약 33개 품목	정보통신기기 74종(15년 기준)	학습보조기기	약44종
급여내용	상한액 범위 90%지원	상한액 범위 전액 지원	전액지원	연간 한도 160만원 내 85%지원	전액 지원	고용유지조건, 무상지원	구입가격의 80% 지원	학교에 지원	전액지원

<표 23> 소관부처별 주요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2015년 기준), 출처: 남세현 외(2015)

2014년을 기준으로 4부 1처의 공공 영역에서 실시하는 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약 1,63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고, 현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보험급여과	요양보험제도과	기초의료보장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산재	장애인고용과	보훈의료과	정보문화과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층	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사업주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장애인
지원규모(억원)	342	934	125	15.9	34.5	78.6	60.7	40
지급실적(건)	74,268	169,896	18,763	6,810	11,302	4,670	12,643	4,214
품목수(종)	78	17	78	20	93	28	51	42

<표 24> 공공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규모(2014년 기준), 출처: 남세현 외(2015)

2) 남세현 외(2015)의 내용을 인용·재정리하였음

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보편성이 가장 큰 건강보험 보장구급여 지원제도의 경우 처음 시작되었던 1999년도에 21억원 수준의 예산에서 시작된 것이 현재는 342억원으로 15년 동안 약 16배가량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경우 전동휠체어 보장구 급여가 본격화되었던 2007년과 2008년에는 최대 615억원 규모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났다가 2008년 이후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도	1999	2002	2005	2008	2011	2012	2013	2014
금액(백만원)	2,124	6,693	21,669	44,046	27,180	27,363	32,306	34,240
건수 (건)	9,615	24,566	48,957	89,155	68,125	64,407	71,350	74,268

<표 25>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 규모 연도별 추이, 출처: 남세현 외(2015)

반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와 확대 수준이 크지 않은 편으로 지속적으로 정체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외현 상으로는 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각 사업의 포괄 범위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기구 교부사업의 경우 연간 이용건수가 7천 건 내외에 불과하고,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도 연간 7만 건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35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기구관련 주요 공적급여의 종류는 4부 1처에서 제공되는 9개의 사업에 불과하다. 이는 소비자에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가 낙후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보조기구 전달체계 현황3)

우리나라의 보조공학 서비스는 초보적인 형태로 최소한의 공적급여를 제공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소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엄격한 급여기준, 협소한 지원 품목, 정보 부족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이 대표적인 제약점이다. 또한 공공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규모와 대상 범위의 한계 외에도 각 사업간 연계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사업 수행 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66조	의료 급여법 제13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13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23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0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업 수행 근거	없음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 창조 과학부	교육부	국가 보훈처	주무 부처	없음	
전달 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일부 지역 보조 기구센터 협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사)	근로 복지 공단	한국정보화 진흥원 지사체	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보훈 병원	전달 체계	일부 지역 보조 기구센터 지원 판매·유통업체	
수 요 자	저소득 등록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근로 (구직) 장애인	산재보상 보험수급 장애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수 교육 대상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수 요 자	장애인	

<그림 10> 국내 주요 보조기구 전달체계, 출처: 남세현 외(2015)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5개 부처는 주로 해당 부처의 소속 행정기관을 활용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사업에 따라 분리된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전달 체계 중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일부 협력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보조기구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분산과 부재는

3) 남세현 외(2015)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사업과 예산별로 이용자를 차단시키는 장벽을 만들어 장애인 소비자 입장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지원받기 원할 경우 처음 접촉해야 할 기관을 사업에 따라 명확히 알고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사업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서부터 장벽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선택하고 지원받는 절차에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의존 비중을 높아지게 만들고, 일부 사업의 경우 부도덕한 업체가 부정 수급을 유도하여 예산 비효율성을 높이거나, 품질이 낮고 서비스가 불량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의 효과적인 보조기구 활용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등의 전문 전달체계를 설치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기구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델을 선보였던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에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를 설치하여 중앙 1개소(국립재활원)와 지방 10개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보조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제3절 해외 유관 환경 검토

이 절에서는 미국의 보조기구 관련법과 보조기구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의 절차와 심사 및 성과 측정을 위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영국의 민간 자선단체를 통한 아동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과 영국의 보조기구 지원 사례에 더해 유럽에서 논의 중인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평가 방법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적용점을 모색해보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제도화 견인을 위한 해외 민간 재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1. 보조기구 관련법과 법적 정의

미국의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공학적 도움을 받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보조공학법은 장애인의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 지원과 재원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육주혜 외(2007)는 보조공학법을 설명하며, 보조공학법에서 정의한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보조공학: 보조공학 기기 또는 보조공학 서비스로 활용되도록 설계된 공학(technology)
- 보조공학 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 장애인의 기능을 증진·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상용·개조·맞춤 제작한 장비나 제품 시스템
- 보조공학 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 보조공학 기기를 선택·구입·사용하는데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 이러한 보조공학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장애인의 일상적 환경에서 적절한 보조공학과 서비스 제공 효과의 기능적 평가를 포함한 장애인의 보조공학 요구 평가.
 - 장애인의 보조공학 기기 입수를 위해 제공되는 구입, 임대, 기타 관

련 서비스.

- 보조공학 기기의 선택, 설계, 조정(fitting), 맞춤, 변형, 적용, 보존, 수리, 교체, 기증 서비스.
- 교육·재활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 치료, 중재, 서비스와 같이 보조공학기기와 함께 필요한 치료, 중재, 서비스의 조정 또는 활용.
- 장애인, 적절할 경우 그의 가족, 보호자, 대변인, 법적 대리인에 대한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 전문가(교육·재활 서비스 제공자와 보조공학 기기 제작자 또는 판매자 포함), 고용주, 고용·훈련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에게 이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주생활 기능에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타 개인들에 대한 훈련 또는 기술적 지원.
- 장애인에게 전자·정보기술(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을 포함한 공학에 접근을 확장하는 서비스.(p.55)

위에서 정의하였듯이 보조공학은 실생활, 학업, 직업 등의 인간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법에서도 보조공학의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재활서비스행정처(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통해 직업재활, 지원고용, 자립생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데 근거를 주는 법률로서 재활이 필요한 삶의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는데 보조공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활 프로그램을 담당·운영하는 전문가에게도 보조공학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 합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방법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한다. 장애인 교육증진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은 보조공학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에게 보조공학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별적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계획하고 작성할 때 학생의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상의 목표에 부합하는 보조공학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은 장애인의 원격통신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2. 보조기구 지원 제도

1) 미국

보조공학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특성에 따라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이나 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고, Medicaid나 Medicare와 같은 공공의료혜택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이 입증되면 보조기기의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이나 지역 단위의 장애인 단체도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보조하는 단체도 존재한다. 공교육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21세 이상 학생들은 학교나 외부의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비역 군인을 위해 재향군인 관리국(Veterans Administration)에서도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하고 자세한 정보는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의 홈페이지 (www.ati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므로 대상 연령의 특성상 주로 학교의 특수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근거하여 보조기기를 지원받는다. 미국장애인교육법은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공교육의 무상 제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기를 포함하는 모든 특수교육 서비스는 가족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은 팀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진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은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를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토하고, 수정하는데 특별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공학 기기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여 이루고자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공학 기기 사용을 위한 훈련이나 기술적인 보조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영국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이동성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정부(National Health Service, Social Service)에서 법으로 공급하는 보조기구 외에 민간자선단체들에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들을 신청받아 공급한다. 단체마다 자선후원 기부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신청 받은 보조기구들을 공급하는데, 대상자나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보조기구를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면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한 보조기구를 후원기금으로 구매하여 준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후원하는 자선단체는 약 400여 개가 있으며 후원하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후원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구분 되어 있고 대부분 단체들이 보조기구 구입을 후원하고 있다.

(1) 보조기구의 종류

National Health Service 와 Social Service로부터의 공급에서 제외된 기구들로서 민간 자선단체에서 주로 공급하는 보조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특수한 휠체어와 유모차, 특수의자, 카씨트, 전동휠체어, 워커, 스탠딩프레임, 의료기구, 장애인용 세발자전거와 네발자전거
- 의사소통기계, 감각치료기구, 놀이치료기구, 야외 놀이기구
- 특수전동침대와 수면 보조기구. 욕실에서 필요한 기구들, 운동치료기구, 컴퓨터, 태블릿
- 독립생활에 필요한 집안 전자제품과 가구
- 집안에서 이동을 돕는 보조기구들(천정에 설치하는 호이스트, 층간 이동리프트,) 이동에 필요한 집 개조

(2) 신청절차

신청서를 자선단체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받는 단체들도 있다.

①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과 첨부해야 할 서류.

- 장애아동의 의료 정보

- 신청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와 맞춤 견적서
- 그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 배경과 후원 받았을 경우에 그 아동과 가족에게 어떤 이익과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 후원하는 소견추천서 1부 혹은 2부 :
 - 관계된 의료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사, 간호사 중 1명)이나 사회복지사, 학교나 관련된 복지단체로 부터 후원추천서를 필요로 함
 - 후원추천서의 내용은 신청하는 보조기구가 필요한 이유와 그 보조기구가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의 향상과 안전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이익을 주는지 기록하여야 함
 - 후원추천서를 받기위해서 신청하기 전 필요한 보조기구를 의료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얻어 선택하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함
- 부모의 경제상황(연봉 60.000 파운드 이상이면 신청 불가인 단체도 있음)

② 신청 자격과 조건

- 심각한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대부분 단체가 2세에서 19세 혹은 21세까지 지원)
- 저소득 가정
- 정부에서 법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보조기구
- 자선단체들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연락하여 원하는 보조기구와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를 잘 선택하여 신청

(3) 지원 및 공급 절차

자선단체에서는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서가 도착한 것을 알려주고 신청한 보조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신청서는 심사팀에 의해 검토된 후, 신청한 보조기구의 견적서의 금액을 전액 지급할지를 결정하는데, 고가의 경우에는 80% 정도를 지급하는 단체도 있다. 지원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부분은 신청서에 첨부된 의료전문가들의 소견서이다. 신청한 보조기구의 필요성과 그 보조기구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이익과 삶의 질의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가장 비중을 두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심사에 의해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편지로 결과를 알려준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첨부된 견적서로

직접 업체에 주문하는데 지불 금액을 수표로 신청자에게 보내주어 주문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하는 단체도 있다. 배송 일자가 결정되면 필요한 경우 설치 사용하는 훈련까지 알선하여 준다. 단, 공급한 보조기구의 유지, 보수는 전적으로 수혜자의 의무로 부여된다.

(4) 보조기구 지급 후 성과의 측정과 판단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후원하고 추천한 전문가들의 소견(신청한 보조기구의 필요성과 이익)을 신뢰하여 개개인의 특수한 필요를 맞추어 주기위해 지급한 보조기구의 공급에 대한 성과의 측정은 개개인별의 사용 경험과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한다. 신청자들이 지급받은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과 부모에게 그 보조기구가 장애아동의 삶에 어떤 이익과 변화를 주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 그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며, 자선단체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그 사진과 내용을 올려 자선 후원 기부금 조성에 사용하기도 한다. 지원 공급받은 보조기구의 만족도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를 2년마다 각 가정에 보내어 보조기구 지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들도 있다. 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기구로 인해

- 가족이 장애아동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나?
- 장애아동의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가?
- 장애아동의 웰빙을 향상시켜 주었나?
- 장애아동이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나?
- 장애아동의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 장애아동의 자아의식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 보조기구가 장애아의 태도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가?
- 장애아동이 독립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가?
-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가?
- 주위환경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가?

(5) 자선기금을 조성하는 방법과 통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기금 조성을 위한 정기적인 행사, 지속적인 대중매체 캠페인, 유명인사와 연예인이 후원자가 되어 캠페인과 행사에 참가해 자선단체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일시적 행사, 지역사회 자선모금 행사. 단체와 개인 기부금, 유언과 유산, 기업의 후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금 등이 있는데, 장애아동들이 보조기구를 지원받고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도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단체는 연간활동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기부자들이 그 단체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을 조성하는 큰 역할을 한다.

3. 보조기구와 서비스 지원의 고려사항

1) 보조기구 지원과 서비스 적용을 위한 사전평가

Zabala(1995)는 SETT Framework을 제안하며 보조공학의 적용을 위한 평가를 할 때 학생(Student), 환경(Enviornment), 과제(Tasks), 도구(Tools)가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네 가지 고려사항은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돕는 다양한 접근 방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주 교육청(2014)의 보조공학 정보를 살펴보면, 보조공학의 품질지표 협력단 (Quality Indicators for Assistive Technology Consortium)의 품질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생, 환경, 과제, 도구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품질지표는 보조기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리스트로 개발하여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이 체계적으로 보조공학의 필요를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해 고려한다.

-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은 보조기구 및 서비스에 대한 각 학생의 가능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친다.
-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은 필요시 조력을 구할 수 있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조공학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총체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학생의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과정과 과외활동에의 접근성, 그리고 일반교육과정의 진도에 따른다.
-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은 보조기구와 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학생, 관습적 환경, 교육목표, 그리고 과제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한다.
- 보조공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은 확인된 필요를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서비스, 그리고 기타 지원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 보조공학을 고려하는 과정과 결과를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에 기록하고 판단의 근거와 입증자료로 첨부한다.

코네티컷 주 교육청(2016)의 코네티컷 보조공학 가이드라인(Connecticut Assistive Technology Guidelines)도 학생, 환경, 과제, 도구라는 주요한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보조공학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 행동의 어떤 측면의 변화를 기대하는가?
- 학생이 보조공학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조건은 무엇인가? (과제, 조건, 장소, 시간, 방법 등)
-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보조공학의 사용, 교육 전략, 편의 시설, 변경/개조 등)
- 학생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시작신호는 무엇인가?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점차 증대, 점차 감소 등)
-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학생과 팀은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가? (신체적, 감각적, 공학기술의 가용성과 접근성)

- 실행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성인은 누구인가? (교사, 행정가, 보조교사, 가족 등)
- 성인들은 학생의 효과적인 보조공학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용한 기술의 마련, 수퍼비전이나 지원의 제공, 자료 수집, 장비 관리)
- 성인들은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장비, 전략, 필요시 조력 요청방법, 문제 해결법 등)
- 실행과 훈련을 보조하기 위해 성인에게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보조공학자, 외부 교육, 행정적 지원, 보조기기 사업자의 지원, 시간)

2)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효과는 보조기구가 투입된 이후 결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그 측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통제된 환경에서의 실험과는 달리 이용자별로 이용자와 보조기구와의 적합성, 타 보조기구와의 간섭성, 보조기구 사용환경, 조력자의 존재 유무 등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삶의 변수가 존재하고, 효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어떤 평가도구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정확한 효과 측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구 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고, 학자들은 보조기구의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개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적 보조기구 사용목적에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통해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Gelderblom & Witte, 2002, p.92).

평가 시점적으로는 보조기구가 지원되기 이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그 대상을 무엇으로 삼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응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기구의 이용자, 보조기구, 그리고 보조기구가 사용되는 조건(환경)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차원의 평가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 보조기구가 지원된 목적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에의 도움, 기능적 독립성의 획득, 취업이나 학업 또는 사회생활의 참여 확대, 이용자의 만족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고려와 이를 측정할 신뢰할만한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Technology & Disability는

2002년 스페셜 이슈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보조기구 평가도구를 소개하였다. 보조기구가 영향을 미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돕는 도구들의 개념적 평가영역을 살펴보면 삶의 질, 개개인의 목적, 사회적 참여, 이용자와 도구의 조응, 기능적 수행, 심리사회적 영향, 이용자 만족도, 비용 등이다.

Instrument	Concept
EuroQol and PIRS	Quality of Life
IPPA	Individual Goals
Life-H	Social Participation
MPT	Match between Person and Technology (Predisposition Assessment)
OT-FACT	Functional Performance
PIADS	Psycho-Social Impact
QUEST	Users' Satisfaction
SCAI	Costs

<표 26> Overview of instruments and the concepts, 출처: Gelderblom & Witte (2002, p.93)

위의 보조기구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평가 단락에서 언급한 코네티컷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네티컷 주 교육청(2016)은 보조공학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보조공학이 학생 행동의 예상되는 변화를 만든다고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가? (성과, 기능적 역량, 목표를 향한 진척)
- 행동의 변화가 발생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질, 양, 독립, 정확성, 자발성, 속도, 빈도, 지속 기간, 잠복 기간)
- 자료의 수집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인터뷰, 토론, 관찰, 주관적 보고, 학생 작업 검토, 비디오 등)
-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할 것인가? (실행 중 빈도, 정기적으로 계획된 검토, 형성평가, 총괄평가)
- 무엇을 살펴보며 언제 자료를 분석할 것인가? (행동이나 성취도의 변화, 예상된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 제거된 장애물, 지속적인 장애물, 새로 등장한 장애물)
-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만약 학생이 진보를 보이지 못할 경우, 예상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의 욕구, 이

를 둘러싼 환경, 과제 요구에 있어 변화가 있을 때 실행계획의 수정을 고려)

일반적으로 성과는 보조공학 기기 및 서비스 이용자의 사람의 질의 향상 정도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강조한 코네티컷 주 교육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행동 및 태도 변화상의 성과 지표는 해당 학생의 참여를 촉진시켰는가? 독립성을 길렀는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효율성, 유용성,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지아 주 교육청의 보조공학을 위한 조지아 프로젝트(Georgia Project for Assistive Technology)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조기구와 서비스를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얻을 수 있는 성과의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은 제시하고 있다.

- 보조공학 없이 관련된 학습 구역 또는 접근 가능 구역 내에서 학생이 표준적인 교실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요구된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수한다.
- 보조공학 없이 관련된 학습구역 또는 접근 가능 구역 내에서 학생이 이미 준비된 표준적인 교실과 구조변경,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요구된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수한다.
- 관련된 학습 구역 또는 접근 가능 구역 내에서 학생이 교육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된 보조공학을 이용하여 요구된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수한다.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에 대해 기록한다. 보조공학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필요시 변경한다.
- 관련된 학습구역 또는 접근 가능 구역 내에서 학생이 이미 준비된 구조 변경, 편의시설, 보조공학을 이용하여도 필수 과제를 독립적으로 완수하지 못한다. 만약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팀이 잠재적인 보조공학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개별적 교육프로그램에 확인된 보조공학 해결책을 시범 사용에 대해 기록하고 시행한다. 해결책이 없는 경우 개별적 교육 프로젝트팀은 보조공학에 대해 자문을 주며 팀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보조공학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자문과 평가 후에 시범적인 사용 기간을 가질 것을 권장한다.

조지아 주 교육청의 내용도 코네티컷 주 교육청의 성과 측정지표와 유사하게 교육적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적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등을 통해 보조공학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디자인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보조기구 자체에 대한 평가의 부분은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조기구 지원의 원칙을 살펴보고 준용할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공학: 교육, 통합, 그리고 참여를 위한 기회의 마련(Assistive Technolog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eat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Inclusion and Participation)을 발간하며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공학은 아동의 욕구와 환경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조기구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높아야 하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보조기구는 이용 가능하고, 구입 가능하며, 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5A&Q를 보조공학 지원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여섯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양이 존재해야 한다.
- 접근성(Accessibi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성별, 장애의 종류, 사회경제적 수준, 지리적 조건에 의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적정가격(Affordabi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의 가족이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해야 한다.
- 적응가능성(Adaptabi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건강상태, 몸의 구조와 기능, 성별, 연령, 기호 등 개별 아동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그리고 기후와 문화, 물리적 또는 심리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적절하게 교정·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교정·수정이 필요하다.

-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수용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논의 과정에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여 자신의 필요, 기호, 기대 등을 나누어야 한다. 보조기구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기기와 서비스의 효율성, 신뢰성, 단순성, 안전성, 안락성, 심미성이 중요하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 또한 보조기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장애물이 최소화된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 품질(Quality): 보조기구와 서비스는 강도, 내구성, 용량, 안전성, 안락성 등에서 일정한 품질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품질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의 적용도 가능하다.

3) 보조공학 전달체계 평가의 고려사항

앞서 살펴본 Zabala(1995)의 SETT Framework에서 제시된 학생(Student), 환경(Environment), 과제(Tasks), 도구(Tools)가 보조공학의 지원과 평가에 주요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미국 각 주의 교육청 보조공학 지원 및 평가의 실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5년 간의 유럽 지역 보조공학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서비스전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조공학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평가도구도 개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KWAZO라는 평가도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조기구가 전달되는 과정을 여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Dijcks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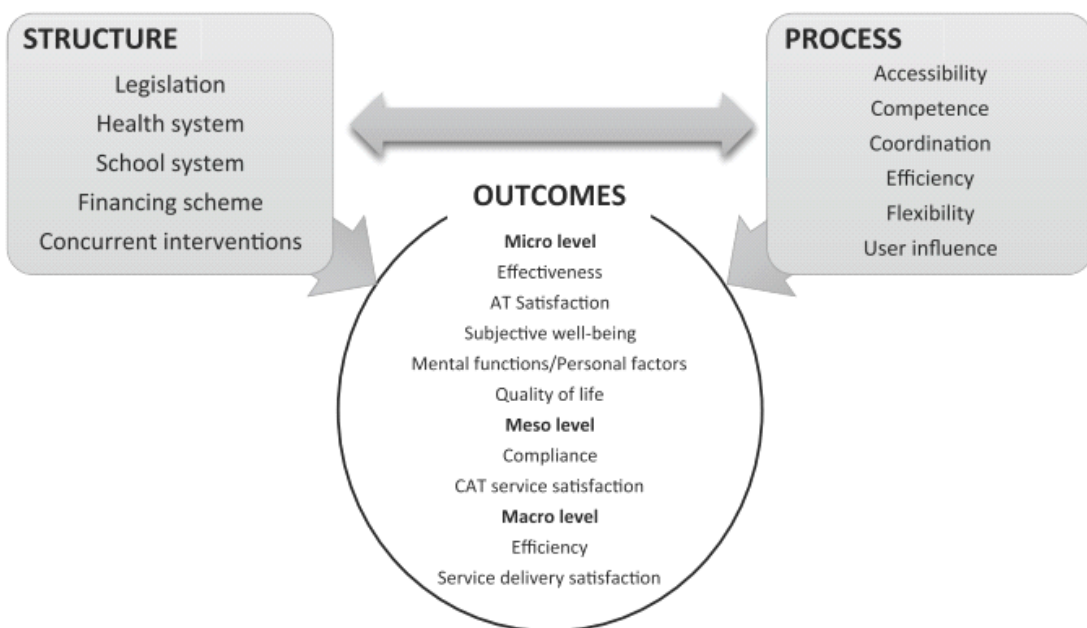
- Accessibility: 보조공학 서비스로의 접근성
- Competence: 이용자의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한 지식·기술·경험의 유무
- Coordination: 보조공학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 간, 서비스 간, 전문가 간 조정기능
- Efficiency: 저비용·신속성·행정축소 등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한 효율적 전달
- Flexibility: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유연성
- User Influence: 이용자의 참여와 의사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의 여섯 영역을 평가하기 위

해 KWAZO는 다음의 질문을 이용자에게 묻는다

- 당신은 항상 서비스 전달 전문가와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까?
- 지원절차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전달 전문가가 제공하는 해결방법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 다른 서비스 전달 전문가들간의 조정이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 서비스 전달 전문가들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 당신 지원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습니까?
- 당신의 의견과 바람이 보조기구를 선택하는데 고려되었습니까?
- 보조기구의 사용법을 잘 설명 받았습니까?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quality assessment(Desideri 외, 2013)는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평가요소에 보조공학이 지원·이용되는 환경적 고려 요소를 추가하여 보조공학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틀을 제시한다. 아래 <그림11>에서와 같이 보조공학을 통해 얻은 성과는 구조적 그리고 과정적 요소의 상관관계 안에서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으며 미시적·중시적·거시적 수준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assessment, 출처: Desideri et al. (2013, p.163)

구조(Structure)는 재원 정책, 보조기구와 관련된 법이나 학교 혹은 보건 당국의 정책, 현재 제공받고 있는 장애에 관련된 다른 서비스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장애에 대한 케어가 존재하는 환경적 요소를 의미한다.

과정(Process)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 여부, 가격적정성, 소요기간, 절차의 복잡성 등 보조기구에의 접근성(Accessibility)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교육수준, 추가교육 가능성, 표준화된 절차의 이용, 정보의 가용성 등 전문가 숙련도(Competence),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단계에 개입하는 서비스 전문가와 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Coordination), 절차와 규제의 복잡성,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제어, 가격과 효과를 제어하는 기제, 적합한 대상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 부여하는 절차의 효율성(Efficiency), 개인의 상이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의 유연성(Flexibility),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영 사용자 영향력(User influence)을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과정에 얼마나 잘 실천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성과(Outcome)는 우선 미시적 수준에서 이용자의 활동과 참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볼 때, 효과성, 보조기구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웰빙, 당사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기능과 개인적 요인, 보호자의 삶의 질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중시적 수준에서는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자의 보조기구 권고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거시적 수준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비용대비 효과성, 과정 전체에 소요된 모든 인력과 자원을 더한 사회적 비용 등의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

10년간 지속되어온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측정되지 않는 구조적 환경과 절차적 측면에서의 성과도 포함한다. 따라서 Desideri 외(2013)의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assessment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 측정에도 참고할 만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회 문제의 해결과 제도화 견인을 위한 민간 재단의 역할

지난 20년간 미국의 민간 기부자들이 교육, 공원관리, 도서관 등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분야에 기부한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Gazley, 2015). 이러한 기부 경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었던 과거에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와 민간 영역 사이에 한 가지 형태의 관계가 두드러졌던 과거에 달리, 시대와 환경이 복잡하게 변하며 상황에 따라 대립적으로, 보완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도 변하는 정부와 민간 영역 사이의 다층적 관계가 보다 쉽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Coston, 1998; Young, 2000).

2016년 ‘자선사업과 정부: 교차지점에서의 공공 문제 해결(Philanthropy and Government: Public Problem Solving at the Intersec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남가주대학 자선과 공공정책센터(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enter on Philanthropy and Public Policy)의 전국지도자 포럼(National Leadership Forum)에서 참가자들은 서로간의 파트너십과 역할에 대해 토론했고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었다. 첫째, 민간 재단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선도적인 과제에 기부를 주도하여 정부와 다른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디트로이트시의 부도로 인해 퇴직자 연금과 디트로이트 예술학교 존치가 문제되자 크리스거 재단(Krisge Foundation)은 8억16백만달러를 기부하여 디트로이트시의 투자가치를 상승시켰다. 둘째, 민간 자선단체들은 사회문제에 대해 의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옹호단체, 연구소, 컨퍼런스 등을 지원하며, 일부 정책의 채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용납할만한 방법으로 의회가 작동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민간 재단이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방점은 정부를 돕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구조적 불평등에 개입하도록 돕는데 있다(Zeiger, 2016).

위의 역할들은 전통적인 민간 재단의 역할을 하되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세금에 의존한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013년 의회의 예산승인 지연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연방정부 기관의 운영을 중

단하였다. 시민과 지역 자선단체들은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연방정부의 영양 프로그램 중단을 막기 위해 저소득 가정에 이유식과 분유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속을 위해 천만달러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영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재단이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와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된 공적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 재단의 역할은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민간 재단의 역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서비스의 제도화를 유도하거나 공공 제도의 부족분을 보완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있다(Head, 2013).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절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Weisbrod, 2009).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소수의 요구는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에 민간 재단의 선도성이 발휘가 되어 제도적 지원의 공백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민간 재단의 작동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민간 재단의 지원 우선순위는 모금의 편의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영국의 경우 어린이, 동물, 암, 구명보트 등이 인기있는 지원 요인이고, 제3세계 국가의 기아와 질병의 퇴치, 자연 재해로부터의 복구를 위해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모금 콘서트는 지원 규모가 크다. 반면, 장애인, 전과자, 학업중도 포기자에 대한 지원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인기있는 대상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편중 현상으로도 나타난다(Wilby, 2010). 미국에서도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지원은 그리 높지 않은데, 한 장애인권운동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미국문화 깊숙이 뿌리박힌 장애차별과 혐오때문이라고 지적한다 (Dickson, 2011). 장애문제는 외면하면서, 자원 접근에의 불공평성,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를 주장하는 민간 재단의 관심과 지원은 선택적이며 일관적이지 않다.

아름다운 재단은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삼았고, 보조기구 지원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여 일부 보조기구의 경우 제도화를 유도하였으며, 맞춤형 지원절차를 개발하여 정부와 민간 단체의 보조기구 지원에 모델을 제공하였다. 또한 민간 재단들이 선호하는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10년간 장기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는 데 기여하였다. 민간 재단으로서 아름다운 재단이 자원봉사나 기부를 장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원봉사나 기부는 존경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보다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기부문화가 활

성화된 사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보다 사회보다 더 우월한 사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민간 재단으로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사회 문제 발굴을 위한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한편으로는 정부로 하여금 사회 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재단은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4절 | 외부 환경 분석의 시사점

국내 보조기구 유관 사업의 분석과 함께 살펴본 지원 관련법·제도는 다양성과 함께 외형적으로는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에 있어서 수요 장애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6년 12월 중 시행됐기 때문에 향후 보조기구가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가 가진 한계들을 짚어보면, 첫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중복이나 누락 등 지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의 보조기구 지원제도와 사업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파편화된 정책은 보조기구관련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많은 불편을 준다. 특히, 서비스 제공, 생산·유통·사후관리 및 전문가 등의 측면은 통합된 체계를 갖추기까지 일정 기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조기구관련 서비스와 전달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면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일련의 전문화된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조기구와 관련한 전문 상담 및 평가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22.2%에 불과하다(김성희 외, 2014).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조기구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지자체 단위의 보조기구센터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고 정착화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확대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보조기구관련 법에 근거한 보조기구 공적 급여제도의 급여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급여수준이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대상 보조기구 품목은 각각 급여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고 기준액 이내의 품목에 대해 실구입가의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급여품목 기준액은 보조기구의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기준액의 9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가가 낮게 책정된 품목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강정배 외, 2016).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61.8%)과 적합한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의 부재(17.6%)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⁴⁾.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외부 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의 39.7%에 불과했다(김성희 외, 2014). 보조기구의 구입지원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의 수리지원이나 소모품 지원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종한 외, 2014)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고 정책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조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시도는 시의성과 적절성이 높은 판단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은 공공영역의 법, 제도,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조기구 수요에 대한 근거와 지원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민간영역의 지원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기구 지원에 수반되는 심사, 상담, 평가, 전달,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차원에 머물러있던 논의를 현실화하고 완성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체계를 수립하여 향후 공공영역으로 흡수되어야 할 보조기구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의 예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은 지원 사각지대의 발견 및 해소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의 선도 및 제시라는 면에서도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측정을 위한 프레임과 가이드라인을 얻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보조공학의 지원과 재원마련의 근거가 되는 보조공학법이 존재하고 다양한 관련법에서 보조공학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경로가 존재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보조기구 제조·판매자와 보조공학 센터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조공학의 이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관련 제도와 지원이 미비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획된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과 그 결과보고를 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대상 연령의 특성상 주로 학교의 특수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미국장애

4) 복수응답 결과

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근거하여 보조기구를 지원 받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고려사항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체계를 살펴 보았다.

보조기구와 서비스 지원의 국외사례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그 구조에 대한 단초를 구해볼 수 있다.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SETT에서와 같이 이용자, 환경, 과제, 보조기구로 영역을 구분하되, Framework for AT service delivery assessment (Desideri 외, 201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조적 환경과 전달과정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여 코네티컷과 조지아 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달 과정과 방법에 대한 지표, 그리고 사업의 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다음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구상할 수 있다.

□ 보조기구 지원

○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선택에 이용자의 욕구가 반영되었는가?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 이용자는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사용에 만족하였는가?

○ 환경적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선택에 환경적 조건이 고려되었는가?
- 물리적 혹은 심리사회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는가?

○ 과제의 측면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 보조기구의 측면

- 보조기구는 이용자의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가?
- 보조기구는 보조기구와 서비스의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 보조기구는 적절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서비스 전달체계

- 지원절차는 신속, 공정,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예산의 사용은 적정하였는가?
-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면적 평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적응 훈련이나 추가적인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였는가?
-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가?
- 지원이 종료된 후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는가?
- 이용자는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제도화

- 비용효율적인 보조기구의 제작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지원사업의 확산이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 지원사업의 확산이나 제도화가 이루어졌는가?

이와 같이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평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지원사업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원사업의 기획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는 아름다운재단과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원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보조기구 지원				전달체계	제도화
	이용자	환경	과제	보조기구		
과정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재단/센터	재단/센터
결과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재단/센터	재단/센터

<표 27> 보조기구 지원사업 평가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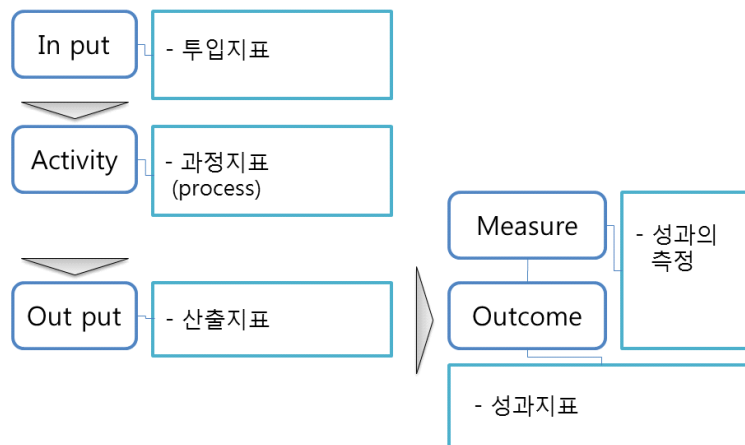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제 4 장 지원사업 성과 분석

제4장 지원사업 성과 분석

이번 장에서는 10년 간 수행되어온 ‘맞춤형 지원사업’이 그 동안 어떤 성과와 의의를 거두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성과란 이루어낸 결실을 의미하는 단어로 개인 또는 조직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이 지향하는 임무 또는 목적을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재정사업에서는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효과성과 효율성, 경제성의 3가지 성질 측면에서 성과를 검증하기도 하고, 사업 수행의 단계에 따라 투입(input)지표, 과정(process, activity)지표,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로 구분하여 검증하기도 한다(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그림 12> 성과지표 체계의 기본 개념

‘성과’의 개념은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로부터 인용할 수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란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체도로 해당 기관이 추진해야 할 임무·비전(미래상)과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목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지표와 해당 지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정책, 자원배분, 인사·조직관리 등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

까지 공공·비영리영역에서는 성과의 측정이 단순한 투입, 과정, 산출 지표로 주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 투입, 과정, 산출 지표가 당초 사업이 추구하려고 했던 성과의 달성여부를 적절히 확인시켜줄 수 없고, 비효율적 투입 증대에 따른 산출실적의 양적 성장이 사업성과에 대한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결과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출 향상이나 경제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달리 인간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의 특성 상 사업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했다는 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직접적인 적용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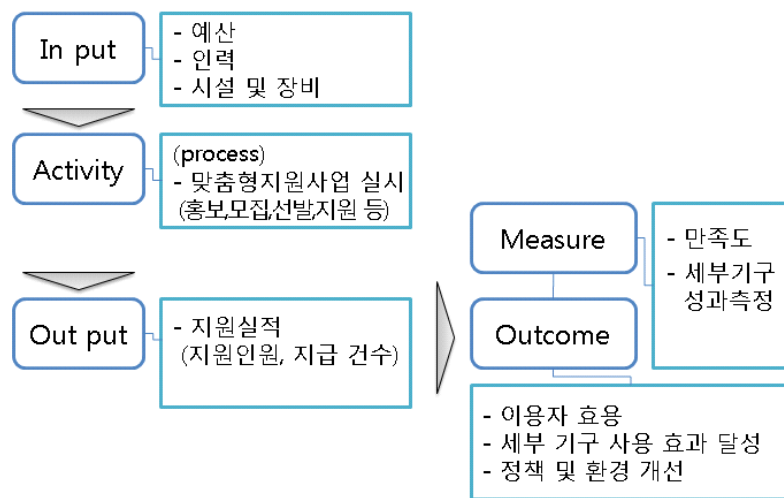
<그림 13> 성과관리 체계의 구성요소(출처: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사업의 발전과 효율성·효과성의 촉진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의 기획 취지와 수행 기관의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최선의 사업이 수행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성과 관리체계의 개념을 준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성과 분석의 프레임 설정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성과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명시된 성과를 지표화 시켜서 측정하기 위한 틀(frame)의 구성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의 개념에 입각한 성과 지표의 개념을 활용하면,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개념은 다음 <그림14>와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14>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개념

앞서 살펴본 사업개요와 현황에서는 ‘In put’과 ‘Activity’에 해당하는 ‘예산, 지급된 보조기구, 사업의 수행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면, 본격적으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장에서는 ‘Out Put’과 ‘Outcome’을 확인해야 한다. ‘Out put’은 다소 양적 실적의 개념으로 현재까지 수행된 사업의 규모와 그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Outcome’은 사업이 사례자 개인과 사회에 실제로 끼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측정을 위한 지표가 필요한데, 본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지원받은 보조기구 활용에 따른 효과성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성과 확인을 위한 지표 개념의 설정을 위해 앞 장에서 국내 및 해외의 유관 사업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에서는 아직까지 참고할만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상태였고, 해외 자료의 분석을 통해 ‘보조기구 지원에 대한 평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 지원

사업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과정(노력)과 결과(달성)'의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를 산출지표에 입각한 '사업 수행의 양적 성과'와 질적수준과 성과지표에 입각한 '이용자 만족 수준 성과', 그리고 환경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보는 '사회적 성과'의 3가지 프레임으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한다.

당초 기획된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행취지는 '보조기구 활용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학령기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부여,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생활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과관리 체계의 관점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는지'와 '신체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부여, 사회참여 등을 통해 얼마나 자립적인 생활이 유도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성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의 기대효과에서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개별적인 지원 시스템 개발과 한국적 지원 모델 제시, 향후 정부 보조기구 지원사업 확대 기반 마련'을 기대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개인의 활동지원 측면'과 '한국사회에 모델을 제시한 측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친 측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경기도센터의 결과보고 자료에서는 이러한 성과관리 측면의 결과를 아래 예시와 같이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다.

예시) 2016년도 사업 결과보고 중 '사업목표 및 성과' 부분

2. 사업목표 및 성과

1) 사업목표

사업목표	성과지표	결과	비고(미진행시 사유 등)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함 및 활동 지원	- 지원 인원 - 대상자별 지원 품목 - 대상자 및 보호자 만족도	- 총 214명 지원 (추가 지원 대상자 44명 포함) - 총 248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 만족도 → 4.45(5점 만점) - 지원 서비스 만족도 → 4.65(5점 만점)	보조기구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협상, 계약 과정 중 예산 절감을 통해 44명 추가 지원

<p>지역사회 보조기구 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지역 및 지원 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지원 인원 - 기관관리(상시관리, 오리엔테이션, 최종평가회 등) - 수행기관 워크숍(수행기관 중간평가회) - PILOT 현장평가, 사용자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외 9개 지역 총 214명 지원 - 수행기관 OT, 최종평가회 등 각 1회 실시 - 수행기관 중간평가회 1회 실시(상반기 사업 평가, 하반기 발전 방안 모색 등) - PILOT 현장평가 : 광주, 경남센터 실시(총 7건 참관) - PILOT 사용자 교육 지원 : 경남센터 실시(총 4건 참관) - 그 외 사업 제반 양식 개발 및 수행기관(7곳) 공유 및 상시 교육, 안내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참여기관(경남) 대상의 PILOT 현장평가, 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상시 소통을 통한 사업 추진과정, 결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실시
--	---	---	--

2) 사업성과(사회적 영향력 및 기여도)

- ▶ 지원 품목 변경 및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보조기구 수요자의 관심 집중. 작년 신청·접수 대비 1.9배 증가. 이는 본 사업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의 보조기구 욕구를 반영한 결과

(단위 : 명)

구분	지원예정인원	현장평가인원	접수인원(전년대비)	15년접수인원	비고
ATRAC	55	82	263(239%)	110	사무국
광주센터	20	30	56(175%)	32	입찰기관
부산센터	20	30	38(127%)	30	
경남센터	15	22	21	-	비입찰기관
대구센터	15	22	26(130%)	20	
대전센터	15	22	39(177%)	22	
인천센터	15	22	51(255%)	20	
충북센터	15	22	32(89%)	36	
합계	170	252	526(195%)	270	-

- ▶ 지원한 보조기구와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 품목 선정, 사업 협력기관의 보조공학 전문성이 반영된 결과
 - 보조기구 만족도 : 4.5(5점 만점), 보조기구 서비스 만족도 : 4.7(5점 만점) / QUEST 2.0 기반

이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단년도 성과를 넘어 사업기간 전반의 수행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제안한 프레임을 적용하여 사업 성과를 확인하였다.

성과 분석 프레임에 따른 성과의 확인은 경기도센터가 발행한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토대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수혜자(부모), 수행기관(경기도센터, 아름다운재단, 협력수행기관 관계자, 납품 업체), 유관사업수행기관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적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 | 지원 사업의 성과

1. 사업 수행의 양적 성과

10년간 수행된 사업의 총량을 기술하면 지원 인원 1,087명에게 총 1,460개의 보조기구를 전달하였다. 여기에 투입된 결산액은 총 25억3,845만6천원수준인데, 이 금액은 당초 계획된 예산인 25억7,076만원의 약98.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집행된 결산액 중 보조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총 23억3,609만4천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92%가 기구 지원에 사용되고, 8%가 행정·관리 비용으로 집행되었다.



총 25억3,846만원을 투입해서



총 1,087명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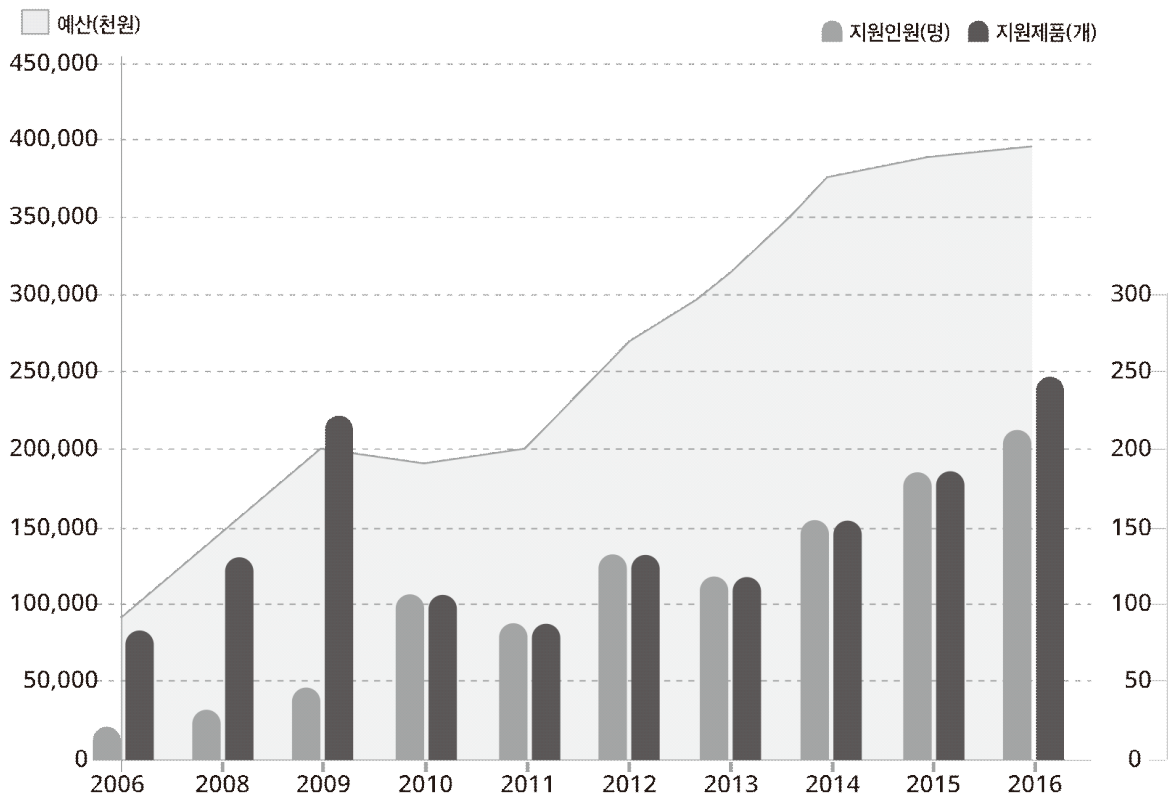
총 1,460개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보조기구 구입에 집행된 23억3,609만4천원을 지원인원 1,087명으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약 215만원 수준의 보조기구가 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지원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던 사업 초창기인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412만원에서 450만원 수준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다가, 지원 품목을 선정한 2010년 이후에는 약 200만원 전후로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구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지원제품 (개)	82	130	222	105	86	131	116	154	186	248	1,460	
지원인원 (명)	20	30	45	105	86	131	116	154	186	214	1,087	
예산 (천원)	기구 구입	82,500	135,000	199,500	182,000	188,000	248,000	295,000	328,925	338,918	339,061	2,336,904
	집행	90,000	145,960	200,000	191,995	199,992	267,605	313,238	354,673	381,369	393,644	2,538,476
	계획	90,000	145,960	200,000	192,000	200,000	267,900	313,360	377,010	388,540	395,990	2,570,760
1인평균 (천원)	4,125	4,500	4,433	1,733	2,186	1,893	2,543	2,136	1,822	1,584	2,150	

<표 28> 맞춤형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수행 실적)

사업이 수행된 10년 동안의 예산과 지원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5>와 같이 연간 지원예산 수준은 초기에 비하여 약 4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예산 규모가 정채되었던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가파른 수준의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그림 15> 연차별 예산 및 지원규모 변동 추이

지원 인원도 정체와 소폭 감소가 있었던 2010년부터 2013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초기에 비해 10.7배 가량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용자 만족 수준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사업의 양적성과를 구성하는 실적 외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질적 지표는 이용자의 만족 수준과 보조기구 사용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 기획된 취지에 입각한 성과의 개념을 ‘얼마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는지’와 ‘신체능력 향상과 학습기회 부여, 사회참여 등을 통해 얼마나 자립적인 생활이 유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 축적되고 수집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사업 수행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1회차와 2회차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량적 만족도 조사가 아닌 지원자 사례집을 통해 정성적 사용 효과를 기록했다.

예시) 2006년도 지원자 사례 소개 중 보조기구 지원 효과 기술 내용(조OO_14세, 지체장애1급)

□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효과

- 전동휠체어(모델명 : Meyre allround903)

전동휠체어를 지원받기 전에는 보호자가 수동휠체어를 전적으로 밀어 이동해야 했으나, 전동휠체어 지원 이후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자의 노동 강도가 감소되었음. 또한 사용자의 기동성이 확보됨으로써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성이 좋아짐

- 맞춤형 자세보조기구(이너)

맞춤형 자세보조기구(이너) 없는 상태에서 앉는 자세가 가능하나 장시간 착석이 어려움. 자세유지기구에 몸을 지지한 상태에서 휠체어에 앉으면 장시간 유지할 수 있으며, 둔부에 통증이 감소되어 편안함. 아침에 등교하여 오후까지 학교생활이 가능한 것은 자세유지기구를 통해 바른 자세,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앉아 있기 때문에 가능함

- 이동식리프트(모델명 : Hoyer Lifter)

리프트 지원 전에는 바닥에서 휠체어 등으로의 이동을 보호자가 전적으로 안아서 해야 했으나 아동의 성장(특히 체중 증가)에 따라 그것이 점점 불가능해졌음. 현재는 리프트를 사용함으로써 적은 힘과 노력으로 휠체어에 탑승시켜줄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이 안아서 이동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음

사례자 소개를 중심으로 결과보고자료를 작성하는 방식은 지원받은 장애아동과 청소년 전원의 스토리를 개인별로 제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원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 2010년도 이후에는 제작과 내용 확인이 어렵고 기술된 내용의 객관적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센터는 3회차인 2009년도부터 이용자 사례소개와 함께 지원자들의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사업’의 연차별 성과를 만족수준과 보조기구 활용 효과 중심으로 확인해본다.

1) 연차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사업 수행 기간 중 만족도 조사 방식은 크게 4차례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에는 만족도와 보조기구 활용 효과를 직관적으로 질문하는 자체 개발 설문 형태의 조사가 수행 되었고, 2010년도에는 보조기구 만족도 조사 척도인 QUEST2.0(Qu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와 지급 사례자들의 보조기구 활용 효과성 대한 단일사례자 조사연구가 병행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품목별 기기 사용전후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하는 별도의 설문 양식을 개발하여 연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다 2015년과 2016년도에는 2010년과 동일한 QUEST2.0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2009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2009 조사 대상 개요	
지역	경기도 23명 서울특별시14명 인천역시1명
성별	남성21명 여성17명
사업 경위	홈페이지를 통해 34.2% 복지시설을 통해 28.9%, 주변지인이 알려줘서 26.3%

만족도 및 보조기구 효과성		
1. 보조기구 및 수행업체에 대한 만족도 (3.8점/5점)	매우 만족 26% 대체로 만족 42% 보통 24% 매우 불만족 5% 대체로 불만족 3%	
2.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4.6점/5점)	매우 만족 66% 대체로 만족 32% 보통 2%	
보조기기 받기 전 불편 정도	매우불편 71.1%, 조금 불편 21.1%	
3. 보조기구 효과성	1)기능향상 (4.2점/5점)	일부향상 57.9%, 많이향상 28.9%, 보통 13.2% 착석 및 기립보조기구 사용으로 누워만 지내던 대상자가 앉거나 설 수 있는 기능적인 동작이 가능해졌다
	2)일상생활 변화 (4.4점/5점)	일부 향상 50.0% 많이 향상 47.4% 보통 2.6%
	3)심리적인 변화	보통 이상 변화 94.5%
	4)사회활동 변화	보통 이상 변화 94.8%
	5)보호자 보호수준	전체 응답자 보호자 부담 감소 이동, 착석, 목욕, 식사, 치료 등 부분의 영역에서 보호자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했던 부분이 보조기구로 대신하게 되었다.
발전방향		
1. 사업 확대를 위한 사항	대상층 확대 32% 지역 확대 26% 비용확대 26%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 방법 확대 8% 서비스 내용 확대 5% 기타 3%	
2. 기존 보조기구 사업 대비 만족도	기존 보조기구 지원 사업 불만족이 50.0%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만족도 100%	

<표 29> 2009년도 사업 만족도 결과

계량화된 만족도 지표가 처음 적용된 2009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

한 만족도가 4.6점으로 매우 만족(5점)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고, 보조기구를 받기 전 불편 수준에 ‘매우·조금불편(92.2%)’이 대부분이었던데서 ‘기능이 일부·많이 향상’된 응답자가 86.8%, ‘약간 좋은편’을 넘어선 4.2점 수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0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2010년도		
총 대상	99명	
지역	경기 55.6% 서울 41.4% 인천 3%	
성별	남 58.6% 여 51.4%	
장애유형	뇌병변 85.9% 중복장애 6% 지체장애 4% 지적장애 2%	
보조기구 만족도	규격	4.05점/5점
	무게	3.94점/5점
	설치 고정 용이성	4.28점/5점
	안전성	4.51점/5점
	내구성	4.59점/5점
	사용 용이성	4.25점/5점
	안락	4.48점/5점
	효과성	4.26점/5점
서비스 만족도	전달	3.99점/5점
	유지관리 서비스	4.22점/5점
	전문가 서비스	4.63점/5점
	사후 서비스	4.12점/5점

<표 30> 2010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QUEST 2.0지표를 활용한 2010년도의 조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가 4.26점으로 ‘약간 만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4.63점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3) 2011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문항	연도	2011
품목별 지원 현황	기립-수직형	0
	기립-전방형	8
	기립-후방형	12
	리클라이닝	12
	틸팅의자	34
	보행훈련	0
	기립-이동형	20
	합계	86
지역별 지원 현황	서울	15
	경기	54
	강원	0
	부산	0
	인천	1
	대구	0
	광주	0
	울산	0
	충청	16
	합계	86
	성별 현황	남자
여자		39
합계		86
연령별 지원현황	5-10세	45
	11-15세	33
	16세 이상	8
	합계	86
보조기구 만족도	기능	4.1
	작동방법	4.2
	재질	4.0
	디자인	3.9
	사용 용이성	3.9
	안전성	3.8
보조기구 사용 효과성	심리적 변화	4.1
	신체적 기능 변화	4.0
	사회적 상호작용	3.7
보호자의 노동강도 감소		4.1

<표 31> 2011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조사지표가 변경된 2011년도에는 보조기구의 사용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세분화 하여 질문했는데, 심리적 변화가 4.1점, 신체적 기능변화가 4.0점, 사회적 상호작용이 3.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약간만족' 수준에 가까운 수치인데, 사회적 상호작용 지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주된 지원품목이 실내 거주공간에서 활용되는 착석 및 기립보조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2012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문항	연도	2012
품목별 지원 현황	기립-수직형	0
	기립-전방형	28
	기립-후방형	12
	리클라이닝	17
	틸팅의자	58
	보행훈련	0
	기립-이동형	16
	합계	131
지역별 지원 현황	서울	0
	경기	101
	강원	0
	부산	0
	인천	0
	대구	15
	광주	0
	울산	15
	충청	0
	합계	131
성별 현황	남자	80
	여자	51
	합계	131
연령별 지원현황	5-10세	65
	11-15세	34
	16세 이상	32
	합계	131
보조기구 만족도	기능	4.4
	작동방법	4.5
	재질	4.5
	디자인	4.4
	사용 용이성	4.7
	안전성	4.4
보조기구 사용 효과성	심리적 변화	4.0
	신체적 기능 변화	4.0
	사회적 상호작용	3.9
보호자의 노동강도 감소		4.1

<표 32> 2012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지원 품목과 조사지표가 전년도와 동일한 2012년에는 만족도 조사결과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사용의 효과성에서 심리적 변화가 전년도보다 0.1점 감소한 4.0점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기능변화는 전년도와 동일한 4.0점, 사회적 상호작용은 전년에 비해 0.2점 증가한 3.9점으로 나타났다.

(5) 2013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문항	연도	2013
품목별 지원 현황	기립-수직형	0
	기립-전방형	47
	기립-후방형	26
	리클라이닝	0
	틸팅의자	0
	보행훈련	15
	기립-이동형	28
	합계	116
지역별 지원 현황	서울	0
	경기	86
	강원	0
	부산	15
	인천	0
	대구	15
	광주	0
	울산	0
	충청	0
	합계	116
성별 현황	남자	68
	여자	48
	합계	116
연령별 지원현황	5-10세	
	11-15세	
	16세 이상	
	합계	116
보조기구 만족도	기능	4.4
	작동방법	4.3
	재질	4.3
	디자인	4.0
	안전성	4.2
보조기구 사용 효과성	신체적 기능 변화	4.0
	사회적 상호작용	3.8
	감각 지각 능력	3.8
	욕구충족	4.1
	인지 및 학습	3.7
	관절 운동범위	4.1
공급업체		4.3
보호자의 노동강도 감소		4.2

<표 33> 2013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2013년도에는 조사지표 중 보조기구 사용 효과에 ‘심리적 변화’가 제외되고, ‘감각지각능력, 욕구충족, 인지 및 학습, 관절 운동 범위’ 항목이 추가되었다. 사용효과성을 대표하는 신체적 기능변화와 욕구 충족의 수준은 4.0점에서 4.1점 수준으로 긍정적인 편에 해당하는 만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6) 2014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문항	연도	2014
품목별 지원 현황	기립-수직형	24
	기립-전방향	38
	기립-후방향	40
	리클라이닝	0
	틸팅의자	0
	보행훈련	19
	기립-이동형	33
	합계	154
지역별 지원 현황	서울	17
	경기	65
	강원	10
	부산	20
	인천	9
	대구	0
	광주	20
	울산	0
	충청	13
	합계	154
연령별 지원현황	5-10세	83
	11-15세	40
	16세 이상	31
	합계	154
보조기구 만족도	기능	4.4
	작동방법	4.3
	재질	4.4
	디자인	4.3
	안전성	4.4
보조기구 사용 효과성	신체적 기능 변화	4.1
	사회적 상호작용	3.8
	감각 지각 능력	3.7
	욕구충족	4.0
	인지 및 학습	3.6
	관절 운동범위	4.1
공급업체		4.3
보호자의 노동강도 감소		4.4

<표 34> 2014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2014년도에도 2013년도와 동일한 만족도 조사지표가 적용되었는데, 신체적 기능 변화가 0.1점 향상된 4.1점, 욕구충족이 0.1점 감소한 4.0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긍정적인 편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7) 2015년도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2015년도		
총 대상	186명	
지역	경기 48명 서울 26명 광주 23명 부산 21명 충청 20명 인천 17명 대구 16명 대전 15명	
성별	남 53명 여 83명	
장애유형	뇌병변 장애 (143명) % 중복장애 (9명) % 지체장애 (34명) %	
보조기구 만족도	규격	4.5점/5점
	무게	4.2점/5점
	설치 고정 용이성	4.5점/5점
	안전성	4.5점/5점
	내구성	4.5점/5점
	사용 용이성	4.5점/5점
	안락	4.4점/5점
	효과성	4.6점/5점
서비스 만족도	전달	4.5점/5점
	유지관리 서비스	4.6점/5점
	전문가 서비스	4.8점/5점
	사후 서비스	4.7점/5점

<표 35> 2015년도 사업만족도 결과

2015년도에는 QUEST 2.0을 활용한 만족도 지표가 다시 활용되었다. 보조기구 활용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4.6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가 서비스’ 또한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지표가 적용되었던 5년 전 2010년도 결과와 비교해도 약 0.2점에서 0.4점 정도가 향상된 수준으로 확인된다.

(8) 2009년도~2015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변동 추이

만족도 조사 기법의 연속성과 지원 품목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하여 연속성 있는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사·동일한 지표들에 대한 점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연차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대비해 보았다.

문항	09년 (점)	문항	10년 (점)	영역	문항	11년 (점)	12년 (점)	13년 (점)	14년 (점)	15년 (점)	문항
기구 및 수행업체 만족	3.8	규격	4.05	보조 기구 및 사용 효과성	기능	4.1	4.4	4.4	4.4	4.5	규격
		무게	3.94		작동방법	4.2	4.5	4.3	4.3		
		설치고정용이성	4.28		재질	4.0	4.5	4.3	4.4	4.5	설치고정용이성
		안전성	4.51		디자인	3.9	4.4	4.0	4.3		
기능향상	4.2	내구성	4.59		사용 용이성	3.9	4.7			4.5	내구성
		심리변화	4.1		4.0			4.5	심리변화		
		신체기능변화	4.0		4.0	4.0	4.1			4.5	신체기능변화
일상생활 변화	4.4	사용용이성	4.25		사회상호작용	3.7	3.9	3.8	3.8		
		안락	4.48		감각지각능력			3.8	3.7	4.4	안락
		효과성	4.26		욕구충족			4.1	4.0		
		인지 및 학습			3.7	3.6	4.6	인지 및 학습			
사업 만족도	4.6	관절운동범위			4.1	4.1					4.5
		전달	3.99	서비스 만족 등	공급업체			4.3	4.3	4.5	
		유지관리서비스	4.22		보호자	4.1	4.1	4.2	4.4		4.6
		전문가 서비스	4.63		노동감소					4.8	
사후 서비스	4.12							4.7	사후 서비스		

<표 36> 사업 만족도 수준의 연차별 비교

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의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수준을 의미하는 4.0에 가까운 높은 만족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항목 간의 만족도 값은 사업이 지속되면서 향상되고 있다. 사업만족도의 경우 2009년도에 4.6점에서 2010년에는 4.63점(전문가서비스), 2015년에는 4.8점까지 증가하였고, 기구 사용에 따른 효과성도 2009년도 4.2점(기능향상)에서 2010년에는 4.26점(효과성), 2015년에는 4.6점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지표로 비교된 2011년에서 2014년까지도 신체기능변화나 심리변화, 욕구충족의 수준이 4.0점에서 4.1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와 지원된 보조기구의 활용효과를 토대로 분석된 사업 성과는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사회적 성과와 의의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의 세 번째 영역은 정책 및 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한국사회에 모델을 제시한 측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친 측면’에서의 성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0년간 센터가 발행한 사업결과보고서 중 사회정책적인 효과를 기술한 내용들을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해 보았다.

연도	사회적 성과(사회적 영향력 및 기여도) 관련 진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품목 변경 및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보조기구 수요자의 관심 집중. 작년 신청·접수 대비 1.9배 증가. 이는 본 사업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의 보조기구 욕구를 반영한 결과 - 사업 제반 양식 개발 및 수행기관 공유 (신청서, 현장평가기록지, 지원 및 사용자 훈련 확인서, 만족도 조사지, 사용실태 조사지 등) - 수행기관 상시 및 집중 교육 실시(현장평가, 보조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 등) - 사업 오리엔테이션 추진 - 전문가 간담회 논의 사항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 국내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 지역사회 보조기구 지원 사업 확대 및 보조기구센터 네트워크 구축 • 민간 배분사업의 新영역 구축 및 모델화 • 공급자(업체) 역할 정립 및 동반 성장 • 사업 타이틀 유지와 변화, 새로운 형태의 사업 시도 등 고민이 필요한 시기 • 소외 영역인 장애인 여가·레저·성(性) 등과 관련된 보조기구 지원 • 지원 대상인 장애 아동·청소년은 유지하되 3D 프린터를 활용한 보조기구 맞춤형 제작 사업 • 보조기구 지원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여년전 보조기구 서비스 현장은 매우 척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중략)그러던 중 아름다운재단과 좋은 인연이 닿았고, 2006년부터 민간 기금으로는 처음으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업이 다른 보조기구 지원 사업과 다른 점은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이라는 단어는 보조기구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지원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애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기능과 보

	<p>조기구 사용 환경을 평가하고 기구 지원에 따른 사용자 훈련, 사후관리 등 보조공학적 접근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민간 기금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보통의 보조기구 또는 물품 지원 사업의 경우 단일 품목을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업은 보조기구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타 보조기구 지원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음
<p>20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정화 : 다년간의 사업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정착 및 안정화 되었으며 8차년도 연속사업으로, 보행훈련 보조기구의 2차년 지원, 경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직 기립 보조기구를 새로이 추가함. 아동들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함은 물론 기구 지원을 통해 욕구를 해결함 - 지역별 협력 프로세스 구축 강화 : 총괄 및 주관기관인 ATRAC을 중심으로 광주·부산 지역은 협력기관, 강원·인천·충청 지역은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현장평가 지원, 자체 교육 등의 기관 인큐베이팅과 PILOT 현장평가·사용자 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공유함에 따라 각 기관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p>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안정화 및 정례화 달성 : 신청접수-현장평가 및 최종심사-보조기구 납품 및 사용자 훈련-사후관리와 같은 전문 보조공학 서비스를 접목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7년동안 수행해 오면서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으며,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례화를 달성 - 생애주기에 맞춘 새로운 보조기구 지원 도입 - 보행훈련 보조기구 : 특히 올해의 경우, 생애주기별 기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동발달 단계 중 가장 상위 단계인 보행훈련 보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연속성을 제고. 실제 보행훈련 보조기구의 경우 최종 15명을 선정하였으나 53명이 신청·접수를 하였음. 새로운 보조기구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지원 이후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지역적 인프라를 통한 보조기구 지원 지역 확대(대구, 부산) : 충청지역의 사업 지역 확대 이후 전국 지역 중 장애 아동·청소년 인구수, 전문 보조공학서비스 기관 운영 여부와 외부 지원사업 수행경험 등을 파악하여 사업 협력 지역으로 대구광역시(2차년 사업수행), 부산광역시(1차년 사업수행)를 지정
<p>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급여 지원품목 확대의 근거 마련 : 장애아동·청소년의 자세유지 보조기구에 대한 높은 욕구는 본 사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으며, 사업의 높은 효과성과 결과는 공적급여 품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실제로 2013년 10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맞춤형 자세유지 인너’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됨

<p>2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구 지원 소외지역을 포함한 사업 지역 신규 확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권)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본 사업을 예산 확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기구와 지원사업 등 정보 접근이 취약한 지역(충청도)을 시범적으로 지정 및 확대함으로써 he지자체에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선례를 마련하고 보조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 새로운 보조기구 지원 도입 - 이동형 기립 보조기구 :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본 사업에 있어 학교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해 자세유지 보조기구와 이동성이 접목된 ‘이동형 기립 보조기구’를 신규 지원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구 지원품목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으로 높은 만족도를 가져옴
<p>2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방식 및 지원품목의 변화 (선(先) 보조기구→후(後) 대상자) : 3년간 진행해온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령기 장애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가 ‘자세유지 영역(앉기, 서기)’으로 치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보조기구가 수혜될 수 있도록 다품목 지원이 아닌 맞춤형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특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화됨 -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병행 :학령기 장애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특성화한 사업으로 보조기구 지원 이후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물론 ‘착석과 기립 보조기구의 사용이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기능적 효과’를 외부 자문위원과 전문 평가도구를 통하여 연구를 병행함. 보조기구의 효과성을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보조기구 지원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근거 자료 마련
<p>2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에 있어 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도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기구 지원이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및 처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모범적 선례 마련 : 매해 진행해온 본 사업이 학습기회 향상,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달성 등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맞춤형 보조기구의 효과성이 입증됨으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외부 언론기관 및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 이에 아름다운재단 및 본 센터의 대외적인 이미지 고취와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일조함
<p>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 : 1차 사업의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보조기구가 수혜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상자들의 접수를 또한 1차 사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짐 -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정착 :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 장애인과는 다르게 성장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가 달라지며, 장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영역의 보조기구 사용이 요구되는 시기임.

	<p>이에 본 사업은 1차 사업부터 ‘학령기 장애아동’을 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매해 학령기 장애아동을 위한 특성화된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p>
<p>20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 기존의 획일화된 보조기구 교부방식을 탈피하여 장애 유형을 파악하고 신체 기능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구를 맞춤형으로 지원. 1:1 전문 보조공학 서비스 과정(상담 및 평가 - 현장평가-기구 지원 및 사용자 훈련-사후관리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기구활용도와 효과성 측면에서도 높은 만족도 성취. - 전문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기관을 통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실시 : 기존의 장애인관련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온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문 보조공학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조기구 지원 가능 - 민간자원 발굴 및 공적급여 품목 확대를 위한 기초 마련 : 국내의 보조기구 지원 체계는 열악한 상황으로 공적급여 품목의 제한으로 다양한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하지만 지체 및 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보조기구의 접근이 필요함. 이에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구의 지원은 정부의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되는 품목 및 지원한도 금액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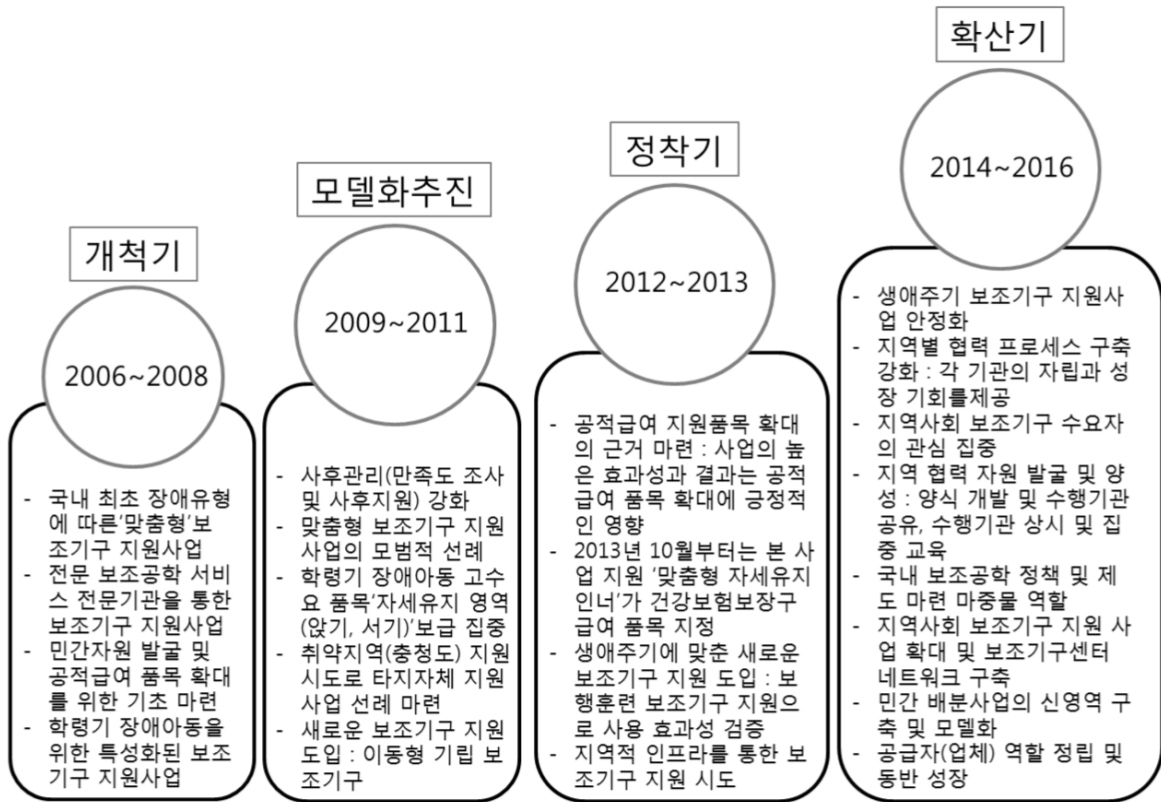
<표 37> 맞춤형 지원사업 연차 결과보고의 사회적 성과 진술

‘맞춤형 지원사업’의 사회적 성과 키워드를 시기에 따라 재분류하면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 2회차가 수행된 2008년까지는 ‘최초의 맞춤형, 전문기관을 활용한 최초의 민간지원, 학령기 대상자 특성화’와 같은 ‘새로운 영역 발굴과 개척’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업의 체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연구 실시와 지원 대상 품목의 선택과 집중, 타지역 확산 가능성 시험’ 등의 ‘사업 모델화 추진 시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도에는 ‘사업 정례화와 안정화’의 키워드와 함께 ‘자세유지 기구의 공적급여(건강보험 보장구급여 등) 제품 포함을 통한 제도·정책적 성과 달성’, ‘전국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 인프라의 발굴’노력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역의 서비스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개발된 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시도되었다.



<그림 16>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시기별 주요 사회적 성과

<그림16>과 같이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에 학령기 장애아동의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 모델을 개척하고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수요가 집중되는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의 주요 품목을 발굴하여 활용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국가제도에 관련 품목의 보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보조기기 서비스 기관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기술 전수 등의 노력을 기울여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면접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양적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요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센터와 각 시도 보조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은 수혜자 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구 국내 최초의 지원 사업으로서 언급한 두 주체 이외에도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장애 아동 청소년, 보조기기를 수입·제작하는 보조기구 공급자가 직접적인 이해의 당사자로 참여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선행 모델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지원의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가지고 시작하였다. 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이해 당사자가 단순한 공여자나 수혜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라는 현상의 과정과 차원을 감안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전략을 도출해 내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심층면접은 본 연구와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표집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수혜자는 지원받은 보조기구의 종류, 시기,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 있는 연구 참여의 대상을 좁혔고, 이 중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적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혜자의 보호자가 선정되었다.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수행주체인 경기도재활공학센터의 사업 담당자와 보조기구 수입·제조 업체 한 곳의 실무자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아름다운재단 사업 실무자와 ‘맞춤형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참여 주체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실무자와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경기도재활공학센터에서 진행한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의 자료도 본 연구에 참고하였다.

구분			소속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참여자 1	보호자	
	연구참여자 2	보호자	
	연구참여자 3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경기도재활공학센터
	연구참여자 4	사업수행기관 관리자	경기도재활공학센터
	연구참여자 5	보조기구 공급업체 실무자	○○○○
심층 인터뷰	연구참여자 6	지원기관 실무자	아름다운재단
	연구참여자 7	유관기관 실무자	○○○
간담회	연구참여자 8	외부전문가	○○대학 재활공학과
	연구참여자 9	외부전문가	○○시 보조기구센터
	연구참여자 10	외부전문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표 38> 인터뷰 참여자 현황

2016년 11월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1회, 심층 인터뷰 2회,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약 60~150분이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녹취록으로 변환하였고 기록자료와 통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문화기술적 분석 단계(Spradley, 1979)를 적용하여 영역분석을 시행한 후 분류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된 범주는 다음과 같다.

상위범주	중위범주	하위범주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선발과 지원절차의 신뢰성	-
	대상기준 완화	-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
	제조업체의 서비스 진화 및 동반 성장	-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지원사업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상 확대의 가능성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입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보조기구	보조기구의 내구성 및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
		새 제품 개발시 사용자와 보호자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애프터 서비스 개선
	환경 개선	보조기구 보급과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기반 조성
		사회적 인식개선
	성과의 공유	성과의 도출
		성과의 홍보

<표 39> 초점대상인터뷰(FGI)결과의 범주별 분류

2)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①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키워드: 맞춤형 보조기구, 장애의 양상, 환경적 특성 반영

연구참여자들의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언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였다. 특히 수혜자의 입장에서서는 같은 장애를 가지더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장애의 양상을 감안한 보조기구의 지원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정말 아이들이 특성이 다 틀려요. 뇌 구조가 틀리니까, 뇌 어디가 손상을 받아서 어쩔다.

이런거는 우리 그 MRI 판독하는 것도 성향도 다 틀리잖아요(연구참여자 1)

정해진 품목을 신청해서 지원받는 기존의 보조기구 지원사업과는 달리 개인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보조기구가 소개되고 그 중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정 및 개조하여 지원되고,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기구가 잘 활용되어 신체 기능이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 그 만족도가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뇌병변 장애.. 흔들림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거 쓰고 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할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운동기구랑 같이 저희아이는 되는거거든요. 왜냐면 다리가 완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밖에 앉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요. 거기 앉았을 때만 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 썼어도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만족해요(연구참여자 2).

② 선발과 지원절차의 신뢰성



키워드: 심사와 지원, 객관성, 신뢰성



연구참여자들은 서류심사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기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은 솔직히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좀 봤을 때 너무 서류상으로만 사진으로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연구참여자 1).

하지만 ‘맞춤형 지원사업’은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방문심사를 통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심사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선정 절차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 품목을 결정하고 개인에게 기구를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을 거치는 다단계 지원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것을 아동 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특징점으로 꼽았다.

대상자의 신청을 직접1차 방문(케이스 매니지먼트)을 하고, 가서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업체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는 1차 한 번 더 갑니다. 그 대상을 보고 재고, 안되는 부분은 가서, 이 사업의 1차에서 더 가서 한 번 가서 스탠드 잡고, 또 갑니다. 두 번

정도 가서 이 사업의 특 장점은 아름다운 맞춤형은 보호자를 위해서 가고, 대상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가고, 센터에서 한 번 가고 업체에서 가고 납품할 때 또 업체와 센터가 가고 거기서 또 안 맞으면 또 갑니다. 업체만 따로 가고, 그 업체에 가서 맞는지 해피콜을 양쪽에서 하고, 이런 서비스 절차가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특징적이고... (연구참여자 5)

③ 지원 대상 소득수준 기준의 완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키워드: 필요성, 활용성, 소득수준 기준 완화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에게 고가의 보조기구의 구입은 생각지 못했던 선택지였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지원을 저소득층에 다 맞춰져있으니깐. 솔직히 말해서는 그런 기부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딱. 중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씩 벌어도 소득이 안 잡히잖아요. 다 공개되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낼 거 다 내고, 보조기구 사고...(연구참여자 1)

하지만 ‘맞춤형 지원사업’은 보조기구의 필요성과 활용성에 방점을 두어 지원 대상의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감소로 인한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이사업 맡으면서 가장 놀랍고 좋았던 부분은 이런 경제적 소득이 일순위가 아니라는 점. 지원이 단순 기구지원이 아니라 이 대상자들에게 현장평가를 통한 환경 상황, 아동의 등급으로 표현되지 않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보고 직접 보고 판단한다는 전문 요원이 있다는 점(연구참여자 6)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수급자에 맞춰져 있으니깐 그런데 기구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살수가 없는데 그게 됐을 때도 저희가 신청을 안했었어요. 그 얘기를 할려고. 신청을 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이번사업은 조금 완화가 돼서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깐 신청하라고... 다행이 돼서 얼마나 만족했어요(연구참여자 2).

(2) 지원 사업이 가져온 변화

① 동기부여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

키워드: 동기부여, 삶의 변화, 참여 촉진

필요성과 활용성을 강조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보조기구가 지원되고 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수혜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가정의 환경을 개조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희 아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상이 넓어졌어요. 보는 세상이 그 높이에 맞춰서 티비를 바꿨어요(연구참여자 1)

보조기구를 사용하며 생긴 변화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머물지 않았고, 태도나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기립이 되니까 정말 유용 하더라고요. 자기도 매일 앉아 있다가 서있으니까 좋고, 서있는 분들이 오면 자기가 설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지금 주간보호를 다니고 있어요. ○○ 주간보호. 거기는 난타공연이랑 합창공연 같은거 하는데 다들 서서하는데 자기는 앉아서 하잖아요. 휠체어 타면. 그 서서하는게 좋은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 서는 거예요(연구참여자 2)

②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키워드: 맞춤형 프로세스, 선도적 사업, 전문성, 추진 동력

지원사업의 프로세스라는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기획되던 10년 전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현실은 다양하지 못한 보조기구들 중 한 품목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이었지만, 지원사업이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세스를 사업에 결합시켜야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안목과 비전을 가진 지원기관과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

업 수행기관이라는 두 주체의 협력이 필요했다.

보조기구 지원이라는게 10년 전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재단이 봤을 때는 장애아동들 한 보조기구의 개수도 너무 적고, 종류도 부족하고, 오히려 맞춤형이라는 부분은 언급도 되기 전이다보니까 이 보조기구를 썼을 때 오히려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성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 같은 것도 너무 부족한 상황의 제품들을 보고, 경기도센터에서 제안한 맞춤형이라는 프로세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연구참여자 6)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단순히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청, 접수, 상담, 심사, 평가, 제작, 개조, 훈련, 사후관리까지의 토털서비스 개념을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프로세스와 보조기구 지원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 선도적인 사업이었다.

처음에 개인이 뭐가 필요한지 욕구 조사하고 수리 개조하고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토털...개인에 맞는 서비스 전체적인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단순한 개인의 몸에 맞게 맞추는 거나 여러기기들을 조합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서비스 지원 사업이었다(연구참여자 10)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통해 경기도재활공학센터는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원 프로세스가 경기도재활공학센터의 이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1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래서 다른데서 하는 사업들이 그 중에 좋은 점들을 뽑아가서는 것도 있고, 자기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나 공공영역이나에서 여기에서 나온 프로세스들이 다양하게 접근하다보니까 그것들을 다른 기관들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끄집아가지고 쓰는 형태들이 많이 나왔는 거 같아요... 근데 알고보면 다 이 아름다운재단이 해왔던 길에서 나왔던 것이죠. 공공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공공영역에서 교부사업을 할 때 품목 정해진 거에서 이 서비스 과정 이게 아름다운재단에서 나온 과정이에요. 전문가가 거기에서 개입을 했다라는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 거지만 여기서 시작했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전문가가 개입했는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주다보니까 오류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공공기관이나 저희

가 어떤 다른 기관들이 생기면서 아 이런것들을 정해진 품목에서는 여기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는게 좋겠다. 상담해주고 기기는 정해져있지만 그러면 욕구하고 기기하고 이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되는 지금 어떤 형태가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행정도 효율성 있고 원하는 요구도 맞춰주는...(연구참여자 9)

만약에 사실은 저희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지원사업 없이 지원정부예산으로 그 사업만 운영했다면 센터의 존재나 운영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운영에 대한 충분히 비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4)

또한 시범적 사업의 유연성을 통해 계속되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사업모델로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센터의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평가지도 만들었고...(연구참여자 8)

이 사업이 10년정도 이어진 몇년 몇가지 변화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완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가 품목 중심으로 했다가 지역도 확대됐고 또 최근에는 품목에 대한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과 품목지형이 반반 형태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변화 부분을 시도했고 그런 변화들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사업모델로 도전해 보는게 어떻겠냐, 그러니깐 흔히 주변에서 보는 렌탈샵 같은거 도거나 장난감 같은거, 이런 렌탈샵 형태의 충분히 소스를 확보해놓고 누구나 와서 쉽게 대여하는 필요한 것들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모델로의 변화...(연구참여자 4)

③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키워드: 사회공헌, 네트워크,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사회공헌 분야의 신영역을 개발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0년 전에는 기업의 관심도 높지 않았지만 ‘맞춤형 지원사업’ 이후 S-oil, 현대, 삼성 SDS, 코스콤 등에서 보조기구 지원을 사회공헌 활동의 한 아이টে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인 보조기구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른 공익 단체들도 이걸 벤치마킹 했던게 계기가 됐던 거니까 오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네... 돈 준 사람들도 기뻐하고..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연구참여자 8)

또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원금액, 지원품목, 대상인원 수, 전달체계, 제조업체 선정, 대상 지역 등에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이상적인 지원사업의 모델을 찾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방 파트너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보급/교육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협력 인프라의 부족으로 수도권 중심에 머물던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점점 확대된 이런 보조기구 사업이 있을까? 대부분 서울 중심에서만.. 지금도 뭐 그렇게만.. 그래도 이 사업이 지방으로도 이 사업을 확대시켜주는 역할도 했는거 같아요. 그런거라면 지역별 형평성도 해소해주는 역할이 거기에다 욕구에 따른 맞춤 해소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했는거 같아요(연구참여자 9)

다른 지역 센터들이 공적급여 전달만 해줬지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큐베이팅을 해보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지금도 실제로 지역센터가 보면 신생이라던지 이런데 보면 체계가 없거든요(연구참여자 8)

④ 제조업체의 서비스 진화 및 동반 성장



키워드: 사후관리, 사용자 중심



지원기관이나 수행기관은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을 걸고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수혜자의 입장에 서서 보조기구 제조 업체에 제품의 디자인, 품질,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하게되었다.

저도 광역센터들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하면 맞춤형이라고 해놓고 ‘왜 이거는 못 따라주나요’, 라던가 ‘이런 개조는 안 되나요’ 라던가 ‘사이즈는 왜 더 이상 못줄이나요’ (연구참여자 6)

업체들이 영세했었잖아요 이걸 주고.. 예전에는 이걸 주고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이 심사를 하면서 업체들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제..너희들이 사후관리를 해라 가장 대표

적으로 그동안엔 업체들이 사후관리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름다운재단 심사과정에서 입찰을 하면 항상 우리가 물어봤던게 너희가 2년 AS할 수 있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냐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업체들에 요구를 하면서업체들의 관리방안들까지도 고민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전문가로서 역량도 키워주었던 거죠(연구참여자 8)

이와 같은 요청은 보조기구 제조 업체에게도 제품의 개발과 서비스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사용자를 중심에 둔 조직의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전에는 생산, 영업, A/S, 다 다르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을 했던 사람이 직접 납품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합쳐진 것에 대해, 저희 안에서도 조직의 변화. 그러면서 사업들을 더 디테일하게, 더 사용자 중심으로, 재단 사업은 대상자, 업체, 민간조직에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연구참여자 5)

초창기에 비해 최근 보조기구의 생산이 자동화되고 품질이 월등히 나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0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다 보니 보조기구 제조 업체도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고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게 업체가 살아갈려면 다분히 몇 억 정도의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픈마인드 있을때는 진짜 비싸고 한두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 교부 사업이 한 2011년 기준으로 2억 정도 였던 거 같아요 1년에.. 자세보조 용구로 주는 게 그리고 바우처에서 그거는 통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도 어느정도 산업의 파이를 키워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있고 기술력도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0)

⑤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키워드: 제도화



민간영역은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거나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영역의 지원사업이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사업영역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알리고, 그것이 이제 정부지원화가 돼서 저희 재단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항상 모든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보니까...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정부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 지원이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 가장 큰 메시지로 생각한다(연구참여자 6)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해온 지난 10년간 일부 보조기구가 정부지원 품목에 포함되었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자세보조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자세유지 보조기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고, 기립보조기구가 지자체의 보조기구 교부품목에 포함되는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이 사업을 그때부터해서 지원을 안했더라면 소비자들이 장애인분들이 이 영역에 있는 품목의 욕구를 지금 이만큼 폭발적으로 찾을 수 있었을까? 라는 반문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거죠 안주었었더라면.. 그러니까 받고 떨어진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많아지니 그게 공공에서 줘야된다는 명목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없었더라면 지금 이게 건강품목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교부사업에도 자세보조용 기립이 들어갔을까? 그게 들어간지 얼마 안되었으니 바우처에서 이걸 주고 있었을까? 또 바우처도 2010년 이후에 9년인가 10년 정도부터 이 품목들이 지방에서 주기 시작했으니까 이 전에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하면서 주고 있었던 사업이니 그 전에 다 개인이 알음알음 조금씩 사고 그 수요는 많지 않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필요하다하는 걸 또 홍보하고 확대했던 요소가 되는거죠(연구참여자 9)

(3)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다양한 형태로 10년간 지속되어온 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제언이 있었다. 제언은 크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보조기구에 대한 부분, 지원사업을 둘러싼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의 공유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지원사업 부분

가.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키워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장애 아동 청소년에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구의 맞춤 제작과 개조뿐만 아니라 평가, 사용자 훈련, 사후 관리를 포함한 토털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와 지원 형평성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사후관리가 사업년도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

이제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요만큼 건너왔어요. 강을 건너려면 그게 일단 그런 게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단계가 났어나가기가 엄마들이 문 두드리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워요. 이런 사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의지하게 되고..(연구참여자 1)

그거에 따른 사후관리가 그 해에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이런 부분의 관리나 리사이클링 같은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저희 사업을 지원했던 대상층에 대해서 2-3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연구참여자 6)

나. 대상 확대의 가능성



키워드: 복지 사각지대, 선도적 모델 개발, 역차별



2006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이전에도 민간자원을 활용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복지사각 지대의 개발과 선도적 모델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동 청소년이나 노령 인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혜택이 줄어드는 대상 집단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맞춤형보조기구 사업에서도 아동 청소년이 있고 성인, 어르신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 중간에 뜨인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고...이런 포커스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열어놓아야하지 않을까, 이런 지원사업들이 넓어졌으면, 품목도 넓어지고 장애아동 경제적 수준도 넓어지고, 성장과정, 나이도 넓어져야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5)

따라서 대학생처럼 젊은 성인 등을 위한 지원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현실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한 고

려도 필요하다.

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입



키워드: 정례화 된 사후관리, 법률적·제도적 기준 보완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사후관리 일정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 편의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다른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는데, 9개월이면 무조건 컷을거다, 9개월에 한 번씩 보조기구를 만져주세요...아이 체형에 맞게, 뭐가 불편하세요, 엄마 일대일로 해서서 그분이 오시니까 내가 있고 두 명은 있잖아요, 그걸 아이에게 편리하게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9개월 동안은 마음이 편해져요 (연구참여자 1)

하지만 이 부분은 사업수행 기관의 인력과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이 문제이기는 한데 유사한 센터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센터의 조직, 인원수를 만 명 기준으로 해서 10명 뭐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예를 들면 3만명 이면 이 지역의 30명이면 법에 기준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없다고 보니까(연구참여자 4)

라.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키워드: 적응훈련, 보호자 교육, 쌍방 소통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지속이라는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적응훈련이나 보호자 교육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처음에는 울고 뺏겼어요, 후방형 기립기에 세우는 것 자체도 거부했어요. 친해지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사람 낯설잖아요, 기구도 같이 보시면 되요(연구참여자 1)

제조업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구 사용법을 담은 동영상 제작하여 QR 코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와의 접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저희가 납품하다보면 부모님들의 교육, 제품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고요. 이해도에 대한 차이가 다 보면 틀립니다. 저희가 센터도 작년인가? 작년서부터 센터도 QR코드로 해서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고...사진도 왔다갔다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있습니다...(연구참여자 5)

하지만 사용자마다 스마트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다르고, 생활 여건에 따라 능동적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 소통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QR코드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QR코드 따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만 그 스마트 기기조차 눈 아파서 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피곤함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운전해가지고 치료시간 닳쳐서 다니는 분들은 녹초 되어서 진짜 밥도 안 먹고 애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엄마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연구참여자 1)

마. 적극적인 사업 홍보



키워드: 입소문, 홍보 다변화



아름다운재단이나 경기도재활공학센터의 지원사업이 홍보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상자 확보나 지원금 지급이 계획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며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같은 사람이 홍보를 많이하는 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 저는 입으로 제가 전단지예요. 저는 입으로 홍보하는 전단지예요. 솔직히 이게 홍보가 잘 안되요. 저도 ○팀장님한테 있다는 전화받고 이러면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셔서 반가워서 저는 그때서 알아보는 거예요(연구참여자 1)

아무래도 공모다 보니까 선정률이나 접수율... 그리고 현장평가를 다녀와도 미달 없이 잔여금 없이 대상자를 지원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 담당자로서의 한계...(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은 입소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수단을 다변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와 결국은 경쟁이라는 중요한 요인 때문에 계획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도나 서울에 수백 개 되는 복지관에 다 보내요, 근데 이게 기관의 담당자 특성에 따라서도 홍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종종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알고 그걸 퍼트리는 순간 경쟁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깐 일부러 안 퍼트리시고, 그래서 아시는 분만 아시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거든요(연구참여자 3)

바.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키워드: 한계, 미래 현실, 아이템 개발



10년차 ‘맞춤형 지원사업’이 맞이하는 환경적 변화는 다양하다. 지원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하였고, 잔여금을 줄이기 위해 건별 지원금액이 늘어나 내부적으로 기부자의 기부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방향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 보조기구센터가 늘어났으나 기관별 역량과 보조기구에 대한 욕구가 상이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가진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는 등 현재 사업에 대한 일종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품목이나 지원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미래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논의가 절대 이르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배분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고, 경기도도 그거에 대한 실적을 내려놓고, 그 예산을 좀 틀어서 그 아까 보여주신 3D프린터로 완벽하게 어떠한 아동, 몇 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상의 시도도 해보고 싶고... R&D 라고 말하는 것이 꼭 저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그래서 현재 경기도 센터가 하고 있는 레저기구들의 개발처럼 어떠한 제품개발이나 보조기구의 개발이 꼭 많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틀어서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재단이랑 하는 사업은 항상 처음 시도하는 것이 많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단이

가지는 책임감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일반배분에서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이거는 다른 사업에서는 욕심을 못내는 건데, 경기도센터랑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연구참여자 6)

일단은 미래에, 4차 산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에는 직업군 완전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걸 미리 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아닌, 그걸 대비하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고민이에요, 저도 사회공헌에 한 15년 기여를 한 거니깐,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항상 고민이에요. 지금처럼은 아닌 거 같은데... 환경이 변화되잖아요,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우리 파트너단체들은 그 사고, 그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7)

② 보조기구 부분

가. 보조기구의 내구성 및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



키워드: 내구성, 완성도



일부 보조기구의 경우 지원이 제도화되면서 상품 경쟁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제품의 내구성이 약해졌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언급되었다.

근데 지금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주니까 솔직히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불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연구참여자 2)

그 몇 백 만원이, 아 이거 어떡하지, 3년 동안 써야하는데,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불편한 거는 변화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성장의 변화가 있어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으면 좋겠다. 수명이. 보조기구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엄마들이 조금 불편함이 덜 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

업체 측에게는 파악된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저희 아이들은 몸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시트커버가 더 넓어야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다 맞췄어요. 제가 제 비용을 들이는 것에 겁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움을 받아서 하는 엄마들도 많지만 돈이 많으면 다 개인적으로 하겠죠,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엄마들이 더 만족할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1)

나. 새 제품 개발시 사용자와 보호자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키워드: 의견 수렴, 절차적 장치

새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완할 때 보조기구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어떻게 만들어주면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해서가지고 맞춤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연구참여자 2)

다. 애프터 서비스 개선

키워드: 애프터 서비스, 지역별 편차

고가의 보조기구를 구입 혹은 지원받아 사용할 때 애프터 서비스의 제공 유무는 보조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지역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크고 연식이 오래된 보조기구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솔직히 서비스 문제는, 기립형 휠체어를 받았는데 기관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서울지역이나 이런데 많잖아요. 지금 7년 가까이 되었는데 단종 되고 이러면 서비스 받기 힘들어요(연구참여자 2)

③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부분

가. 보조기구의 보급과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적 기반 조성

키워드: 선택권, 사후관리, 광역보조기구 센터, 전국사업, 제도 정비

좋은 품질의 보조기구가 지원되더라도 보조기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환경적인 부분은 다양한 보조기구가 소

개되고 사용자의 선택권이 증대되는 것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공되는 것도 환경적 기반의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센터가 기본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 그게 저희는 보조기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들을 아직까지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게 현재 저희들이 봐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고...(연구참여자 4)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협력기관이 늘어났고 관리차원에서 행정절차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원 대상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부 보조기구로 품목이 제한 지원되면서 맞춤형이라는 사업의 특성이 퇴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지역 확대가 많이 됐고, 때마침 광역보조기구센터들이 많이 생긴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맞춤형이라는 이름을 계속 가져가기가. 인원수가 많고 지원을 해야하는 인원수가 많아지고, 컨트롤해지는 센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맞춤형은 도태되는 상황이 짧은 3년간 발생을 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6)

이 품목에 맞는 사람이 선정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보면 개인의 욕구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선정해놓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 신청하세요 이런 형태 이런게 기성화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게 맞춤의 개념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고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연구참여자 8)

또한 현실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마련이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재활공학센터의 인력과 재원에 대한 현실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된 자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의 바운더리에 한계인거 같아요.. 그 문제는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저희들 조직, 업무 구조, 팀에 대한 조직 구조 조직 체계, 팀 구성 조직구성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숙제라고 가져가는 부분이고..., 정책이 문제이기는 한데 유사한 센터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센터의 조직, 인원수를 만 명 기준으로 해서 10명 뭐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연구참여자 4)

나. 사회적 인식개선



키워드: 인식개선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사회구성원의 인식도 발전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인 낙인없이 보조기구를 통해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심리적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보조기구 지원과 별개의 분야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걷지 못하니깐 쇼핑도 못할 것이다, 그런거 싫어요. 그렇게 자꾸 좁혀지니까 엄마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힘들 것이다, 아니에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이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든든한 뺨이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고 엄마들은 사회에 내딛기 힘들어서 특별하게 대우받기 원하는 거고, 똑같아요, 평범한 일상은 더 원하는 거지 어른들이 보는 사회가 변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봐줘야하는데 우리아이들의 눈으로 보지 않고 어른들이 봐주니까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심각하게 보는 그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연구참여자 1)

④ 성과의 공유

가. 성과의 도출



키워드: 근거, 지표, 성과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수치화된 근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기획할 경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성제품을 썼을 때 보다 얼마나 다른 효과가 있는지를 데이터화 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표 그리고 사업의 비전을 많이 느끼셨던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6)

이제는 일반배분에서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이거는 다른 사업에서는 욕심을 못내는 건

데, 경기도센터랑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 마련이나, 그게 타당할지?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한 명분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서 연구를 요청 드린 거 이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6)

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단지 숫자의 증가로만 표현된다면 사업이 가지는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전달이 쉽지는 않다. 반대로 삶의 변화에 대한 스토리 텔링만 가지고 거액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에 사업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다. 따라서 성과의 실효를 증명해 낼 성과 지표의 개발과 측정, 그리고 향후 사업에의 적용점 등을 제안할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본 연구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기업이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랑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기업은 명확하고 수치화된 것을 원하는데, 사실 외부에서 제안하거나 파트너쉽할 때 정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어필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정상적인 부분이 기업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중이 만약에 100이 있다면, 20~30되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7)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 쓰고있는 단계거든요. 단순히 ‘몇 명한테 무엇을 줬다’ 라고만 보고하기에는 한계에 다달았어요...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집을 통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결과물로 보고 있어요. 결과물로 보고있는 것은 그 정도예요. 수치와 사례집.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좀 더 다른 것을 원하고도 계신데. 그게 어떤 차원이라고 말씀드려야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될 꺼 같아요. 처음에 우리에게 지원 받은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과가 될 수 있을까? (연구참여자 7)

대상자에 대한 평가나 성과, 효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기구의 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어찌되었던 센터와 재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찾은 현재의 이러한 사업들의 한계치라고 바라본 시선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효과, 성과, 평가, 개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참여자 6)

나. 성과의 홍보



키워드: 홍보



외부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잘 정리하고 홍보해야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지원단체 뿐만아니라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를 가진 일반 기업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의 도출 못지않게 홍보에 대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어떤식으로 성과나 그런 것을 회사에 어필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워요...사실은 기업에서 더 이렇게,, 수치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굵직한 사례가 하나 나와 주면 가장 큰 효과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들이 쉼- 움직여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7)

지금까지 분석된 인터뷰 결과를 ‘맞춤형 지원사업’의 참여주체인 이해관계자 유형 별로 구분하여 재범주화하면 아래 <표40>과 같다.

참여주체	하위범주	중위범주	상위범주
사용자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선발과 지원절차의 신뢰성	
	-	대상기준 완화	
	-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수행기관	-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의 가능성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적극적인 사후관리 도입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성과의 도출	성과의 공유	
	성과의 홍보		
지원기관	-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시험	지원사업이 가져온 변화
	-	보조공학 인프라 확장	
	-	보조공학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마중물 역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대상 확대의 가능성		
	적극적인 사업 홍보		
	새로운 지원 품목과 모델의 개발		
	사회적 인식개선	환경 개선	
	성과의 홍보	성과의 공유	
	보조기구 공급업체	-	제조업체의 서비스 진화 및 동반 성장
적응훈련 및 보호자 교육의 확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한계와 발전을 위한 제언
보조기구의 내구성 및 사용자 편의사항 개선		보조기구	
새 제품 개발시 사용자와 보호자의견의 적극적인 반영			
애프터 서비스 개선			
보조기구 보급과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환경 기반 조성		환경개선	
사회적 인식개선			

<표 40> 참여주체별로 구분한 인터뷰 결과 범주 재분류

제3절 | 소결 : 사업의 의의와 과제

1. 사업의 의의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현안의 해결, 사회변화 유도, 그리고 차별 및 불평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사업의 기획 당시 보조기구의 보급과 활용은 특정 장애를 가진 일부의 대상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조공학센터의 개소와 함께 다양한 보조기구가 소개되고 보조기구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과 교육 및 직업의 기회확충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될 수 있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의 수행주체로 경기도보조공학센터를 선정하고 사업협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법을 고민했다.

아직 보조공학이 생소한 사회적 환경에서 보조기구를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기획 의도는 단일 민간 재단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했다. 회의를 통해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시켰다.

1) 현안의 해결

2006년 이전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보조기구나 정보통신 보조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당시 아동 청소년은 지원의 우선 순위에 놓여있지 않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점이었다. 아동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2차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대상이다. 하지만 장애유형, 개인의 특성,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기구를 선택하게 되면 2차적 장애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보조기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

히 해외에서 수입된 고가의 보조기구는 가계에 부담이 되고, 전문가를 통해 보조기구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가의 보조기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야만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보조기구의 구입이라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보조공학 전문가와의 상담을 연계하여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정하고, 개별 장애 아동 청소년에 맞도록 보조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비용, 효율, 안전성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동 청소년은 모금의 전략적 용이성이 높은 대상이었다. 민간재단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요소인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모금은 다른 대상에 비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모금이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장점은 아름다운재단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육기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모금에 참여했던 기부자에게 아름다운재단의 다른 대상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 재단이 가진 사회 현상적 그리고 관리 행정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이었다.

2) 미래 패러다임 제시 및 사회변화 유도

10년 전 ‘맞춤형 지원사업’이 시작될 당시는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아름다운재단이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자 기업의 사회공헌 팀을 포함한 다른 공익 단체에서도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보조기구 인프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실제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규모를 보면 2006년 기준 5개도 안되었던 민간 영역의 보조기구 보급사업이 2016년 기준 약 73개 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보조기구 인프라의 확장은 보조기구의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도 이끌었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이 대규모로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되면서, 보조기구의 제조·공급자에게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기구의 제조·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되자 보다 체계적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지원방식의 측면에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기존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한

계를 넘어섰다. 기존 지원사업들의 특징은 지원품목을 우선 지정하고 지원품목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신청을 받아 선발절차를 거쳐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지원방식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편의를 도모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지원받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동일 장애일 경우라도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조기구를 통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센터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방식과 전달체계에 대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여 대상자의 선정, 보조기구의 선택, 보조기구의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조건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조기구의 지원이 가능한 현재의 지원 절차를 완성하였다. 이후 민간과 공공 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거나 반영하는 등 타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복지 사각지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역할은 복지 사각 지대를 개발하고 적합한 지원 모델을 적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사회로부터 관심을 끌어내고 제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 사업의 영역 안에 포함되도록 돕는 것에 있다.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자세유지 보조기구와 기립 보조기구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제도화에 성공하였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보조기구 인프라의 확장, 보조기구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 전달 모델의 개발, 그리고 제도화까지 민간 영역의 지원사업에 획득할 수 있는 정서적, 인식적, 산업적, 제도적 성과를 모두 가진 보기 드문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한 사업이다.

3) 차별 및 불평등 해소

‘맞춤형 지원사업’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기구의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사업이었다. 보조기구는 기능적 편의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장애가 오히려 시각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는 장애인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및 공학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아직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보조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보조기구를 적용하고 이용하는데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보조기구 사용 경험이 긍정적일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가 보조기구를 사용하기 더 나은 환경이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지원사업의 장기적 목표는 차별 및 불평등의 해소이다. 우리 사회에는 교육, 사회참여, 고용, 결혼, 육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미리 제단된 장애인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조기구를 통해 촉진된 기능적 편의가 장애 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직접적인 동력을 제공했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는 단일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맞춤형 지원사업’이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재단의 지원, 사업수행 파트너기관들의 인력, 공공 영역에서의 제도와 법률의 개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노력 등 각 영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가 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제 5 장 미래 전략의 개발

제5장 미래 전략의 개발

제1절 | 사업 현황과 성과의 전략적 분석

지금까지 본 연구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현황과 국내·외 유관 사업 동향을 토대로 한 수행 환경,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사업이 추진될 미래 전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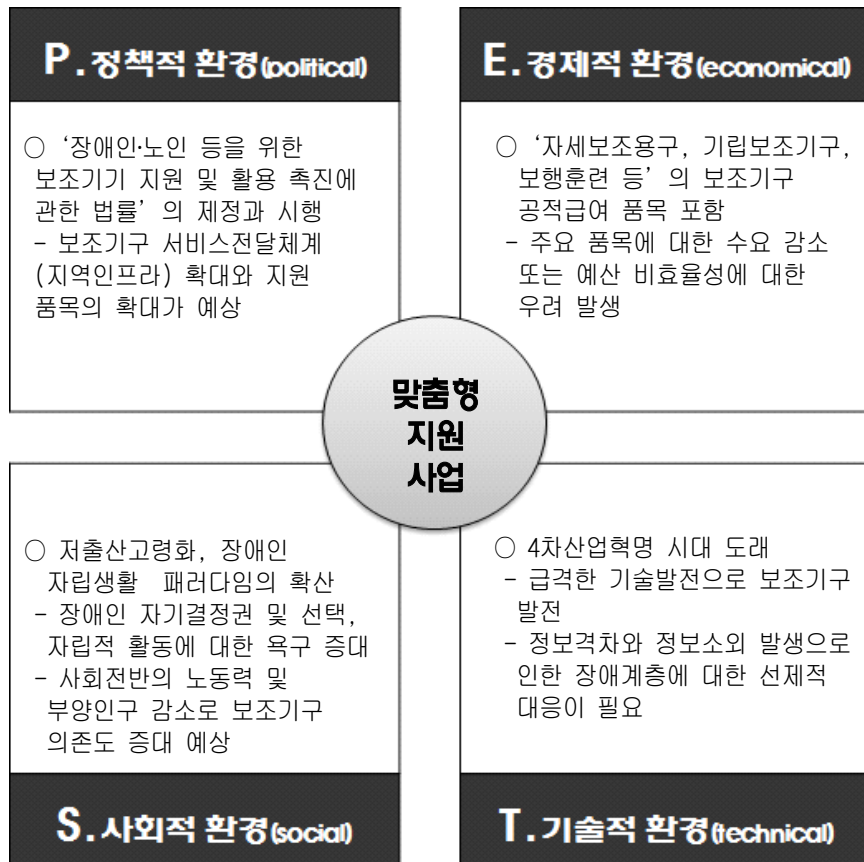
1. P.E.S.T. 분석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기법은 전략관리 구성요소의 하나로, 환경 파악에 사용되는 거시적 환경 요소를 분석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외부 여건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여 거시적 발전 방향 제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둘러싼 대표적인 정책적 환경 변화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조기기의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서비스 자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법률의 본격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법률의 실효가 강화될 경우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보가 용이해지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주력 품목들에 대한 공적급여가 확대·강화될 경우에는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 지원 당위성이 약화되는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환경에서는 정책적 환경에서 분석한 바와 유사하게 주요 지원 품목인 자세유지보조기구와 기립기구가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원 등 공적급여 항목에 포함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내 환경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선도적 사업 수행을 통해 수요와 활용 효과가 입증되면서 자세유지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일부 보행훈련기구가 국민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와 보건복지부 장애인교부사업 품목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주요하고 바람직한 사업수행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보급과 활용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는 상황은 ‘맞춤형 지원사업’ 입장에서 해당 품목의 수요가 감소되거나, 중복 지원 가능성 증가 등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 논란이 야기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 집단의 확대도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7> ‘맞춤형 지원사업’ 외부 환경의 PEST분석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리중심 패러다임의 지속적 확산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사회적 변화는 보조기구 활용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급적 타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립적 선택과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싶은 욕구와 함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양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여 보조기구를 통한 자립 촉진이 자의인 동시에 타의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 보조기구’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보조기구 활용 수요를 증대하는 동시에 이러한 지원이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지원을 지양하고, 수요자의 권리 중심의 개별화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환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정보의 네트워크화와 융복합 적용으로 이전과 다른 생산과 소비, 정보와 자원 공유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며,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과 웨어러블기구,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자율주행차와 감각센서 등의 기술적 결과물의 발전이 장애인보조기구를 기존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진보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기술이 앞서 언급한 저출산고령화, 노동인력 감소 등의 사회적 여건이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선도적 역할은 새로운 기술이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예방하는 동시에 진보된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S.W.O.T. 분석과 매트릭스

SWOT분석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으로 나누어 조직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의 긍정·부정적 요소를 각각 분석하는 기법이다. 조직과 사업이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전략적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을 돕는다. 당초 경영과 산업분야에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개발, 교육, 개인의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David(1993)는 SWOT 분석을 응용하여 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OS전략과 위협을 회피하는 TS전략, 약점을 극복하여 기회를 발전시키는 OW전략과 약점을 최소화시켜 위협을 회피하는 TW 전략으로 조합하는 TOWS 매트릭스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Internal (내적 요소) External (외적 요소)	Strengths (강점) 1. 국내최초 시도 및 10년 간 수행 경험, 선도적 시범적 사업 아이템 채택의 유연성 2.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서비스 역량의 보유 3. 아름다운재단-경기도센터-지역서비스기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확보 4. 높은 사업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의 확보	Weaknesses(약점) 1. 경기도센터와 지역협력자원 간의 역량차이 발생 2. 시대변화에 따른 사업형태 변경 시 의사결정 구조의 다층화로 인한 제약
	Opportunities (기회) 1. 보조기관관련법률의 제정과 자립생활 패러다임확산으로 보조기구 활용 욕구 및 사회적 인식 증진과 지역협력 자원 추가발굴 가능성 증대 2.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구 도입	O-S (강점-기회)전략 1. 선도적 아이템 및 모델의 개발보급이라는 사업 정체성을 반영하여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신사업추진 2. 지역파트너의 지속적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 범위 확장
Threats (위협) 1. 보조기구 보급 품목에 대한 국가 공적급여 확대에 따른 수요의 감소 및 예산비효율성 우려 발생 2.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조기구 사용 패턴 변화로 인한 혼란 발생 3. 유관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 분산	T-S (강점-위협)전략 1. 의사결정 유연성과 선도적 모델개발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과 대상 발굴 추진 2. 서비스 전문 모델에 대한 연구와 자료화를 통한 비교우위 강점 강화	T-W (약점-위협)전략 1. 미래전략에 따른 사업방향 전환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증적 변화 추진 2. 협력파트너에 대한 교육 및 자료공유 활동 강화 3. 민간-정부의 거버넌스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개념을 사업에 반영

<그림 18>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TOWS 매트릭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사업’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조합시켜 작성한 TOWS 매트릭스는 위의 <그림18>과 같다.

가장 먼저 강점과 기회요인을 조합한 OS전략으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선도성과 숙련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4차산업 혁명의 새로운 기술과 품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법률의 제정과 함께 향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사업의 수행 범위를 전국단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강점과 위협요인을 조합한 TS전략으로는 선도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의 강점을 토대로 품목과 사업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맞춤형, 전문 서비스 모델에 대한 연구·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을 강화하여 타 유관사업과의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약점과 기회요인을 조합한 OW전략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 서비스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재단 및 기부자들의 다층적 의사결정의 경직성 한계가 사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저해하지 않도록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적 대응 필요성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요인을 조합한 TW전략으로는 미래전략에 따라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수행 주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점증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아직까지 역량이 약한 지역센터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 공유를 통해 전국적인 보조기구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 제정에 따른 보조기구 지원 확대가 사업과 장애인의 생활을 함께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개념의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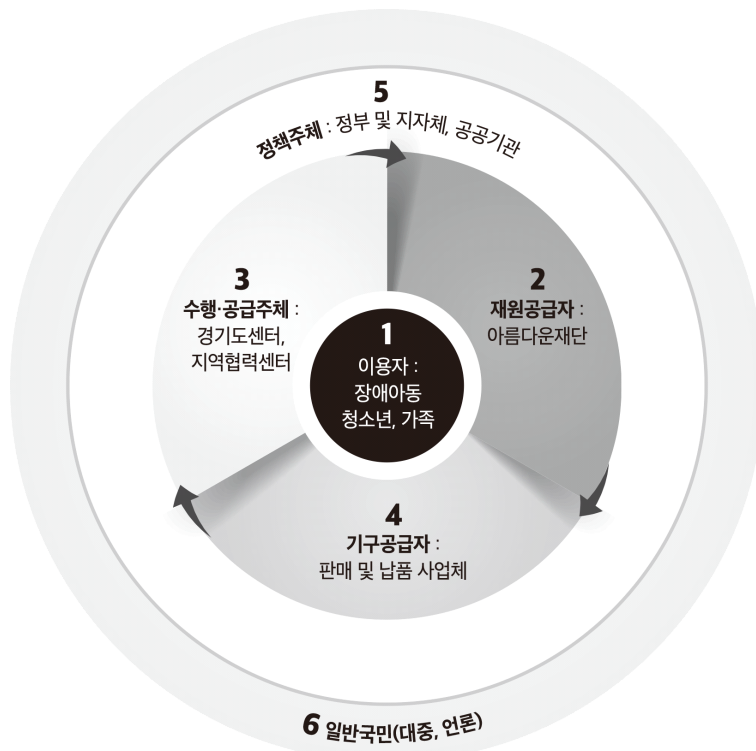
3.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 행위주체 액터(actor) 분석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 제안을 위한 마지막 분석 단계는 비즈니스모델의 개념을 적용한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향후 미래 전략 수립에서 각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서 활용되는 행위주체 ‘액터(actor)’를 규정하고 각각의 역할과 책임(R&R, Role and Responsibility)을 확인할 것이다.

‘액터’의 개념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서 고려되는 ‘행위주체’의 개념이나 로직 모델에서 언급하는 ‘이용자와 인적자원’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터’의 개념을 ‘맞춤형 지원사업을 둘러싼 핵심 행위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용자(장애인)’와 ‘재원공급자(아름다운재단)’, ‘수행·공급주체(경기도센터 및 지역협력기관)’, ‘보조기구 공급자(판매 및 납품업체)’, ‘정책주체(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 국민(대중, 언론)’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9> 행위주체 ‘actor’의 규정

전체적으로는 <그림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인 장애인’을 공급자인 ‘아름다운재단, 경기도센터와 지역협력센터, 기구판매 및 납품업체’가 둘러싸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와 일반국민(언론 등)이 사업 수행을 둘러싼 환경으로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1) 이용자(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이용자’의 핵심 집단은 일차적으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고, 확장적으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족 또는 서비스제공자)’이다. 일차핵심집단은 다른 용어로 ‘학령기’로 분류되기도 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사업에서는 ‘뇌병변 장애 및 지체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기구의 활용에 따른 효과가 높게 기대되는 반면 부모 등의 보호아래 있고, 가정-학교-이용기관-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원화된 보조기구 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업에서는 수동적으로 보조기구를 지급받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확장된 이용자 집단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기구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 자녀를 대변하는 보호자(부모, 많은 경우 어머니)이다. 사업의 특성 상 자녀 지원과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현재 사업 수행 체계에서는 사업 신청, 심사수검, 기구선택, 활용지원, 사후관리(만족도조사) 협력, 의견 계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원공급자 : 아름다운재단

‘맞춤형 지원사업’의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사업의 재원을 공급하는 ‘아름다운재단’이다. ‘맞춤형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통해 건강한 나눔문화의 확산과 사회 취약 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재단은 사업의 기획과 재원확보(모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업이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감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3) 수행·공급주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지원사업’의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사업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센터와 지역협력수행기관(지역보조기기센터)이다.

‘맞춤형 지원사업’ 이외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원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보조기구 서비스와 정보제공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경기도센터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보조공학전문서비스 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단순 서비스 외에 사업의 모델화, 정책화, 사회적 인식 확대 등의 중앙기구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 지원사업’에서는 사업의 기획, 공고, 심사 및 이용자 선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 제공(이용자 평가 및 적합 제품 판단, 이용자 사례관리), 제품의 확보(입찰 및 납품), 기구 지원 및 사후 서비스, 사업 평가, 지역센터 연계 및 교육, 지역 네트워크 관리, 납품업체 관리, 결과보고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경기도센터와의 협력 속에 지역 내 홍보와 대상자 선발, 지역 보급 대상 제품의 선정 및 보급 지원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기구공급자 : 판매 및 납품 사업체

‘맞춤형 지원사업’의 네 번째 이해관계자는 보조기구를 공급하는 판매 및 납품 사업체이다. 지역과 품목에 따른 입찰 과정에 따라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업에서는 입찰 절차 참여 제안을 통한 공정한 선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이용자 평가 및 적합 기구 제작(구매), 제품의 납품과 사용법 설명, 활용 중 발생하는 문제와 AS 수요에 대한 대응, 지속 발전과 사업 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업관리체계의 혁신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정책주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금까지의 ‘actor’들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었다면, 다섯 번째 actor인 정책주체는 사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정책, 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적인 참여자들이다. 보조기구 또는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사업에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과 보조기구에 대한 공적급여 시행,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 보조기구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와 분류체계 수립 등의 형태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6) 일반국민 : 대중 및 언론

가장 확장된 범위의 이해관계자 actor는 일반 국민이다. ‘맞춤형 지원사업’을 포함한 보조기구의 활용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따라 관련된 재원이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국민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언론 등 미디어의 역할이다. 장애인의 보조기구 활용 필요성과 효과성, 긍정적 사례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이다. 경우에 따라 일반 국민은 경쟁사업자, 기부자, 민원인 등의 형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제2절 | 소결 : 미래 지향적 사업 발전 전략 제안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난 10년간의 지원을 통해 상술한 바와 같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그리고 본 연구진은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10년차를 맞아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미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욕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보조기구와 관련한 장애 당사자들의 욕구,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형변화, 미래전략의 단초가 될 4차 산업혁명의 흐름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

P.E.S.T. 분석과 TOWS 매트릭스를 토대로 도출된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 수립방향은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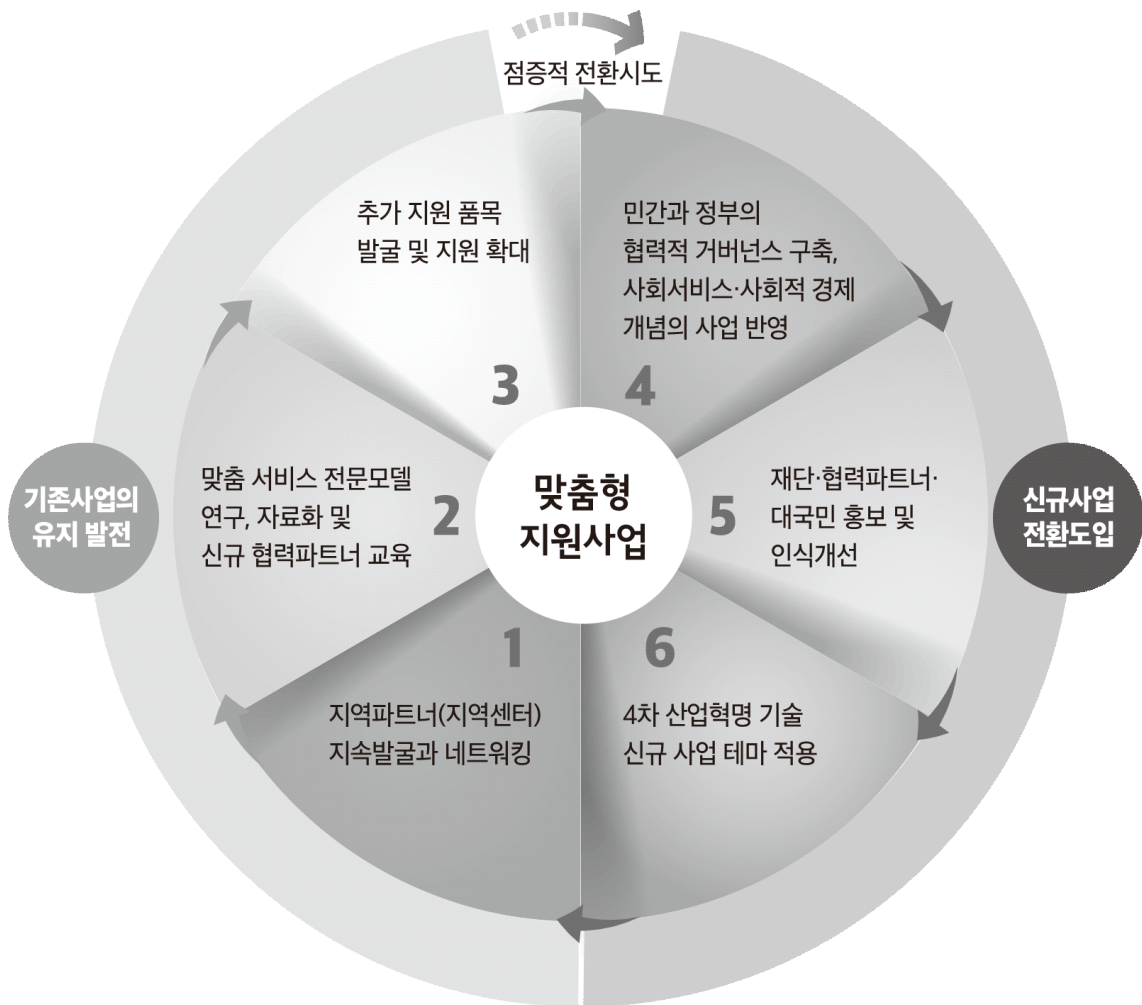
첫째는 OS(강점-기회)전략과 OW(약점-기회)전략에서 부각되는 지역서비스 네트워크 대한 활용이다. 보조기기 관련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게 될 지역보조기기 서비스센터를 새로운 지역 파트너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적용 대상 지역을 점차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는 TS(강점-위협)전략과 TW(약점-위협)전략에서 공유되는 선도적 사업 수행 경험과 실천 기술에 대한 연구 실시와 자료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협력파트너들에 대한 교육과 자료 공유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첫째로 제안했던 지역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와 연계되어 ‘맞춤형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OS(강점-기회)전략과 TS(강점-위협)전략에서 도출되는 사항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과 품목의 발굴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맞춤형 지원사업’이 수행한

선도적 역할과 새롭고 유연한 도전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기존 주요 지원 품목이 공적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품목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래 <그림2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3가지 전략 방향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림 20> 미래 지향적 사업 수행 방향의 주요 과제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지원주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기존 방식의 사업 비중을 점증적으로 축소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전략 방향 중 넷째로 제안되는 주제는 TW(약점-위협)전략에서 부각되는 민

간-정부의 거버넌스적 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개념의 사업 반영 필요성이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주요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수요 검증을 통해 정부의 공적급여 지원 대상 품목 반영이라는 민-관 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기기 관련법률의 시행에 따라 정부 주도로 설치·운영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는 보급 필요 품목에 대한 공적급여 포함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주체(아름다운재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중앙보조기기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정책 주체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지원 분야를 개발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시범적 사업 역할이 정부의 본 사업으로 지속 반영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로는 OW(약점-기회)전략과 TW(약점-위협)전략에서 도출되는 발전방향인 재단·협력파트너·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강화이다. 기존의 ‘맞춤형 지원사업’은 우리사회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적합한 보조기기 활용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유관 사업의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로 아름다운재단 내부의 자원 배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예산의 증액에 성공해 왔다. 한편 P.E.S.T.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외부환경의 변화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른 보급사업 확대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급속한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사업수행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 할 수 있을 위협 요인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도적 나눔 사업의 강점을 가진 ‘맞춤형 지원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보조기기 지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주체들과 기금 배분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과 다층적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단과 협력 파트너, 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장애인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당위성과 성공 사례,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된 인식개선과 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OS(강점-기회)전략과 OW(약점-기회), TS(강점-위협)전략, TW(약점-위협)전략의 4가지 매트릭스 모두에서 확인되는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반영한 신규 사업 테마의 발굴과 적용이 필요하다. 눈부시게 빠른 기술의 진화 속도는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활용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기술을 향유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장애인 가구 특성과 접근성이 부족한 기술 개발 경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더 심각하게 제약하는 차별로 적용될 수 있음이 이미 발생되었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영역의 개척과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조기기의 보급 확대나 고가 보조기기 확보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micro credit)방식 도입과 같은 새로운 테마의 사업 영역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부터 여섯째까지 제안된 주요 미래 발전 전략은 모두 기존 사업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이미 성과가 검증된바 있고,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나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계층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은 품목과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향후 5내지 10년에 걸쳐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규모를 조금씩 축소하고, 기존 사업의 절감분을 신규사업으로 전환·확대하여 사업 형태의 전환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점증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안된 기존 사업의 유지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으로의 전환 도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맞춤형 지원사업’의 유지·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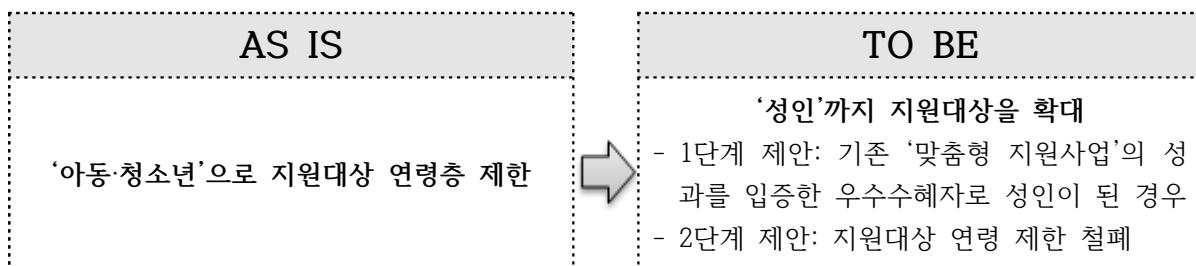
아동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지원절차의 합리성 면에서 그 성과가 증명되었다. 성과가 증명된 지원사업을 전면 수정하는 것에 대한 비효율 문제와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지적된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기존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아동 청소년이 보조기구를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 청소년이 보조기구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특히 자세유지 보조기구로 지원품목이 한정된 이후 다양한 장애에 대응하는 보조기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원받고자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미래 전략 수립과 시행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설치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기구의 지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관리의 측면에서도, 지역센터에 대한 적합한 역할의 배분과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보조기구 지원 당해 연도에 제한된 서비스의 기간을 확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면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질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보조기구는 장애문제에 대해 확장성 높은 미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보조기구 지원이라는 테마를 유지한 채 기존의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상을 확대하거나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보조기구의 정부 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지원사업’이 자세유지 보조기구 지원의 제도화를 이끈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대상이나 품목의 확대를 통해 선도성이라는 민간 지원 사업의 특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지원 대상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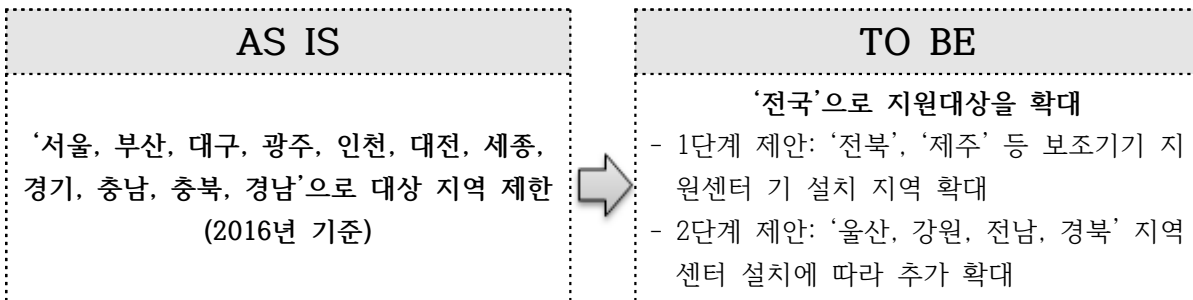
①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



‘맞춤형 지원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대부분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 보조기구나 통신 보조기구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년 사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조기

구의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알려지며 민간 영역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이 성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동시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회의 노령인구를 위한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정된 자원과 기회의 문제로 중간에 위치한 성인 장애인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혜자였던 아동·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서 지원이 단절되고, 더 이상 적절한 보조기구를 활용하지 못해 기존의 사업 수행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로도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중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청년이나 장년층을 위한 차별된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성별적 특성을 감안한 보조기구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재장애인의 원직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지원사업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보조기구의 지원사업 등은 확대된 대상에 적합한 사업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② 지원 대상 지역의 확대



2016년을 기준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경남’ 등 전국 11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 수행 초기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지자체 거주자들은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함에도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P.E.S.T.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보조기기 관련법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맞춤형 지원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서비스 협력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좋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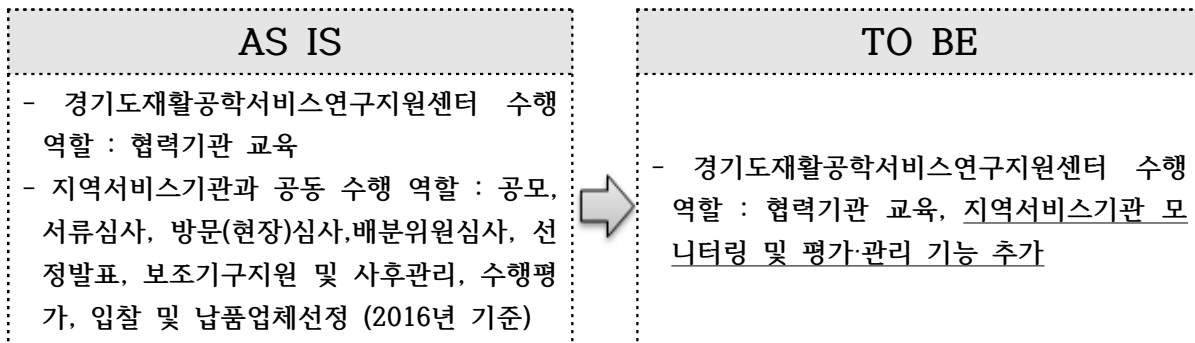
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과 ‘제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맞춤형 지원사업’의 적용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된 ‘전북, 제주’지역과 함께 향후 지역보조기기센터의 확대 설치에 따라 지역협력 파트너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맞춤형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는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10년 이상 축적된 전문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 노하우를 신설되는 지역 협력 기관에 전수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2) 지역서비스 협력 네트워크 운용 강화



앞서 지원대상의 확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맞춤형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지역의 협력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역보조기기센터 등의 협력 파트너의 역할 강화는 사업 확대에 따른 총괄 수행 기관인 경기도센터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기존의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 경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역협력 파트너의 수행 역량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협력수행기관’과 ‘PILOT수행 기관’을 구분하여 지역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조력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협력 기관의 역량은 사업의 성과 품질과 이용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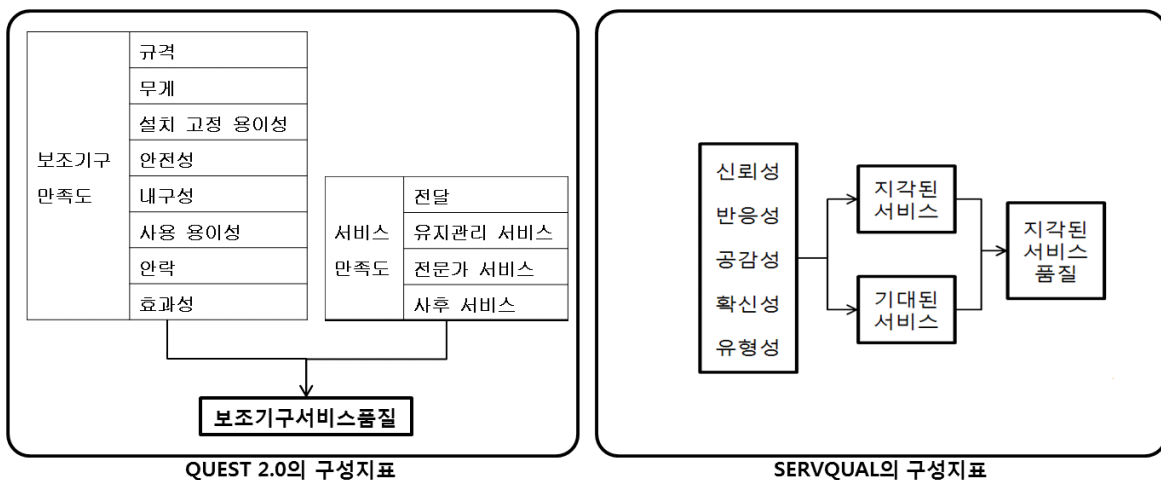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 협력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행의 사업 체계에서는 지역기관에 대한 협력과 교육, 워크숍 등의 수단 외에 지역 협력 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견인할 수 있는 유인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향후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균질하게 유지하는데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전국단위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센터가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을 지역센터에 위탁하여 직접 사업 수행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신 지역센터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환류(feedback) 등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력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기도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 QUEST2.0과 같은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구를 적용한 지역센터의 서비스 평가나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에 주로 적용되는 SERVQUAL모델(Parasurman, Zeithaml & Berry, 1988)의 하위 요소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QUEST2.0은 보조기구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보조기구의 규격, 무게, 설치와 고정의 용이성, 안전성, 내구성, 사용 용이성, 안락함, 사용효과성을 토대로 ‘보조기구 만족도’를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만족도’를 서비스전달(과정), 유지관리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사후서비스 등의 하위요소로 계량화 시켜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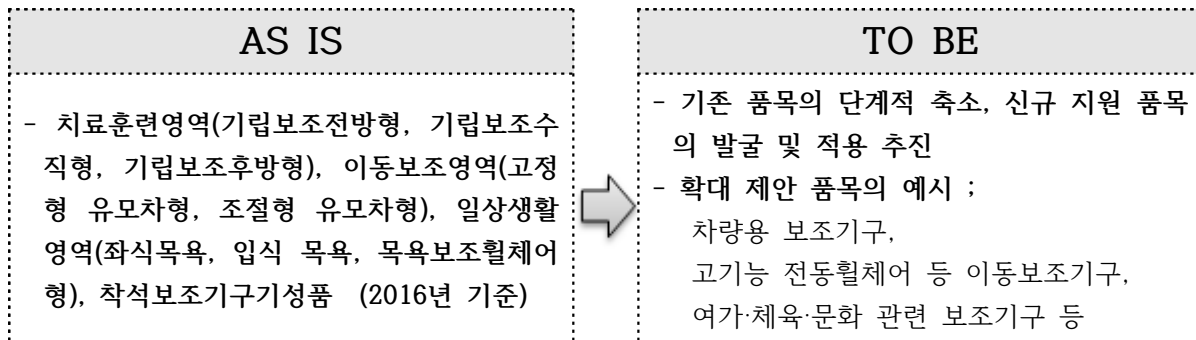


<그림 21>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하위 지표의 제안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관리 지표로 종종 활용되는 SERVQUAL은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 유형성의 요소들이 이용자에게 작용하고, 당초에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과 실제로 지각된 서비스 수준 간의 격차가 실제로 지각되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두 가지 서비스 품질 지표를 고려하면 보다 본격적인 전국단위 사업의 확대가 추진될 경우 지역센터의 사업 수행 역량과 성과를 QUEST 2.0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SERVQUAL 요소를 척도화시켜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사업 지원 규모와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차등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추가 지원 품목의 발굴과 적용



‘맞춤형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 연도에는 품목의 제한 없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다품목 지원은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의 향상은 물론 2차적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사업의 수행 규모가 확대 됨에 따라 수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기구의 선정 및 지원에 변화를 주었다. 착석 및 기립 자세보조기구와 이동보조기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해마다 지원 품목에 변화를 주어 의사소통 보조기구, 컴퓨터 보조기구, 일상행활 보조기구와 같은 품목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기도 하였다. 지원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보조기구의 선정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장애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 대상을 아동 청소년에서 다른 연령대로 확대를 고려할 경우

지원 품목의 변경 또는 확대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논의의 대상이다. 하지만 보조기구의 품질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보조기구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상태를 감안할 때 품목 개방형 지원방식의 전면적 도입은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와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시범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비단 아동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라는 발달 단계적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은 학교 이외에도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각종 보조기구를 가지고 병원이나 복지관 등 치료를 받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존재하지만 장애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나뉘고, 이용자 수가 많아 정작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공통된 바람이다. 본 연구과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보조기구의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의 강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자체가 고가인데다 개조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협력기관이나 기부자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 지원의 규모와 실효성에 대한 타당도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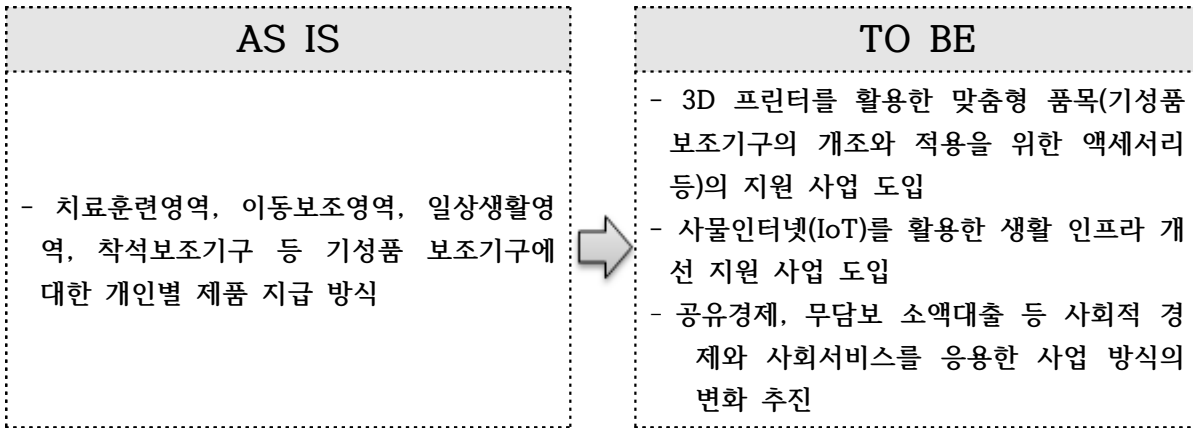
둘째, 역시 이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고기능 전동휠체어와 같은 품목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지원에 의해 이동보조기구에 대한 공적급여가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 책정된 기준금액 209만원이 11년 동안 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9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는 하지 기능에만 제약이 있는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인에게만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제품이다. 반면 상하지 기능에 복합적으로 제약을 받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본 기능 외에 킬팅, 리클라이닝, 엘리베이팅과 같은 체위 변경 기능이나 기본 조이스틱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이 가능한 컨트롤러와 같은 고기능 전동휠체어의 활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기능 전동휠체어는 대부분 500만원 이상의 고가 제품들에 해당하고 있어 기준금액인 209만원 중 10%의 자부담금(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준) 약 21만원에 더해 차액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고기능 전동휠체어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기본 기능의 전동휠체어를 선택하게 되고, 거

결과적으로 보조기구의 활용 성과와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나아가 보조기구 활용에 대한 불편한 경험은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를 축소시켜 장애인의 자립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기능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조기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에 맞춤형 지원사업의 재원을 부가적으로 결합시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과 사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는 여가, 문화, 체육 활동 등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다. 보조기구의 활용은 장애인의 삶의 영역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한 기본권 향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레저용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지원은 일상생활, 직장, 교육, 정보통신접근 등의 필수 목적성 보조기구 지원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의 지원이 장애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놀이용 보조기구나 개조된 자전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품목이나 대상연령층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가 목적의 보조기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재단과 경기도센터의 선도적 사업 수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이 누려야 하는 동등한 인권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가와 문화, 체육 등의 활동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대상 보조기구의 품목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사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이라는 자료를 보면 10년 이내에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전체 직업군 절반 이상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산업 시장에서 촉발된 변화의 조짐이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의 기능적 편의를 위한 분야에 컴퓨터나 로봇, 인공지능의 적용도 조만간 상용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시험 운행중인 자율주행 차량이나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과 보급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이동과 보행을 보조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촉진될 것이다. 물론 기술의 개발 추이와 재원의 마련 여부를 감안하여야만 하겠지만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현실로 접하게 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 사업의 형태를 미리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신규사업의 점증적 전환 도입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민간 재단의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사업의 과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전략이 중요한데, 주로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나 대상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를 공론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맞춤형 지원사업’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반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이었다면 향후에는 지원의 목적과 형태를 생활 환경이나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맞게 제시함으로써 선도성을 놓치지 않는 신규사업 아이템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를 테마로 다수의 대상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성과물을 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미래적 환경에서 미래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하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이라는 사업 주제에서 자유로운 신규사업 아이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3차원 인쇄기술(3D printing)을 이용한 지원사업은 사업의 수혜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가능과 간접적인 지원 모두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3차원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의지보조기나 보조기구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양산된 보조기구를 개별 장애인에 맞춰 개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작·보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기구 지원이라는 기존의 지원 방향을 유지한 채 맞춤형이라는 방식에 방점을 두어 사업의 연속성과 미래지향적 확장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기구

전체가 아니라 맞춤형 부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고비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간접적으로는 3차원 인쇄 인프라 확장을 위해 교육이나 자료 공유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3차원 인쇄를 활용하여 보조기구 제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여전히 지역적 편차가 심한 보조기구 관련 인프라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차원 인쇄와 관련한 신규사업은 인쇄물 출력을 위한 도면의 확보와 공유를 도울 수도 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3차원 인쇄 도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면 3차원 인쇄를 활용한 각종 보조기구의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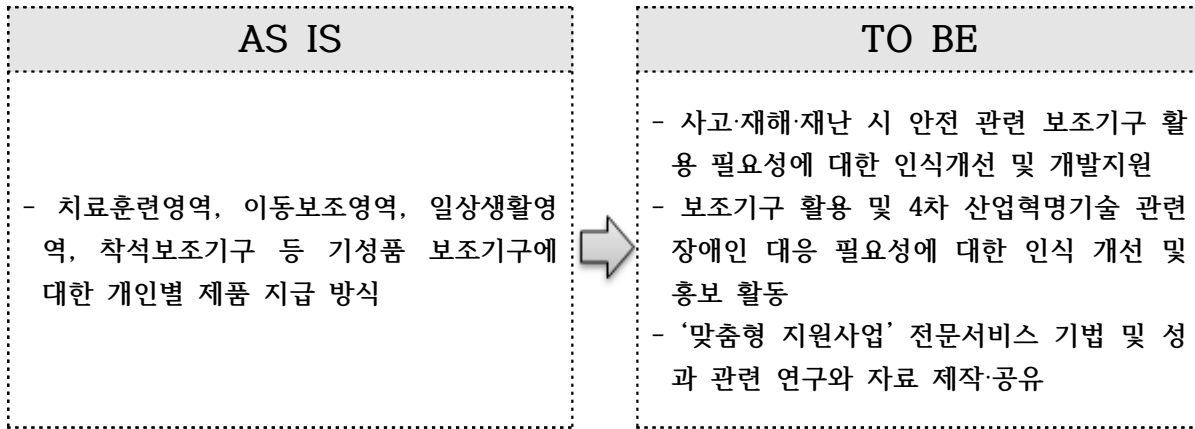
둘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활용한 편의 증진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가전기기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은 이동과 신체의 기능에 제한을 가진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기술은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 아름다운재단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단말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원 방식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상술한 3차원 인쇄 인프라 확장을 위한 교육 및 공유 지원과 같이 현안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사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의 트렌트를 접목해 볼 수 있다. 보조기구를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여하는 형태의 렌탈숍이나 보조기구 재활용 나눔센터의 설립·운영을 지원한다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다수의 대상을 위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유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로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기구의 유지·보수·관리 기술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무담보 소액 대출(Micro Credit)을 이용한 보조기구 지원도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원사업은 금품이나 현물을 지원해왔고 일단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후관리나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후관리는 지원된 자원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과 자원의 사용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 무담보 소액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을 이용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해가기

위한 과정에 지원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지원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보조기구 활용 토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 방식의 전환과 함께 지원 주제의 변화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잦아진 지진, 태풍, 홍수, 산불 등 재난 발생시 장애인은 기민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속한 지역 이탈이나 방재 참여가 불가능하여 재난사고 방어를 취약하기 때문이다. 재난 발생시 노령인구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비한 장애인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 취약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 보조기구의 보급이나 지자체나 협력단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 관리 체계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지원 방식과 주제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캠페인을 지원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취득된 전문 서비스 기법과 성과를 연구와 교육 자료 등으로 개발·보급하여 국내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전략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아름다운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지 여부, 재원 마련의 가능성 여부, 사업수행 협력기관의 존재여부 및 역량, 사업 환경의 성숙도,

제도화 가능성 여부 등은 사업의 규모와 기간 등을 결정하는 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0년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공적 지원이 미처 도달하지 않은 영역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민간 재단의 장점을 살려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선도해왔다. 걸림돌보다는 가능성에 방점을 둔 아름다운재단의 기획과 지원은 ‘맞춤형 지원사업’처럼 지원 대상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성장까지 이끄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미래전략 수립에 따른 수행주체의 R&R(역할·책임)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맞춤형 지원사업’의 가치체계에 따른 이해관계자(actor)의 규정은 향후 추진될 미래전략의 방향에 따라 보다 복합적인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이번에는 기존의 역할보다 이해주체 간 결합에 의해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미래 전략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영역의 확대와 변경이다. 이를 위한 의사결정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공급 주체인 경기도센터와 재원공급자인 아름다운재단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아름다운재단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사업 대상 및 범위 확대 검토	***			
- 기부자 및 자원배분 동의절차	***			
- 정책주체 MOU 체결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신규 사업 도입 방향 검토	**	**		
- 신규 사업 지원 계획 확정		***		

경기도센터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사업 대상 및 확대 품목 제안	**			
- 세부 사업 수행 계획 마련	***			
- 정책주체 MOU 체결	* * *			
- 지역 협력 자원 추가 확보	** ** *	** ** *	** ** *	** ** *
- 활용 성과 피드백 수렴 강화	****			
- 사업기법·성과 자료 제작공유	* * *	* * *	* * *	
- 점진 축소 계획 수립·모니터링		** **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신규 사업 도입 방향 협의	***			
- 신규 사업 지원 계획 작성	***			
- 신규 사업 수행 개시(점진확대)		***	** **	* * * * *

협의된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수행 방법, 수행 범위가 확정되고, 각 주체 간의 새로운 역할 배분이 시도되어야 한다.

2) 이용자(장애인)-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장애인 권리 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산 등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 확대가 점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업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다소 수동적인 사업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에 참여하고, 기구를 지원 받은 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후속 모니터링 참여, 사회적인 사례 공유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actor 간의 역할 관계 재편이 요구된다.

이용자(장애인)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활용 성과 피드백 강화	***			
- 지원 확대 대상 품목 제안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참여 및 사용자경험(UX)공유		*****	*****	*****

3) 정책주체(정부)-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현재까지는 정부와 수행주체, 재원 공급자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교류 과정이 없이 간접적인 정보의 교류를 통해 공적급여 품목 포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 수행 형태는 최근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까지 정부의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기기 관련 법률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정부의 관점을 고려하면, 미래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주체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의 설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수행주체인 경기도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경험과 수요 검증, 서비스 방법론에 대한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차원의 보조기구 전달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과 협력, 제도의 정비 등의 협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센터와 재단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도적인 보조공학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가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책주체(정부)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 수행주체(재단,센터)MOU 체결	*	*						
-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확대	**	**	**	**	**	**	**	
- 지원 대상 품목 수렴 및 반영				*	*	*		* * *
○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인식개선 및 정보격차해소활동		**	**	**	**	**		*****

4) 일반국민-수행공급주체(센터)-재원공급자(재단)

사업 수행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주체와 일반 대중 사이의 접촉과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기획 취재 등을 활용해 사업의 성과를 확산 시키고, 이러한 공유가 기부와 나눔으로 이어지도록 대중과의 접촉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국민,언론) 수행 영역	시기별 수행 역할							
	+1y	+2~3y		+4~5y			+6~10y	
○ 기존 사업 유지 발전 영역 및 신규사업 전환 관련 영역								
- 인식개선 및 기부참여 활동	**	**	**	**	**	**	**	*****

제3절 연구 제언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우수 민간분야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의 모델로 10년 이상 성장하며 수행하는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맞춤형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와 질적성과,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 사업과 사업 수행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맞춤형 지원사업’은 지난 10년간 총1,087명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에게 1,460개의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신체기능 증진을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 동안 총 25억3,846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최초로 민간주도의 보조기구 보급 사업 수행 방식 개발 및 보급과 공적급여 대상 품목의 발굴 등을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보조기구 지원역사에 중대한 기여를 한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맞춤형 지원사업’이 수행된 이후 지원 대상과 품목, 수행방식을 따르는 다양한 민간의 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주력 보급 품목이 국가에 의한 공적급여 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사업의 성과를 입증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업의 독자성과 지속 당위성을 저하시키는 외부 환경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보조기구 지원 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수행 중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던데서 우수 사례자에 대해서는 성장 이후 성인기에 대한 추적 지원을 가능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나아가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제품까지 신규 아이টে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사업이 가진 고유 속성에 기반하는 동시에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가시화라는 외부환경 변화를 함께 고려한 제안이다.

아울러 외부환경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기존 사업의 틀

을 과감하게 벗어나 ‘공유, 재사용, 무담보 소액대출,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시대적 수요가 반영된 사업으로 확장과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수행되던 사업을 급격하게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5년 내외의 전환 기간을 두어 점증적으로 신사업과 구사업의 비중을 교차시켜 전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구범위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후속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들은 국내 최초로 민간재단과 민간 서비스기관, 민간 수행주체와 정부, 민간수행기관과 산업계가 아름다운 협력의 모델을 선보인 ‘아름다운 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권혁철 (2006).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 산업 및 서비스 발전방안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보조공학센터.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2012), 재정사업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 현장에서 통하는 성과지표 개발
- 김영걸·김용욱 (2003), 장애인을 위한 보조 공학 활용 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281-301
- 김은량·한경임 (2015),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실태와 교사의 인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연구, 58(2), 111-135
- 남세현·공진용·김미정·강인학·안나연 (2015). 장애인·노인 보조기구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 박미경·박혜리·강혜옥·장우석·박장현 (2011), 보조공학 서비스를 통한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 사례연구, 2011 한국재활복지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119-122
- 박현옥, 김정현 (2007), 통합교육 상황에서 보조공학의 역할, 시각장애연구, 23(1), 133-145
- 변경희 (2001). 보조공학을 통한 지원고용 활성화 방안. 직업재활연구. 11(1). 117-133.
- 사공봉 (2016), 보조공학기구 사용이 재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활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나연·공진용 (2011). 보조공학기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요구 실태조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4). 121-142.
- 엄희영 (2007). 보조공학이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수행 능력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17(2), 121-137.
- 육주혜·김영규·공진용·손병창·고등영 (2007).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이근민 (1999).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적 접근 방안.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33(1), 1-28.
- 이창희 (2011).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인지와 욕구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43-62.
- 장경례 (2016), 뇌병변 및 지체 장애아의 보조공학기기 사용 만족도와 심리사회적 영향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숙 (2008), 지체부자유학교 ICT 활용 교육의 문제점 및 교사요구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예·김정란·민경철·구인순 (2006). 장애인의 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제공과 인간공학적 접근의 필요성. 장애와 고용, 16(2), 27-48.
- 정민예·김정란·박혜연·양노열·유인규 (2008). 보조공학기기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정민예·김정란·양노열·유인규·박혜연 (2009), 보조공학기기 이용실태 및 서비스 희망에 대한 심층면접,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1(2), 41-50
- 최복천·김유리 (2015), 중증 뇌병변장애 아동의 건강·의료 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한 부모인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3), 111-136
- 최유임·전병진·김은주·이상헌·송창순·김미정·정민예 (2011), 18세 미만 뇌병변장애인의 자세보조용구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3(1), 1-12
- 최원석 (2008).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효과성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4(3). 105-119.
-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 장애 통계 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2016). AT resources funding guide. Retrieved from <https://www.atia.org/at-resources/what-is-at/resources-funding-guide/>
- Connecticut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Connecticut assistive technology guidelines. Retrieved form <http://www.sde.ct.gov/sde/cwp/view>.

asp?a=2663&q=334948

- Cook, A. M. & Hussey, S. M (2002). *Assistive Technologies: Principles and Practice*(2nd). New York: Mosby, Inc.
- Coston, J. M. (1998). A model and typology of government-NGO relationship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7(3). 358-382.
- David, Fred R. (1993). *Strategic Management* (4th Edi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esideri, L., Mingardi, A., Stefanelli, B., Tanzini, D., Bitelli, C., Roentgen, U., & de Witte, L. (2013). Assessing children with multiple disabilities for assistive technology: A framework for quality assurance. *Technology and Disability*, 25(3), 159-166.
- Dijcks, B. P., Wessels, R. D., De Vlieger, S. L., & Post, M. W. (2006). KWAZO, a new instrument to assess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in assistive technology provisi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8(15), 909-914.
- Dickson, J. (2011). Philanthropy's blind spot: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NCRP's Quarterly Journal*.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YoP6BmqnUAhXLnZQKHTnrBpMQFggpMAA&url=https%3A%2F%2Fwww.ncrp.org%2Fwp-content%2Fuploads%2F2011%2F05%2FResponsive-Philanthropy_Spring2011-Dickson.pdf&usg=AFQjCNG9IEDRQsEfgEQLF8qX_hm2NZPKHQ&sig2=7u9XhBlggs13WGC03Gl2yg
- Gazley, B. (March 27, 2015). How philanthropy props up public service and why we should care. *Nonprofit Quarterly*. Retrieved from (<http://nonprofitquarterly.org/2015/03/27/how-philanthrop-prop-up-public-service-and-why-we-should-care/>)
- Gelderblom, G. J., & de Witte, L. P. (2002). The assessment of assistive technology outcomes, effects and costs. *Technology and Disability*, 14(3), 91-94.

- Georgia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Georgia project for assistive technology. Retrieved from <http://www.gpat.org/Georgia-Project-for-Assistive-Technology/Pages/default.aspx>
- Head, J. (October 17, 2013). Philanthropy and government: Unique roles for the common good. The San Francisco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yjy_atlqnUAhWlppQKHX90CH4QFgghMAA&url=http%3A%2F%2Fsf.org%2Fphilanthropy-and-government-unique-roles-for-the-common-good%2F&usg=AFQjCNH2wnW_jrqyv89LPAZDSwUNgUgJsQ
- Mann, W. C., Ottenbacher, K. J., Fraas, L., Tomita, M., & Granger, C. V.(1999). Effectiveness of assistive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terventions in maintaining independence and reducing home care costs for the frail elderl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rchives of family medicine*, 8(3), 210-217.
- Prodinger, B., Weise, A. P., Shaw, L., & Stamm, T. A. (2010). A Delphi study 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impact work and social lif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multiple sclerosis in Austria and Switzerland.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2(3), 183-195
- Ryan, S. E., Campbell. K. A., Rigby, P. J., Germon, B. F., Hubley, D., & Chan, B. (2009). The impact of adaptive seating devices on the lives of you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90(1), 27-33.
- Sadao, K. C., & Robinson, N. B.(2010), *Assistive Technology for young children*, ML: Paul. H. Brooks
- Shapcott, N., & Levy, B. (1999). By the numbers—making the case for clinical use of pressure measurement mat technology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pressure ulcers. *Team Rehabilitation Report*, 16-21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Assistive technolog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eat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inclusion and participation*. Retrievd from <http://www.unicef.org/dis->

abilities/files/Assistive-Tech-Web.pdf

Walker, D., & Williamson, R.(1995), Computer and adolescents with emotional behavioral disorders, Part 1&2, <http://closingthegap.com>(김은량, 한경임, 2015에서 재인용)

Weisbrod, B. A. (2009). The nonprofit econom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Wilby, P. (December 31, 2010). Private charity is never a substitute for public welfare.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jnN77_6jUAhWCF5QKHdgBCOAQFggkMAA&url=https%3A%2F%2Fwww.theguardian.com%2Fcommentisfree%2F2010%2Fdec%2F31%2Ffrancis-maude-big-society-charity&usg=AFQjCNFLE96Bf-5MJOpUW3rqB_r4D_Y1Q

Young, D. Y. (2000). Alternative models fo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 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1), 149-172.

Zabala, J. (1995). The SETT Framework: Critical Areas To Consider When Making Informed Assistive Technology Decisions. Retrieved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381962.pdf>

Zeiger, H. (March 24, 2016). Blurring lines between government and philanthropy. *Philanthropy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Bmez76jUAhXLmJQKHfa2BGIQFgghMAA&url=http%3A%2F%2Fwww.discovery.org%2Fa%2F25271&usg=AFQjCNGIwJxnYDjVxB4UuHsKKVHu4Wddlw>

부록1 - 국내 유관사업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수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 후속 전략의 마련하기 위해 연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내용 중 민간부문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현황과 성격, 수행방법, 특성과 장·단점 등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보조공학 현황 파악과 향후 보조공학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께서 수행 중이신(또는 수행하셨던) 민간부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자 설문을 요청드리려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민간부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설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완료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교수 연구팀

문의 및 연락처: namsh@hs.ac.kr

017-298-2922

2016.11.23

사업명: (예시)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사업

1. 사업 수행 주체 ()

2.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3. 사업의 포괄적 대상은 누구인가요?

()

4. 사업대상이 되는 장애유형, 연령대, 지역은 무엇인가요?

()

5.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년 월)

6. 총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그 중에 보조기기 지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총 사업예산규모: (천원) 중, 보조기기 지원 비용: (천원)

7.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받으신 것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기업
- ②모금 재단
- ③공공 기관
- ④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 ⑤정부지방 자치단체
- ⑥사회적 기업
- ⑦개인 후원금
- ⑧기타()

8. 주된 지원 품목이 아래에 작성된 내용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 (예시) 정보통신·학습보조기구 (아래 품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33 컴퓨터 및 단말기 (노트북, 윈도우 기반 태블릿 PT, 모바일 기반 태블릿 PC) - 22 39 12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센스 리더기) - 22 36 21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아이টে을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기구 (트랙볼마우스) <p>* 위 품목이 아닌 경우, 혹은 위 품목 외에 지원된 주된 품목들이 있다면 직접 작성</p>
--

9. 사업이 달성하려고 생각한 성과는 무엇이고,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 사업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본 사업은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셨습니다?

성과목표는 ()를 ()정도 달성하는 것이었고, 목표 대비 대략 (%) 달성

17-1. 어떤 방법으로 몇 차례의 피드백을 받으셨습니까?

()

17-2. 받은 피드백 중, 사업에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8. 담당자께서는 해당 사업이 가지는 장점과 특화된 차별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 담당자께서는 해당 사업의 한계점과 제약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0. 19번에 응답하신 한계와 제약여건에 대한 보완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21. 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을 구상하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혹시 사업과 관련된 적용 지침 및 가이드가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해주실 수 있다면 첨부파일을 같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연구주관기관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원 :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공동연구원 : 전무경 (한울사회복지연구소)
- 연구보조원 : 배상익 (Old Park Special School, U.K)
이소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최다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주진완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연구위탁기관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
권성진 연구실장
황민영 연구개발팀 과장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발행일 2017년 4월

발행처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Tel. 031-379-0114

민간영역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2016

